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 焦竑의 詩觀 研究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문학전공

홍 다 운



# 焦竑의 詩觀 研究

지도교수 김 월 회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문학전공  
홍 다 운

홍다운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7월

위원장

이 강 재



부위원장

류 준 환



위 원

김 월 회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명대 중후기의 학자이자 문인인 초횡(焦竑, 1540~1619)의 시관에 관한 연구이다. 초횡은 양명학자로서 그동안 문학사에서보다 사상사나 철학사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문학사에서는 그의 문학과 관련된 성취를 자세히 논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단순히 그를 공안파에 속하는 인물로 평가하여 초횡 시관의 문학사적 의의와 그의 위상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초횡의 시관을 재구성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초횡의 시관을 분석하기 위해 그의 생애와 사상, 기이관(奇異觀), 고금관(古今觀)을 살펴보았다. 초횡은 공연히 심학을 논하고 공부에 힘쓰지 않는 폐해에 빠진 양명학자들과 달리, 실제적인 공부를 중시하여 고증학에서도 성취를 이뤘다는 점에서 그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의 학문적 위치를 명말청초 심학과 고증학의 가교로 설정할 수 있다.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학문을 접하고자 했던 초횡의 사상과 태도는 그가 심학, 고증학, 사학, 문학 등 다방면으로 학문적 성취를 이루게 했다. 복고파, 당송파, 공안파, 경륜파 등이 출현하여 각 유파의 문학 주장을 펼쳤던 시기에도 이에 휩쓸리지 않고, 초횡은 글을 고찰함에 복합적인 사고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견해는 ‘기이함’과 ‘고금’에 대한 초횡의 인식에서 살펴볼 수 있다. 명대에는 ‘기이함’을 좇는 풍조가 성행하여 ‘기이함’이 사물에 대한 가치평가의 우선이 될 정도였다. 이에 시류를 좇는 문인들은 글을 창작함에 화려함을 추구하고 인위적인 수식에만 치중하여 내용이 허술하게 되는 폐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전통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경계한 문인들도 있었다. 초횡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기이함’에 대해 단순한 긍정 혹은 부정 차원에서 견해를 밝힌 것이 아니라, ‘기이함’에 대한 본인의 관점을 명확하게 천명하였다. 초횡은 ‘기이함’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이함’을 글의 장점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는 즉 내용 차원에서 ‘본성으로서의 기이함’을

갖추는 것이다. 초횡은 ‘본성으로서의 기이함’을 금과 옥, 재목 등 본성적으로 가치를 지니는 물건에 비유하고, 도연명의 작품과 《춘추좌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가 ‘기이함’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기이함’이 있어야 비로소 뛰어난 글이 됨을 분명히 밝혔다.

또 초횡 시관의 저변으로 기이관과 함께 고금관을 살펴보았다. 초횡의 고금관을 살펴본 결과 초횡이 주장하는 글쓰기의 전범은 옛것에 있었다. 다만 유의할 점은 그가 추구하는 글은 옛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옛글이 훌륭하게 된 원인이 구현된 글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초횡은 ‘성명(性命)’과 ‘사공(事功)’을 학문 연마의 근간으로 여기고,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 이를 체득한 상태로 글쓰기를 실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글을 썼을 때 비로소 내용의 깊이가 확보되고, 그 내용에 부합되는 아름다운 수식이나 표현, 격식 등이 이루어져 ‘본성으로서의 기이함’을 빛낼 수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초횡은 글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중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초횡의 고금관은 ‘성(性)’, ‘령(靈)’과도 연동된다. 초횡은 옛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귀고천금(貴古賤今)’ 하지는 않았다. 초횡은 ‘자신의 글’을 써야 하는 단계에 이르기 위한 준비로서 모방이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그 모방의 대상이 옛사람의 글 자체는 아니었다. 옛것이 훌륭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찾아 배우고, 자기만의 개성이 담긴 글을 쓰게 되면 시대를 가로질러 전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초횡의 견해였다. 곧 초횡이 모방 대상으로 삼은 ‘古’는 단지 옛것이 아니라 ‘靈’이 담겨있는 ‘古’이며, 그렇기에 본받을 만한 전범이 된 ‘古’이다. 초횡은 ‘자기’, 즉 ‘개성’을 ‘靈’이라고 표현하였고, 그것이 밝히 드러난 상태를 ‘靈采’라고 표현했다. 이처럼 ‘古’에 대한 학습을 기반으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 자신만의 풍격을 갖추면 이전에 다루어졌던 주제나 소재, 표현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거듭날 수 있으며, 옛것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초횡의 시관을 재구성하였다. 초횡은 유가의 전통적인 시론을 계승하였으며, 시에 있어서 ‘시교(詩敎)’를 중시하는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복고파가 전통을 중시함에 ‘시교’에 초점을 두기보다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하였고, 당송파는 유교의 정신을 본받고 있었지

만, ‘시교’의 기능보다는 공안파와 마찬가지로 작가의 사상과 감정의 솔직한 표현에 더 치중한 사실을 근거로 봤을 때, 명대의 시는 ‘시교’의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이에 초횡은 유가의 전통적인 시교론을 주장하며 시의 옛 정신과 시 본래의 기능을 되살리고 당시 시풍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또 좋은 시의 조건으로 ‘성’과 ‘령’의 융합을 제시하면서 전통 시론의 단순한 계승이 아닌 갱신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러한 시의 창작을 위한 조건으로 ‘작가의 수양’을 강조하였다. 작가의 수양에 있어서 독서를 중시하는 초횡의 관점을 통해 그가 일반 양명좌파 학자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초횡의 시관을 분석한 결과, 초횡이 주장하는 ‘성령(性靈)’은 ‘성’과 ‘령’의 융합으로 공안파의 ‘성령’과 구분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초횡이 공안파의 ‘성령설’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공안파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초횡은 다른 유파의 폐단을 보완할 만한 시관을 지니고 있었고, 실제로 초횡의 학문적 견해가 주변 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기에 초횡의 문학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문학사 연구에서 초횡에 관한 서술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초횡, 시관, 기이, 고금, 성령, 공안파, 양명학, 명대문학  
학 번: 2016-23903



# 목 차

국문초록 .....	i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목적 .....	1
제 2 절 기존연구 검토 .....	6
제 3 절 연구범위와 내용 .....	15
제 2 장 초횡 시관의 저변 .....	17
제 1 절 초횡의 생애와 사상 .....	18
제 2 절 奇異 숭상 풍조의 교정: ‘본성으로서의 奇異’ 긍정 .....	34
제 3 절 ‘性-靈’과 ‘古-今’의 연동 .....	42
제 3 장 序跋文에 드러난 초횡의 시관 .....	61
제 1 절 傳統詩敎論의 계승 .....	62
제 2 절 ‘좋은 詩’의 조건: 性과 靈의 융합 .....	76
제 3 절 詩作에 대한 윤리학적 요구 .....	81
제 4 장 결론 .....	102

참고문헌 .....	105
------------	-----

中文摘要 .....	109
------------	-----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목적

본 논문은 명대의 문인이자 학자인 초횡(焦竑)<sup>1)</sup>의 시관에 관한 연구이다. 초횡은 양명학자로서 심학, 고증학, 사학, 문학 등에 두루 능통했으며, 명말 청초 학술의 전환기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 초횡은 주변 문인들과의 지속적인 학술적 교류를 통해 명대 문학의 발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문학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초횡이 공안파 인물들과 자주 교류하고 공안파의 ‘성령설(性靈說)’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초횡을 단순히 공안파에 속하는 인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횡이 주장하는 ‘성령(性靈)’은 공안파의 ‘성령설’과 구분되며, 초횡의 시론은 공안파의 시론보다 더욱 복합적인 것이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초횡의 시관을 분석하고, 그 문학사적 의의를 재평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는다.

명대의 문인들은 이전보다 더욱 공개적이고 전면적으로 글쓰기의 의미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sup>2)</sup> 명대 초기에는 대각체(臺閣體)<sup>3)</sup>가 크게 유행

---

1) 필자는 논의 전개에 앞서 ‘초횡(焦竑)’의 독음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초횡’을 ‘초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竑’은 《광운(廣韻)》에 따르면 ‘戶萌切’, 《정운(正韻)》에 따르면 ‘胡盲切’로 넓다[廣], 헤아리다[量度]의 뜻이다. 그리고 《옥편(玉篇)》의 경우, 뜻은 같으나 ‘古弘切’로 기록되어 있다. 한국 한자사전에 따르면, 겹 횡, 넓을 횡, 강할 횡으로 독음이 모두 ‘횡’이다. 필자는 이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 ‘초횡’이라 부르기로 한다.

2) “명대의 특징적인 현상은 문화 권력을 형성하는 대표적 문인들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정치 권력이 문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있던 중국 사회에서 이런 현상은 곧 문화 권력의 약화를 의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명대의 문인들은 과거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다. 즉 그들은 정치 권력과의 상관관계에 신경을 덜 쓰면서 글쓰기를 진행했고 그래서 글쓰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 서경호, 《중국 문학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3, p. 578.

하였으나 뒤이어서는 천편일률적인 시풍에 반대하는 다릉파(茶陵派)<sup>4)</sup>가 출현하면서 훗날 출현한 전후칠자(前後七子)<sup>5)</sup>의 복고운동에 기초를 마련하였다. 전후칠자의 복고운동으로 인해 대각체는 쇠퇴하였고, 전통적인 시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문인들 사이에서 주류를 이루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복고주의의 형식에 대한 지나친 모방에 반대하는 당송파(唐宋派)<sup>6)</sup>가 출현하였고, 이러한 당송파의 주장에 힘입어 복고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는 공안파(公安派)<sup>7)</sup>가 뒤이어 등장하였다. 공안파는 작가의 개성을 중시하며 성령설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작가의 솔직한 표현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작품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작가의 개성과 작품의 깊이 모두를 추구하는 경릉파(竟陵派)<sup>8)</sup>가 출현하였다.

- 
- 3) 대각체는 영락(永樂, 1403~1424) 연간에서 성화(成化, 1465~1487) 연간 사이에 성행했던 문체이다. 흔히 ‘삼양(三楊)’으로 일컬어지는 양사기(楊士奇), 양영(楊榮), 양부(楊溥)가 대각체를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주로 성덕(聖德)을 찬송하고, 태평(太平)을 노래하거나 교유의 목적으로 시문을 창작했기 때문에 작품이 천편일률적인 경향을 띠었다.
  - 4) 명대 성화(成化) 연간에 이동양(李東陽)을 필두로 한 다릉시파가 출현하였다. 이들은 대각체의 위약(萎弱)한 시풍에 반대하며 시에 있어서 당시(唐詩)를 배울 것을 주장했다. 대각체의 시풍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옛것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창작 경향은 전후칠자의 복고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 5) 전후칠자는 “문장은 반드시 진·한의 것을 따라야 하고, 시는 반드시 성당의 것을 따라야 한다(文必秦漢, 詩必盛唐)”고 주장하며 복고운동을 일으켰다. 전칠자는 이몽양(李夢陽), 하경명(何景明), 서정경(徐禎卿), 변공(邊貢), 강해(康海), 왕구사(王九思), 왕정상(王廷相)을 가리키고, 후칠자는 이반룡(李攀龍), 왕세정(王世貞), 사진(謝榛), 종신(宗臣), 양유예(梁有譽), 서중행(徐中行), 오국륜(吳國倫)을 가리킨다.
  - 6) 전후칠자가 복고주의를 주장하면서 옛것을 모방하는 풍조가 성행하자 왕신중(王慎中), 당순지(唐順之), 모곤(茅坤), 귀유광(歸有光) 등은 그 폐단을 바로잡고자 했다. 이들은 작가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였고, 한유(韓愈), 구양수(歐陽修)와 증공(曾鞏) 등 당송팔대가의 문장을 높이 평가하며 당송대의 문장을 배울 것을 주장하였다.
  - 7) 명대 후기에 출현한 유파로서 원종도(袁宗道), 원굉도(袁宏道), 원중도(袁中道)의 3형제가 중심인물이다. 이들은 복고주의 문학에 반대하며, 작가의 개성과 진솔한 표현을 중시하는 ‘성령설(性靈說)’을 내세웠다.
  - 8) 공안파가 작가의 솔직한 표현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수사나 언어가 통속적이고, 문학성을 띠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릉파가 출현하

이러한 문학의 흐름을 보면 명대에 절대적인 문화 권력은 없었으며, 동시에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문학적 대가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서경호는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에 의해서 비판될 수 있는 것이 명대 문인사회의 분위기였다고 분석했다.<sup>9)</sup>

초횡은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는 당송과 작가들의 “경전을 본받고, 도를 밝힌다[宗經明道]”의 문학정신을 이어받았고, 문풍은 정통적인 당송고문의 전통에 가까웠다. 그러나 기본적인 입장은 의고주의를 반대하는 문인들 편에 서 있었고, 후에 공안파 문인들이 전통에 반대하고, 모방에 반대하며 성령을 주장하는 데 길을 열어주었다.<sup>10)</sup> 즉 초횡은 ‘도’를 바탕으로 하는 유가의 전통적인 문학관을 계승하였지만, 단순한 계승에서 그치지 않고 옛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복고주의의 폐단을 인식하며 작품에 글쓴이의 ‘진실한 성정[靈]’<sup>11)</sup>이 함께 깃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공안파는 ‘성령’을 추구하면서 반전통적인 입장이 극도로 강해졌고, 오직 작가의 솔직한 표현과 개성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초횡의 시론은 공안파의 시론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생존 시기로 보건대 초횡이 공안파의 선구 역할을 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를 공안파에 속하는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는 초횡의 사상이나 학술에서도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논자들은 그를 양명학자로만 평가한다. 후술하겠지만, 사실 그는 고증학과 사학 방면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를 남겼다. 공안파라는 하나의 범주에 그를 묶어둘 수 없듯이 그의 학문 또한 어느 한 유파에 가뒀을 수는 없는 것이다. 곧 초횡은 사상이나 학문을 폭넓게 수용하면서도 한 유파가 추구하는 학풍만을 좇지 않았으며, 이러한 그의 태도는 문학에도 관철되어 한 유파가 추구하는 문풍만을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았다. 이는 그가 공안파 문인을 포함하여 타인의 文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함에 토대가 되었다.

---

였으며, 대표 인물은 종성(鍾惺)과 담원춘(譚元春)이다. 이들은 감정의 솔직한 표현과 형식적인 기교를 함께 중시하는 견해를 보였다.

9) 서경호, 《중국 문학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3, p. 584.

10) 李劍雄, 《焦竑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007, p. 254 참고.

11) 초횡은 글쓴이의 진실한 성정을 가리키는 말로 ‘靈’을 사용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이러한 태도는 당시 주변 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지(李贄)와 삼원(三袁)<sup>12)</sup>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크다. 이지와 초횡은 서로를 평생지기로 여겼으며, 서신을 통한 학문적 교류가 매우 잦았다. 그리고 삼원의 경우는, 첫째인 원종도가 초횡과 먼저 교류하기 시작하였고, 원굉도와 원중도 또한 초횡으로부터 학문적인 영향을 받으며 꾸준히 교류를 이어나갔다. 원굉도는 성령설을 내세우기 전에 몇 번이나 초횡을 찾아가 배움을 청했고, 또 초횡이 원굉도에게 이지를 소개하여 그가 학문적으로 더욱 발전할 기회를 마련해주기도 했다.

초횡은 청대의 고증학자들로부터 비난받았던 양명학(陽明學) 좌파인 태주학과(泰州學派)<sup>13)</sup>에 속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양명 후학들과 달리 공연히 심학(心學)만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학문의 실천과 실용성을 매우 중요시했다. 물론 초횡 또한 다른 태주학과 학인들처럼 도교와 불교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삼교합일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그는 단지 당시 사조를 무비판적으로 좇아 ‘구두선’ 차원에서 삼교합일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도교와 불교에 관한 서적을 직접 해석하고 저술하는 등 삼교사상을 깊이 이해하는 데 힘쓰며 실질적으로 삼교합일을 실천해갔다. 또 그는 문자학과 고증학 방면의 저서인 《속서간오(俗書刊誤)》 12권과 고금의 역사적 사건[史事]에 대해 고증한 문장이 수록된 《초씨필승(焦氏筆乘)》, 《속승(續乘)》을 저술했다는 점에서 다른 양명학자들과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초횡의 학문적 위치를 명

12) 명대의 공안(公安) 사람인 원종도(袁宗道), 원굉도(袁宏道), 원중도(袁中道) 형제는 출신지의 이름을 따서 공안파(公安派)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공안파의 핵심 인물로서 흔히 ‘삼원(三袁)’이라 일컬어진다.

13) 양명학파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학문적 경향을 중심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황종희(黃宗羲)는 《명유학안(明儒學案)》에서 양명학파를 지역적 분포에 따라 남중왕문(南中王門)학과, 초중왕문(楚中王門)학과, 북중왕문(北中王門)학과, 월민왕문(粵閩王門)학과, 절중(浙中)학과, 강우(江右)학과, 태주(泰州)학과로 분류하였다. 학문적 경향에 따르면, 양명학 좌파와 우파로 구분된다. 초횡이 속한 태주학파는 양명학 좌파로, 대표 인물로는 왕간(王艮), 나여방(羅汝芳), 안균(顏鈞), 하심은(何心隱), 이지(李贄) 등이 있다. 양명학 좌파에 속한 후학들은 ‘치양지(致良知)’를 강조하며 지나치게 마음의 수양만을 중시한 나머지 실질적인 공부에는 힘쓰지 않았고, 결국 청초의 학자들로부터 ‘공소한 학풍’이라 비난받았다.

말의 심학과 청초 고증학의 가교로 설정한 기존의 견해는 이를 잘 말해준다.<sup>14)</sup>

그럼에도 청대에 들어서면서 초횡이 태주학과에 속했다는 이유로, 또 이단 중에 최고의 이단이라 칭해지는 이지와 친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평가가 절하되었다. 게다가 초횡은 이지나 원굉도처럼 앞장서서 자신의 견해나 사상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 학자들의 이목은 이지나 공안파 등의 문인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다. 초횡 자체만으로 연구대상이 될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지나 원굉도에 관한 연구만큼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이다.

초횡의 사상과 문학관 및 다방면의 학문적 성취를 고려해봤을 때, 결코 그가 명대의 다른 문인들보다 사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없다. 기존의 학자들 또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며 초횡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 특히 초횡의 문학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중국에서는 주로 학술지나 저서를 통해 그의 문학관 및 문학사상에 관해 간략하게 분석하는 데 그쳐있다. 주로 문장의 요지가 되는 부분을 언급한 후 그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이어서 그가 지닌 ‘文’에 대한 관점에 대해 상세히 고찰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본고의 연구 주제인 초횡의 시관과 관련해서는 이를 전적으로 다룬 학위논문은 없으며, 초횡의 사상과 관련된 한 논문에서 초횡의 ‘불교시학관’에 관해 논의된 적이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아직까지 초횡의 시관이나 문학관과 관련된 학위논문이 없는 상황이다.

또 초횡의 문집에는 시에 관한 논의가 적지 않은데, 현재까지 시에 대한 초횡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다. 초횡의 시관은 당송파나 공안파의 주장과 유사한 듯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초횡이 추구하는 시는 명대의 어느 유파에도 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각 유파의 폐단을 보완할 수 있는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초횡의 시관을 분석하는 작업은 분

14) “重要的是，焦竑在考据內容，考据方法等方面爲后世考据學者做出了表率。他不僅爲明代心性之學走向求實之學做出了貢獻，也對其后的清代學術尤其是考据學的發展奠定了堅實的基础。” — 韓偉, 《大家精要·焦竑》，西安：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17, p. 145.



명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필자는 초횡의 시에 관한 논의를 그의 학문적 배경과 함께 다면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그의 시론을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또 이를 토대로 그가 중국 학술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그 시론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재평가를 시도해보기로 한다.

## 제 2 절 기존연구 검토

조초(趙超)는 <1950년 이후의 초횡 연구에 대한 총론 [20世紀50年代以來焦竑研究綜述]><sup>15)</sup>에서 초횡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상세히 정리하였고, 기존 연구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평론하였다. 현재까지 초횡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정리한 논문은 이 논문이 유일하다. 그는 먼저 초횡에 관한 연구의 발전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고, 다음으로 초횡이 창작한 저서와 관련된 논문들과 초횡의 사상에 관한 논문,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시간순으로 정리된 연구사를 참고하여 초횡 관련 연구의 발전과정에 대해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개괄하였다.

초횡에 관한 연구는 1938년에 중국에서 용조조(容肇祖)가 <초횡과 그의 사상[焦竑及其思想]><sup>16)</sup>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47년에는 곽소우(郭紹虞)가 <중국문학비평사·하[中國文學批評史·下冊]><sup>17)</sup>을 출간하여 초횡을 ‘공안파의 선구자’ 중의 한 사람으로 소개하며 초횡의 사상과 문학 이론, 그리고 공안파의 문학 주장 사이에서의 연관성에 대해 비교적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학자들은 공안파 사상에 초점을 맞추어 초횡을 원평도와의 관계 속에서 언급하거나 이지의 사상을 연구하는데 초횡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초횡의 사상과 문학 이론이 공안파의 문학 주장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으나 학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삼

---

15) 趙超, <20世紀50年代以來焦竑研究綜述>, 《金田》, 2014.

16) 容肇祖, <焦竑及其思想>, 《燕京學報》, 1938.

17) 郭紹虞, 《中國文學批評史》, 上海: 商務印書館, 2010.

원'이나 '이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초횡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하다가 1980년대에 홍콩과 대만에 있는 학자들로부터 비로소 주목을 받으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초횡의 사상을 검토하였다. 주요 논문으로 이작연(李焯然)의 《초횡과 <옥당총어>》[焦竑及其<玉堂叢語>]<sup>18)</sup>와 전조신(錢祖新)의 《초횡과 만명 신유학의 재건》[焦竑與晚明新儒學的重建]<sup>19)</sup>, 여영시(余英時)의 《송명 유학의 발전 각도에서 청대 사상사를 논하다 — 송명유학에서의 지식주의 전통》[從宋明儒學的發展論清代思想史 — 宋明儒學中智識主義的傳統]<sup>20)</sup>, 《다시 들여다본 초횡의 사상세계》[重訪焦竑的思想世界]<sup>20)</sup> 등이 있는데, 특히 여영시의 연구성과는 심학과 고증학을 함께 다룬 초횡의 학술과 사상을 소개함으로써 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심학은 이학(理學)의 하나로 명학(明學)이라고도 불리고 의리(義理)의 규명을 학문의 궁극적 목적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리지학(義理之學)이라고도 불린다. 이의 대척점에 서 있던 것이 고증학인데, 이것은 박학(樸學)의 하나로 청학(淸學)이라고도 불리고, 자구의 해석과 구두, 관련 문물제도의 규명을 학문의 궁극적 목적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고거지학(考據之學)이라고도 불린다. 명말 이후, 특히 청대 중엽 이후에는 이 둘 사이의 반목과 상호 편취가 매우 심했다. 따라서 이 둘을 겸비한 경우는 흔치 않았는데, 초횡은 심학을 계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이 공연히 심성(心性)을 논하는 풍조를 마땅치 못하게 여겨 공소한 학풍에 대해 반대하고 고증을 좋아하였다. 그가 고금의 역사적 사건[史事]에 대해 고증한 문장은 모두 《초씨필승》과 《속승》에 수록되어 있는데, 청대 사람처럼 엄밀하진 않지만 때때로 새로운 견해가 있어 읽어볼 만하다는 평을 받았다. 또 초횡은 《상서(尙書)》를 위고문(僞古文)의 맥락에서 고찰 변증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은 이후 《상서》를 연구하는 청대 사람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이밖에도 초횡은 고음(古音) 고증

18) 李焯然, <焦竑及其玉堂叢語>, 《文獻》, 1982.

19) 余英時, <從宋明儒學的發展論清代思想史 — 宋明儒學中智識主義的傳統>, 《歷史與思想》,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87.

20) 余英時, <重訪焦竑的思想世界>, 《余英時英文論著漢譯集 — 人文與理性的中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에 관해 밝힌 바가 많았다. 그가 고시에 협음설(葉音說)이 없다고 제기한 부분에 진제(陳第)가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모시고음고(毛詩古音考)》를 편찬하였다. 또 진제의 저작은 후대 사람 고염무(顧炎武)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러한 부분은 고염무의 저술인 《음학오서(音學五書)》의 서문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명말청초 학풍의 변화에 있어서 초횡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학자들은 여영시의 연구를 바탕으로 초횡의 넓은 학식과 학문적 성취를 인정하고, 연구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에 임경창(林慶彰)이 《명대고증학연구[明代考據學研究]》<sup>21)</sup>을 저술하면서 한 장(章)에 걸쳐 초횡의 고증학 성과와 특징 및 결점을 자세히 소개한 것으로 봤을 때, 초횡에 대한 연구 가치가 이때부터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1990년대에는 초횡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저서가 출판되어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문기(李文琪)의 《초횡과 국사경적지[焦竑及其國史經籍志]》<sup>22)</sup>는 초횡의 목록학(目錄學) 성과를 연구한 대표적인 저작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검웅(李劍雄)의 《초횡평전(焦竑評傳)》<sup>23)</sup>은 초횡의 생애와 학문적 태도 및 성과에 대해 논한 비교적 완전한 평전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연구범위는 더욱 확장되었다. 초횡이 소설과 희곡창작, 비평 등의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소개<sup>24)</sup>하거나, 초횡의 불교시학관(佛教詩學觀)<sup>25)</sup>에 대해 분석한 연구 등이 있으며, 또 초횡의 저서인 《속서간오》, 《초씨필승》, 《역전(易筌)》 등을 통해 초횡의 학문을 다루는 태도, 고증학적 성취, 학술사적 의의 등에 대해 논하였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연구된 논문들을 종합해보면, 초횡에 관한 연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사학(史學) 관련 연구이다. 사학 방면의 대표작인 《국조헌징록(國朝獻徵錄)》과 《국사경적지(國史經籍志)》의 역사적 가치에

21) 林慶彰, 《明代考據學研究》, 臺北: 臺灣學生書社, 1983.

22) 李文琪, 《焦竑及其國史經籍志》, 臺北: 臺灣漢美圖書有限公司, 1991.

23) 李劍雄, 《焦竑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1998.

24) 韓春平, <焦竑與明代中后期金陵地區的通俗文學>, 《華僑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7.

25) 白靜, <焦竑以禪意爲最高境界的佛教詩學觀>, 《蘭州交通大學學報》, 2011.

대한 논술이 많으며, 《사고전서(四庫全書)》와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에서의 초횡과 초횡의 저술에 대한 평가<sup>26)</sup>에 대해 반박하여 그 가치를 입증하였다. 둘째는 철학 관련 연구이다. 학자들이 초횡의 삼교(三教) 융합사상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초횡의 ‘심학(心學)’에 대한 추구, 문학사상 및 시학관(詩學觀) 등 다방면으로 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는 고증학 관련 연구이다. 학자들은 줄곧 사학 방면의 대표저작인 《국조헌정록》과 《국사경적지》에만 관심을 기울이던 방식에서 벗어나 《초씨필승》을 통해 명말 학풍의 변화 속에서 초횡이 이룬 고증학적 성취에 대해 논하였다. 넷째는 문자학 관련 연구이다. 이 분야의 대표작인 《속서간오》는 《사고전서·경부·소학류(四庫全書·經部·小學類)》에 수록되어 있다. 이 저서에 관한 학술논문은 몇 편밖에 없지만, 이들 논문에서는 문자학과 음운학의 각도에서 《속서간오》에 수록된 속자(俗字)를 귀납하고 총결하여 그 성과와 오류에 대해 논평하였다.

그리고 문학에 관한 연구는 해외나 국내에서 모두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초횡의 문학관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고, 사상 관련 학위논문 두 편이 있다. 하나는 1985년에 나온 신향숙의 <이지와 초횡의 學問的 交涉에 대하여: 「분서」書答篇을 중심으로><sup>27)</sup>이다. 그런데 이 논문은 초횡보다 이지에게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1999년에 나온 이정진의 <明末 초횡의 思想에 관한 研究: 그의 實用的 思想을 中心으로><sup>28)</sup>에서는 초횡의 사상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 국내에서는 초횡의 문학에 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초횡의 문학과 관련된 학위논문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지나 공안과 혹은 명청사상사를 연구함에 간혹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에서의 초횡 연구 또한

26) 청대의 학자들은 초횡의 《초씨필승》을 비난한 적이 있다. “盖站生平喜與李蟄游, 故耳濡目染, 流弊至于此。” — 紀昀, 《四庫全書總目》,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참고.

27) 신향숙, <이지와 초횡의 學問的 交涉에 대하여: 「분서」書答篇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5.

28) 이정진, <明末 초횡의 思想에 관한 研究: 그의 實用的 思想을 中心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9.

비슷한 상황이다. 일본에서 초횡을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은 이경(李慶)의 <초횡의 《노자익》을 논하다: 명대의 《노자》 연구 (3) [論焦竑의《老子翼》: 明代的《老子》研究之三]><sup>29)</sup> 한 편이 있다.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는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비교적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나, 초횡의 문학관이나 문학사상에 관한 연구는 다른 방면의 연구보다 적었고, 논의 또한 비교적 간단했다. 이처럼 학자들의 관심이 철학과 사학 방면의 연구에 집중된 이유는 초횡의 사학 관련 저술<sup>30)</sup>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가 심학과 고증을 함께 다루었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 같은 시대에 다양한 유파가 형성되어 각자의 문학이론을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어느 유파에도 속하지 않았던 초횡보다는 유파를 주도하던 문인들에게 이목이 쏠린 것이다. 문학사에서는 줄곧 이 지나 공안파 문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등 초횡의 연구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지만, 초횡의 사상과 시관이 주변 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분명 연구될 필요가 있다. 또 초횡에 관한 연구는 다른 학자들이 명대의 문학 혹은 문인을 연구함에 연구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초횡의 시관을 고찰하기에 앞서 초횡의 문학과 관련된 논문을 검토하였다. 초횡의 문학을 중심으로 다룬 논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초횡의 문학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논문도 포함하여 약 20편을 검토하였다.

초횡의 문학관을 다룬 선행연구를 내용 면에서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의 문학관 및 창작을 이해함에 요청되는 배경을 다룬 연구, 둘째 그의 문학관을 다룬 연구, 셋째 그의 시문, 소설 등 창작을 다룬 연구, 넷째 그의 문학사적 의의를 다룬 연구 등이 그것이다.

첫째, 초횡의 문학관 및 창작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는 사승관계, 교유

---

29) 李慶, <論焦竑의《老子翼》: 明代的《老子》研究之三>, 言語文化論叢, 金澤大學外國語教育研究センター, 2000.

30) 초횡의 역사학적 성취를 엿볼 수 있는 저서로 《국조헌징록(國朝獻徵錄)》과 《국사경적지(國史經籍志)》가 있다.

관계, 사상적·학문적 배경 등이 주로 다루졌다. 가령 용효영(龍曉英)의 《초횡연구(焦竑研究)》<sup>31)</sup>는 초횡의 생애, 사승(師承) 관계, 교유, 문학사상 및 창작을 다루었다. 이 논문에서는 초횡의 생졸년과 자식들의 족보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을 따져보며 확실하게 정리하였고, 초횡의 스승이나 주변 문인들과의 관계와 초횡의 문학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초횡의 문학사상에 대해 그가 ‘문이재도’를 주장하면서 ‘성령’도 함께 주장했다고 지적하면서 그의 문학사상이 비교적 복잡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필자 또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으로서 반드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백정(白靜)은 《초횡사상연구(焦竑思想研究)》<sup>32)</sup>에서 초횡의 유가사상, 불학사상, 심학사상, 문학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유교, 불교, 도교 합일의 사상을 밝히고, 그 배경을 바탕으로 초횡의 문학사상을 논하였다. 특히 그는 초횡이 주장한 ‘성령’과 시관을 불교사상에 근거하여 논의하였다. 그는 초횡이 시에 있어서 ‘선의(禪意)’를 최고의 경지로 여겼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부분만으로 초횡의 전체적인 시관을 논하기에 부족하나 초횡의 불교사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용소영(龍曉英)의 《초횡과 공안 삼원의 관계에 대한 고찰[焦竑與公安三袁關係考論]》<sup>33)</sup>은 초횡과 삼원이 만났던 시기와 논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초횡과 공안과의 교류가 그들의 문학이론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밝혔다. 왕성(王誠)의 《〈초씨필승〉으로부터 본 초횡의 불학사상[從〈焦氏筆乘〉看焦竑的佛學思想]》<sup>34)</sup>은 초횡의 불학사상을 주로 다루었다. 그는 초횡이 《초씨필승》의 <지담(支談)>을 상, 중, 하편으로 나누어 불학과 유불합일 대한 견해를 반영했다고 주장하였고, 초횡의 철학사상과 결합하여 <지담>에 실린 68개의 필기를 해석하였다. 초백운(焦白雲)의 《학자 초횡의 은거 생활에 대한 분석[解讀學者焦竑的歸隱林泉生涯]》<sup>35)</sup>, 당백성(唐百成)의 《평생 학문을 위해 공부했던 장원 초횡[一生爲學惟學的壯元焦竑]》<sup>36)</sup>, 유개군(劉開軍)

31) 龍曉英, <焦竑研究>, 南京師範大學, 2005.

32) 白靜, <焦竑思想研究>, 北京大學, 2011.

33) 龍曉英, <焦竑與公安三袁關係考論>, 《西南科技大學學報》, 2006.

34) 王誠, <從〈焦氏筆乘〉看焦竑的佛學思想>, 宗教學研究, 2014.

35) 焦白雲, <解讀學者焦竑的歸隱林泉生涯>, 藝術百家, 2009.



의 《초횡의 학술 교류에 관한 두 가지 논의[焦竑學術交誼二題]》<sup>37)</sup>, 유근근(劉根勤)의 《‘심학’과 ‘실학’사이 — 초횡과 서광계의 학술 교류에 대한 고찰 [‘心學’與‘實學’之間 — 對焦竑與徐光啓學術交往的考察]》<sup>38)</sup>, 진한명(陳寒鳴)의 《태주왕학의 후경 초횡의 유가사상[泰州王學後勁焦竑的儒家思想]》<sup>39)</sup> 등은 모두 초횡의 생애나 학문교류, 학술사상을 다룬 것들로서 초횡의 학문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초횡의 문학관과 문학사상을 다룬 논문이다. 종용(鍾勇)의 《초횡의 문학이론과 고문 창작 — <담원집>을 중심으로[焦竑的文學理論與古文創作 — 以<澹園集>爲中心]》<sup>40)</sup>는 크게 초횡의 생애 및 문학이론에 대한 영향, 실용을 숭상하는 문학관, 고문 창작,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그의 문학관을 다루었다. 다만 초횡이 시문보다 경학을 우선시하고, 문장의 실용성을 중시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초횡의 문학이론을 다면적으로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양민(楊敏)의 《초횡의 문학사상에 대한 약론[焦竑文學思想簡論]》<sup>41)</sup>은 초횡의 문학가치론, 문도관계론, 성령설 등 크게 세 가지 방면에서 그의 문학사상을 다루었다. 초횡이 실질을 탐구하고, 경세치용을 중시하는 문학가치론을 지니고 있었음을 밝혔고, 그의 문학관이 ‘문이재도’의 전통과 ‘유불사상’, ‘성명지학’ 등의 깊은 도와 관련되었음을 논하였다. 또 양민은 초횡의 ‘성령설’을 논하면서 이는 ‘돈오(頓悟)’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데,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횡은 ‘돈오’만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돈오’와 ‘점오(漸悟)’에 대해 모두 논의한 바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위(韓偉)의 《초횡의 문론사상에 대한 분석[焦竑文論思想探析]》<sup>42)</sup>은 초횡이 복고파와 공안파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초횡의 문학관에 대한 의의를 강조하였다. 그는 초횡의 문(文)과 질(質)

36) 唐百成, <一生爲學惟學的壯元焦竑>, 江南論壇, 2016.

37) 劉開軍, <焦竑學術交誼二題>, 紅河學院學報, 2013.

38) 劉根勤, <‘心學’與‘實學’之間 — 對焦竑與徐光啓學術交往的考察>, 2013.

39) 陳寒鳴, <泰州王學後勁焦竑的儒家思想>, 國學學刊, 2017.

40) 鍾勇, <焦竑的文學理論與古文創作 — 以《澹園集》爲中心>, 鄭州大學, 2016.

41) 楊敏, <焦竑文學思想簡論>, 《文藝評論》, 2014.

42) 韓偉, <焦竑文論思想探析>, 《貴州師範大學學報》, 2011.

의 일치와 옛것을 숭상하면서도 성령을 중시하는 태도, 경세를 중시하면서도 정감의 발현을 추구하는 태도, 문학과 생활의 결합 등에 초점을 맞추어 초횡의 문학사상에 대해 다루었다. 오정남(吳正嵐)의 《초횡의 문학사상과 소식 역학의 연원[論焦竑文學思想與蘇軾易學的淵源]》<sup>43)</sup>은 초횡이 구양수와 소식 등 문인들의 경학을 계승하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사상자원을 흡수했다고 보는 관점에서 초횡의 문학사상과 소식 역학의 내재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초횡이 소식의 역학을 흡수하고, 모방에 반대하며 ‘신(神)’과 ‘정(情)’을 제창한 부분과 “사물이 뒤섞인 것을 글이라 한다[物相雜曰文]”라고 주장한 부분은 소식이 말한 “글은 뒤섞은 것으로부터 나온다[文生於相錯]”와 일맥상통한다고 하였다.

셋째, 초횡의 시문, 소설 창작을 다룬 논문이다. 호취연(胡翠鸞)의 《초횡의 <초씨유림> 연구[焦竑<焦氏類林>研究]》<sup>44)</sup>는 초횡의 세설체 소설인 <초씨유림>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세설체 소설에 대한 약술과 <초씨유림>의 완성 배경 및 판본 상황, <초씨유림>의 편집체례와 요소들의 출처, 초횡이 소재를 택하는 경향, 소설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초씨유림>에 대해 전면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조초는 이에 대해 “이런 면면구도(面面俱到)한 저작 모식은 <초씨유림>의 필기체소설의 특징을 등한시하게 되어 그 문학성을 잘 나타내지는 못했다.”<sup>45)</sup>라고 평가하였다. 조초의 《초횡의 ‘세설체’ 소설 연구[焦竑의‘世說體’小說研究]》<sup>46)</sup>는 초횡이 세설체 소설을 통해 그의 높은 예술적 수준을 체현해냈다고 주장하며, 초횡의 세설체 작품에 대한 소개와 편집 체례, 소재 선발의 출처, 인물을 품평하는 기준, 서사에서의 기법 등으로 나누어 초횡 소설의 예술적 성취를 논하였다. 번남연(樊藍燕)의 《초횡의 <옥당총어>에 대한 문학 연구[焦竑<玉堂叢語>的文學研究]》<sup>47)</sup>는 주로 《옥당총어》의 형성 배경, 주요 내용, 예술적 표현, 역사적 가치 등

43) 吳正嵐, <論焦竑文學思想與蘇軾易學的淵源>, 周易研究, 2013.

44) 胡翠鸞, <焦竑《焦氏類林》研究>, 浙江師範大學, 2011.

45) “這樣面面俱到的寫作模式却忽略了《焦氏類林》筆記體小說的特性，不能很好地表現其文學性。”— 趙超, <20世紀50年代以來焦竑研究綜述>, 金田, 2014.

46) 趙超, <焦竑的‘世說體’小說研究>, 浙江師範大學, 2015.

47) 樊藍燕, <焦竑《玉堂叢語》的文學研究>, 安徽大學, 2014.



을 다루었고, 이작연(李焯然)의 《초횡과 <옥당총어> [焦竑及其<玉堂叢語>]》<sup>48)</sup>는 《옥당총어》의 판본 유전과 책이 만들어진 경위, 《세설신어(世說新語)》와 《초씨유림》의 차이와 소재선택 및 결함에 대해 논하며 《옥당총어》의 역사학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사진경(史振卿)의 《<초씨필승> 연구(<焦氏筆乘> 研究)》<sup>49)</sup>는 《초씨필승》의 문헌학적 가치에 치중하여 그 문학성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었고, 마지막에 초횡이 시가의 교화작용을 중시했다는 점을 밝혔다.

넷째, 초횡 연구의 문학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다룬 논문으로는 한춘평(韓春平)의 《초횡과 명대 중후기 금릉지역의 통속문학(焦竑與明代中后期金陵地區的通俗文學)》<sup>49)</sup>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명대 중후기 금릉지역의 학술문화에 있어서 초횡이 권위가 있음을 주장하며 그의 소설, 희곡의 창작, 평론 및 판각 등의 활동을 통해 통속문학 발전에 공헌한 사실에 대해 논하였다.

필자는 초횡의 문학과 관련된 기존연구를 검토하면서 미진한 부분들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초횡의 ‘세설체’ 소설인 《초씨유림》이나 《옥당총어》를 연구하는 데 역사학적 가치를 더욱 강조하여 문학성을 잘 나타내지 못한 한계가 발생했다는 점과 초횡의 문학관을 삼교사상에 치중하여 분석함으로써 그의 ‘文’에 대한 관념이나 문학 주장을 더욱 세밀하게 고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초횡 주장한 ‘성령’과 그의 시관을 불교사상에 근거하여 논의하거나, 초횡이 시에 있어서 ‘선의(禪意)’를 최고의 경지로 여겼다고 주장하였다고 한 부분은 초횡의 전체적인 시관을 논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러한 부분은 더욱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기존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참작하면서 본고에서는 초횡의 시관을 분석하고자 한다.

48) 李焯然, <焦竑及其《玉堂叢語》>, 《文獻》, 1982.

49) 韓春平, <焦竑與明代中后期金陵地區的通俗文學>, 《華僑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7.

### 제 3 절 연구범위와 내용

초횡의 시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시관을 재구성해야 한다. 초횡이 자신의 시관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글이 없기 때문에 그가 쓴 다른 글에서 시에 대한 그의 관념, 관점 등을 추출해낸 후 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에 유용한 그의 글로는 첫째 그가 지은 시, 둘째 다른 문인들이 창작한 시를 초횡이 비평한 글, 그리고 셋째 초횡이 다른 문인들의 시집에 써준 서발(序跋)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본고에서는 세 번째 유형의 글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체계를 갖춘 논설문’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초횡의 시에 대한 사유가 응축되어있는 언명이나, 시사(詩史)에 대한 간명한 개괄, 당시 시풍에 대한 개괄과 평가 등이 유의미한 수준 이상으로 담겨있어 초횡의 시관을 재구성하는 데 유용하고 실증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초횡은 대부분 서문을 통해 현실의 학술폐단을 지적하며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고, 서문에서 역사, 경서, 문집, 유가, 불도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에 한위는 초횡의 문학사상과 학술사상이 주로 다른 사람의 저작에 실린 서문에서 드러난다고 하였고,<sup>50)</sup> 다른 연구자들 또한 초횡의 사학사상, 경학사상, 삼교사상 등을 논함에 서문을 많이 활용하였다. 또 초횡이 문인들과 주고받은 서신을 통해서도 그의 학문적 견해를 밝혔기 때문에 초횡의 시관, 문학관 및 학술 경향은 서문과 서신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타인의 시집이나 문집에 써준 서발문과 학문적 견해가 담긴 서신을 초횡의 《담원집》에 수록된 것에서 뽑았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초횡이 지은 시나 다른 문인들의 시에 대한 비평을 통해 초횡 시관의 재구성도 가능하다. 다만 본고에서는 서발문만으로도 충분히 초횡의 시론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횡 시관 분석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50) “如果說焦竑的政治思想和經濟思想主要集中於其公文的話， 那麼其文學思想和學術思想則主要體現在他爲別人著作寫的衆多序言之中， 其學術筆記《焦氏筆乘》也具體運用了這些思想。” — 韓偉, 《大家精要·焦竑》， 西安: 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17, p. 123.

본 논문에서 초횡의 시관을 분석하기에 앞서 제2장에서는 그의 시관의 토대가 되는 생애와 사상, 기이관, 고금관을 살펴본다. 명대에 성행했던 기이함을 숭상하는 풍조나 복고주의, 성령설 등에 대한 초횡의 견해는 단순한 긍정 혹은 부정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그의 고금관과 연동되는 ‘성령’에 관한 인식은 공안파가 주장하는 ‘성령’보다 더욱 복잡하다. 초횡의 기이관과 고금관에 대한 분석은 그가 숭상하는 글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줄곧 모호했던 초횡이 주장하는 ‘성령’과 공안파가 주장하는 ‘성령’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서발문을 바탕으로 초횡의 시관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초횡은 유가의 전통적인 시론을 계승하며 시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초횡이 좋은 시의 조건으로 ‘성’과 ‘령’의 융합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그가 유가의 전통적인 시관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켰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시 창작에 대한 그의 윤리학적 요구를 통해 당시 공언히 심학을 논했던 양명학자들과 달리 학문과 인격 수양에 매우 충실했던 초횡의 태도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의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분석했던 초횡의 학문적 태도와 성취, 기이관과 고금관, 유가의 전통적인 시론의 계승, ‘성’과 ‘령’의 융합 등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횡이 중국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그의 시관이 지닌 의의에 대해 밝힌다.

## 제 2 장 초횡 시관의 저변

중국 역대 시가비평에서는 줄곧 작가와 그 시대의 연관성을 강조하였다. 맹자는 《맹자·만장·하(孟子·萬章·下)》에서 “시를 음송하고, 글을 읽음에 그 사람됨을 모른다면 말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그 시대를 논하는 것이다”<sup>51)</sup>라 하였다. 근대의 왕국유(王國維) 또한 이 구절을 인용하여 “이런 까닭에 그 시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법이니, 고시(古詩)에 그 뜻을 잘 알 수 없는 것이 있을지라도 얼마 되지는 않을 것이다”<sup>52)</sup>라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문학은 오래전부터 작가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과 함께 논의되었다. 즉 작품에 담긴 작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를 관찰하며 작가의 세계관을 분석하는 작업은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초횡의 시론을 논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명대에 성행했던 기이함을 좇는 풍조나 복고주의 또는 성령설과 관련된 초횡의 관점은 초횡의 시론을 논함에 토대가 되는 부분이다. 초횡의 기이함과 고금에 대한 인식에는 단순한 긍정 혹은 부정이 아닌 복합적인 사고를 통한 견해가 담겨있다. 예를 들어 그는 기이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기이함에 반대하고, 옛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귀고천금(貴古賤今)’ 하지는 않았다. 또 초횡이 주장하는 ‘성령’은 공안파가 주장하는 ‘성령’보다 더욱 복잡한데, 이는 초횡의 고금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함께 논의함으로써 그의 ‘성령’ 논의가 공안파의 성령설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가 규명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토대로 이 장에서는 초횡의 시론을 고찰하기 위한 배경 지식으로서 초횡의 생애와 사상, 기이관, 고금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

51) “頌其詩，讀其書，不知其人，可乎？是以論其世也。” — 李學勤 主編，《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整理，《十三經注疏·孟子注疏》，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9，p. 291.

52) “是故由其世以知其人，由其人以逆其志，則古詩雖不能解者寡矣。” — 王國維 著，《觀堂集林·玉溪生詩年譜會箋序》，臺北：藝文印書館，1956，p. 247.

## 제 1 절 초횡의 생애와 사상

초횡의 생애는 그의 집안 배경과 학문의 발전과정, 관직 생활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초횡의 학문적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겸하여 살펴볼 수 있다.

초횡은 1540년에 강녕(江寧, 지금의 남경)에서 태어났다. 본래 초횡의 조적(祖籍)은 산둥성(山東省) 일조현(日照縣)이었다. 초횡의 조상인 초삭(焦朔)이 명대 초기에 전공(戰功)을 세워 ‘남경기수위세습천호(旗手衛世襲千戶)’라는 관직을 얻었고, 명(明) 태조(太祖)가 그에게 ‘용(庸)’이라는 이름을 내려주면서 본적이 남경으로 옮겨졌다. 초횡의 아버지 초문걸(焦文杰)은 군직(軍職)을 이어받아 40년 동안 군정(軍政)을 맡아 다스렸다. 그는 총 4명의 자식을 낳았고 자식들을 매우 엄격하게 살폈는데, 초횡에 대한 기대가 특히 컸다. 형제들 가운데 첫째는 초서(焦瑞)로 자는 백현(伯賢)이고, 호는 경천(鏡川)이다. 광둥성(廣東省) 영산(靈山)의 현령(縣令)을 지냈고, 정직하고 청렴하여 명망이 있었다. 둘째는 초정(焦靖)이고, 군직을 이어받아 도사(都司)를 지냈다. 셋째가 초횡(焦竑)이다. 그의 자는 약후(弱侯)이고, 호는 담원(澹園)이다. 《본조분성인물고(本朝分省人物考)》에 따르면, “초횡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재주를 가졌고, 도를 깨우침이 매우 빠르고 공부를 좋아하였으며, 노년에 이르렀음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sup>53)</sup>라 하였다. 넷째는 초석(焦哲)이다.

초횡의 학문 발전에 있어서 그의 스승과의 교류와 주변 문인들과의 교류가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초횡의 학문적 발전과정은 다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초횡의 학문 발전에 깊은 영향을 주었던 스승과의 교류를 살펴본다. 초횡이 정식으로 문하에 들어가 스승으로 삼은 이는 경정향(耿定向)<sup>54)</sup>, 왕벽

53) “竑生有異質，聞道甚早而好學，雖至老而不倦。” — 過庭訓, 《本朝分省人物考》, 卷十三, 明天啓刻本, 中國基本古籍庫,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2001.

54) 耿定向(경정향): 명대 호광(湖廣) 황안(黃安) 사람이다. 자는 재륜(在倫), 자형(子衡)이고, 호는 초동(楚洞)이며, 시호는 공간(恭簡)이다. 가정(嘉靖) 35년(1556)에 진사하여 행인(行人), 어사(御史), 학정(學政), 대리사우승(大理寺右丞), 우부도어사(右副都御

(王襞)<sup>55)</sup>이다. 그리고 초횡이 가르침을 받았다고 언급한 이는 사계방(史桂芳)<sup>56)</sup>, 왕선(王銑)이다. 초횡의 학문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이들과의 영향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검웅(李劍雄)의 《초횡평전(焦竑評傳)》에서는 초횡이 나여방(羅汝芳)<sup>57)</sup>을 정식으로 스승으로 삼았다고 기술<sup>58)</sup>하였지만, 백정(白靜)은 <초횡사상연구焦竑思想研究>에서 이와 관련된 기록이 없음을 지적<sup>59)</sup>하며 스승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나여방에게 질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어느 견해가 사실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필자의 역량을 넘어선 일이고, 본고의 연구범위를 벗어나 있으므로 논외로 한다. 하지만 나여방은 초횡보다 윗세대이고, 모두 왕양명의 후학으로서 심학을 배우고 서로의 학문에 대해 칭송한 정황도 있기 때문에 나여방 또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초횡이 이들을 만난 연도순에 따르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왕선이다. 왕

---

史), 호부상서(戶部尙書)등의 관직을 역임했고, 말년에는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동생 경정리(耿定理)와 경정력(耿定力)과 함께 천태산(天台山)에 서원(書院)을 설립하고 강학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모두 양명좌파인 태주학과에 속하며 함께 “천태삼경(天台三耿)”이라 일컬어졌다. 주요저서로 《빙옥당어록(冰玉堂語彙)》, 《석보보감요(碩輔寶鑑要覽)》, 《경자용언(耿子庸言)》과 《선진유풍(先進遺風)》, 《경천태문집(耿天台文集)》 등이 있다.

55) 王襞(왕벽): 명대 양주부(揚州府) 태주(泰州, 지금의 강소성) 사람이다. 자는 종순(宗順)이고, 호는 동애(東崖)다. 왕간(王良)의 둘째 아들로, 9살 때 아버지를 따라 왕수인(王守仁)을 찾아 10여 년 동안 공부했다. 아버지가 죽고 그가 뒤를 이어 각지를 돌아다니며 강학을 하였다. 주요저서로 《왕동애선생유집(王東崖先生遺集)》이 있다.

56) 史桂芳(사계방): 명대 파양(鄱陽) 사람으로 자는 경실(景實), 호는 성당(惺堂)이다. 양명학자로서 경정향과 친했고, 경정향의 ‘삼익우(三益友)’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저서로 《성당문집(惺堂文集)》이 있다.

57) 羅汝芳(나여방): 명대 강서(江西) 남성(南城) 사람이다. 자는 유덕(惟德)이고, 호는 근계(近溪)다. 가정(嘉靖) 32년(1553)에 진사하여 태호지현(太湖知縣), 형부주부(刑部主簿), 영국지부(寧國知府), 운남포정사참정(雲南布政司參政) 등의 관직을 역임했다. 태주학과에 속하며 ‘적자지심(赤子之心)’을 주장했다. 주요저서로 《근계집(近溪集)》, 《효경종지(孝經宗旨)》, 《명통보의(明通寶義)》 등이 있다.

58) 李劍雄, 《焦竑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011. p. 342.

59) “李劍雄先生沒有列出焦竑列入門牆的材料，筆者在搜集過程中也沒有發現相關的証據，不知李先生所本為何，從現在筆者所能搜集到的材料中，并未見焦竑有任何將羅汝芳爲“師”的地方，所以估計只是焦竑從之間學較爲頻仍，并未正式列入門牆。” — 白靜, <焦竑思想研究>, 北京大學, 2011.



선을 만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초횡의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공부를 좋아하였으며 경사지학(經史之學)에 뜻을 두었다. 그는 1555년, 16세에 동자시(童子試)에 응시하였고, 첫째로 합격하여 남경조학(南京兆學)에 들어가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경사(經師) 왕선을 만났다. 초횡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진(先秦)과 한대(漢代)의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고<sup>60)</sup>, 왕선은 초횡을 매우 중시하였다. 곧 왕선은 초횡의 글쓰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스승이었다고 할 수 있다.

1562년, 23세에 경정향을 만났다. 경정향을 만나고 초횡의 학문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당시 양명학 태주학파의 경정향은 남경에 서원(書院)을 설립하여 양명학을 발전시키고 널리 전파하고자 하였고<sup>61)</sup>, 경정향의 ‘삼익우(三益友)’<sup>62)</sup>중 하나인 사계방(史桂芳) 또한 양명학자로서 남경에 와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초횡은 경정향을 만남으로써 이 둘의 영향으로 인해 점차 심학(心學)에 빠져들었다. 기록에 따르면, 초횡이 두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바로 학문에 뜻을 두었다[稍志於學]’<sup>63)</sup>라 하였고, 사계방으로부터 배우면서 ‘뜻이 비로소 세워졌다[志始有立]’<sup>64)</sup>라 하였다. 1566년에 경정향은 남경 청량산(靑涼山)에 숭정서원(崇正書院)을 설립하고 강남(江南)의 명사들을 선발하여 그곳에서 공부하게 하였다. 그때 강학 활동을 시작하며 초횡의 명성이 갈수록 높아졌고, 경정향의 추천으로 초횡이 명사들 가운데 대표가 되었다. 경정

60) “憶十五六，始得左傳，國語，戰國策，史記，莊，騷，讀而好之，摹擬爲文，儕輩嘲笑，不爲衰止。” — 陳懿典，《澹園集·尊師澹園先生集序》，北京：中華書局，2013，p. 1213.

61) “他到南京后，正學風，迪士類，建書院，聘師長，大力弘揚良知心學。” — 張廷玉，《明史·耿定向傳》，北京：中華書局，1974，p. 5817.

62) “平生得三益友，皆良藥也。胡廬山爲正氣散，羅近溪爲越鞠丸，史惺堂爲排毒散。” — 黃宗義，許仁圖，《明儒學案·上·運使史惺堂先生桂芳》，臺北：河洛圖書出版社，1974，p. 72.

63) “番陽史惺堂先生爲南憲部郎，與余過從，輒以古學相規。蓋余方年少氣壯，不可檢柙，得先生嚴事之，志始有立云。”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陳母姚孺人墓志銘》，北京：中華書局，2013，p. 500.

64) “老子，明道之書也……余幼好剛使氣，讀老子如以耳食無異。年二十有三，聞師友之訓，稍志於學。”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老子翼序》，北京：中華書局，2013，p. 136.

향과 초횡은 ‘경세지학’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뜻이 일맥상통하였다. 그런데 보수적인 경정향에 비해 학문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초횡은 훗날 ‘불학’을 수용하고, 이지와 어울리며 학문의 폭을 넓혀갔다. 이에 ‘불학’에 관해 이지와 논쟁하였던 경정향은 초횡에게 항상 유학에만 힘쓰기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초횡 또한 이에 반박하며 “유학과 불학에 우열이 없다고 하였다.”<sup>65)</sup> 그러자 경정향은 초횡의 아들에게 “세상에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세 사람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너의 아버지다.”라 하였다.<sup>66)</sup> 그러면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깊었다. 초횡의 문집에는 경정향과 주고받은 문장 수십편이 실려 있으며, 경정향이 죽은 뒤에도 초횡은 그를 기념하기 위해 벗과 후학들과 함께 경정향의 사당을 지었다.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 초횡이 배움에 있어서 스승을 존중하면서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학문을 수용함에 본인만의 확고한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초횡과 왕벽과의 관계이다. 왕벽은 태주학파의 창시자인 왕간(王艮)의 아들로 어릴 적부터 그를 따라다니며 일찍이 심학을 계승하였다. 왕간이 죽고 나서 강학 활동을 시작하였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1565년, 왕벽이 남경에 와서 강연회를 열었을 때 초횡은 그를 처음 만났다. 왕벽은 남경에서 강연할 때, ‘양지(良知)’의 주지를 널리 알리고자 하였고, 초횡은 그의 강연회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구했다. 1574년에 왕벽이 다시 남경에 와서 강학하였을 때에도 매우 성행하여 사방의 학자들이 모여들었다.<sup>67)</sup> 초횡 역시 강연회에 참석하였고, 그때 정식으로 왕벽을 스승으로 삼았다. 그리고 초횡은 왕벽에 대해 “유익함을 얻음이 깊었다[受益爲深]”<sup>68)</sup>라 하였다. 즉 왕벽은

65) 초횡은 <答耿師>에서 “學者誠有志于道，竊以爲 儒佛之短長可置勿論，而第反諸我之心性，苟得其性謂之梵學可也，卽謂非梵學，非孔孟學而爲一家之學，亦可也。”라 하였고, 또 <又答耿師>에서 “佛雖晚出其旨與堯舜周孔無以異者，其大都儒書具之矣.”라 하였다. — 焦竑 撰, 李劍雄 點校, 《澹園集·老子翼序》, 北京: 中華書局, 2013.

66) “世上有三个人說不听，難相處.” 問曰：“爲誰” 曰：“孫月峰，李九我與汝父也.” — 黃宗義, 許仁圖, 《明儒學案·下·文端焦澹園先生竑》，臺北: 河洛圖書出版社, 1974, pp. 46-47.

67) “與多士講習，連榻累旬，博問精討，靡不愜其欲以去.” — 焦竑 撰, 李劍雄 點校, 《澹園集·王東崖墓志銘》，北京: 中華書局, 2013, p. 494.

68) “先生所與遊，皆當世賢豪長者，余無似，顧受益爲深.” — 焦竑 撰, 李劍雄 點校, 《澹園



경정향과 더불어 초횡의 심학에 대한 깨달음에 큰 영향을 미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초횡과 나여방의 관계이다. 1550년, 초횡이 아주 어릴 적에 나여방이 남경에서 강학한 적이 있었으나 그때에는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다. 그러다 나여방이 1586년에 다시 남경에 와서 강학하였고, 이등(李登)<sup>69)</sup>, 양기원(楊起元)<sup>70)</sup>, 탕현조(湯顯祖)<sup>71)</sup> 등의 명사들이 가서 들었다. 이때 초횡은 그의 강학을 듣고 탄복하였다. 초횡은 나여방의 학문에 대해 “다만 본심을 가리킴으로써 학자들이 갑자기 깨달음이 마치 쇠고랑이 풀리는 것과 같고, 손님은 돌아감을 얻으며, 비로소 성인이 반드시 행할 수 있음을 믿으니, 양명은 나를 속이지 않는다”<sup>72)</sup>라 하였는데, 이를 통해 초횡이 나여방의 강학을 들음으로써 ‘심학’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음을 알 수 있다. 나여방 또한 초횡을 중시하였고, 초횡이 큰 힘을 지니고 있어 나중에 반드시 심학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였다.<sup>73)</sup>

集·王東崖墓志銘》，北京：中華書局，2013，p. 495.

69) 李登(이등): 명나라 상원(上元, 지금의 남경) 사람으로, 자는 사룡(士龍)이고, 호는 여진생(如眞生)이다. 명대의 서예가로 알려져 있으며, 관직은 신야현승(新野縣丞)까지 올랐다. 주요저서로 《육서지남(六書指南)》，《척고유문(摭古遺文)》，《서문음의편고사편(書文音義便考私編)》 등이 있다.

70) 楊起元(양기원): 명대 광둥성(廣東省) 귀선현(歸善縣) 탑자호(塔子湖) 사람으로, 자는 정복(貞復), 호는 복소(夏所)이다. 1577년에 진사하였고, 나여방을 스승으로 삼았다. 저술이 풍부하고, 유불의 합일을 주장하였다. 주요저서로 《증학편(証學篇)》，《증도서의(証道書義)》，《양자학해(楊子學解)》，《논학존사고(論學存筭稿)》，《양자격언(楊子格言)》 등이 있다.

71) 湯顯祖(탕현조): 명대의 저명한 극작가로 강서성(江西省) 임천(臨川) 사람이다. 자는 의잉(義仍), 호는 해약(海若), 약사(若士), 청원도인(淸遠道人)이다. 그는 고문에만 능통할 뿐 아니라 천문지리, 의학서적에도 박학하였다. 남경의 태상박사(太常博士)와 예부주사(禮部主事)를 지냈으나 시정(時政)을 비난하다 좌천되었고, 나중에는 관직을 떠나 고향에서 작품 창작에 몰두하였다. 사우(師友) 관계에서는 태주학과 인물들과 관계가 깊었다.

72) “直指本心，以示之學者霍然如梏得脫，客得歸，始信聖人之必可爲，而陽明非欺我也。”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羅楊二先生祠堂記》，北京：中華書局，2013，p. 245.

73) “后世爲教者，出于勉強襲取之勞，而常患乎難行；爲文者在于支离舛駁之習，而患乎難

다음에서는 초횡과 주변 문인들 간의 학문적 교류를 살펴본다. 초횡의 교류는 매우 광범위하여 본고에서는 여러 문인 중에서 그와 가장 친밀했던 이지와 모방에 반대하는 공통적인 학문적 견해를 지닌 공안파와의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초횡과 이지가 처음 교제를 맺은 연도는 정확하지 않으나 1566년 전후로 추측한다. 이 둘은 모두 심학을 숭상하고, 왕벽을 스승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또 양명 후학의 공소한 학풍을 비난하고 모방에 반대하며, 불학을 공부했다는 점에서 모두 개방적인 사상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두 사람은 교류하면서 학술방면으로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초횡에게 이지와와의 만남은 초횡의 학술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1570년, 이지는 남경 형부원외랑(南京刑部員外郎)에 임명되었는데, 이때부터 초횡과의 왕래가 잦아졌다. 기록에 따르면, 초횡과 이지는 지향하는 바가 서로 잘 맞아 서로 “학문을 토론하고……도학을 분명히 밝힘에 낮과 밤을 다 보내고, 먹고 자는 사이에도 끊이지 않았다”<sup>74)</sup>고 하였다. 둘은 서로 힘들 때 위로해주며 30여 년 동안 서로를 평생지기로 여겼다. 초횡은 형편이 어려운 이지를 위해 그의 장서를 제공해주었고, 초횡이 과거시험에 계속 낙방하자 이지가 그를 위로하는 서신을 보내며 그가 과거시험에 시간과 재능을 소모하기보다 서둘러 ‘성명지학’을 깨닫기를 권유하였다. 1599년, 초횡이 관직을 그만두고 집에 머물 적에는 이지가 황안(黃安)에서 남경으로 찾아왔다. 두 사람은 영경사(永慶寺)에서 함께 ‘성명지학’을 탐구하고 《역경》을 읽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나중에 이지는 《구정역인(九正易因)》을 편찬하였다. 이지는 《분서》, 《설서(說書)》, 《파선집(坡仙集)》, 《맹자비점(孟子批点)》 등의 저서를 완성할 때마다 초횡에게 검토를 부탁하였고, 초횡이 이지의 거의 모든 저서에 서문을 쓴 것으로 보았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깊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

知，彼豈不自以爲奇，而于天性則已離矣。吾未見失其赤子之心，而可爲大人者也。赤子之心失，則不知在我者之足貴，在與彼者之不足玩。”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續集·小學衍義序》，北京：中華書局，2013，p. 757.

74) “商討學問……闡明道學，窮晝繼夜，寢食靡輟。” — 李贄，《續焚書》，卷二，明刻本，中國基本古籍庫，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2001.

다음은 초횡과 삼원과의 관계이다. 초횡은 삼원 중에 원종도(袁宗道)와 가장 먼저 교류하였다. 원종도가 초횡을 찾아가 배움을 구했고, 초횡으로부터 ‘성명지학’에 대해 듣고 그를 스승으로 삼았다. 그리고 원종도가 초횡으로부터 들은 성명지학을 원굉도와 원중도에게 전함으로써 그들 또한 자연스럽게 초횡을 스승으로 삼았다. 이들에게 초횡과의 만남은 공안파의 문학 이론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초횡은 원종도에게 이지를 만나보기를 권유하였고, 이에 삼원이 이지와 만나면서 그들의 성명지학이 완성에 이르렀다. 원중도는 이지와 만남에 대해 “원굉도가 이지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지금까지 진부한 말들을 주워 모으고, 허술한 견해만을 헛되이 고수하여 옛날 사람들의 말 속에 간혀있어, 한 줄기의 빛도 내놓지 못했음을 알았다.”라 하였다.<sup>75)</sup> 이를 통해 원굉도는 이지로부터 성명지학을 깊이 깨달았으며, 이는 후에 공안파가 주장한 성령문학의 근간이 됐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는 공안파의 성령설 형성에 초횡이 일정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초횡은 이들보다 ‘성령’에 대해 먼저 주목하여 공안파의 ‘성령설’ 구축에 선하(先河)가 되기도 했다. 초횡이 주장한 ‘성령’과 공안파가 주장한 ‘성령’은 다르지만, ‘진실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견해가 일치한다. 초횡은 삼원 말고도 공안파 인물들 가운데 도망령(陶望齡)<sup>76)</sup>, 황휘(黃輝)<sup>77)</sup> 등과 자주 어울리며, 이들과 함께 복고에 반대하고 성명지학에 대해

75) “先生即見龍湖，始知一向掇拾陳言，株受俗見，死於古人語下，一段精光，不得披露。”  
— 袁中道, 《珂雪齋集》, 卷十七, 明萬曆四十六年刻本, 中國基本古籍庫,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2001.

76) 陶望齡(도망령): 명대 회계(會稽) 사람으로, 자는 주망(周望)이고, 호는 석궐(石簣)이다. 만력(萬曆) 17년(1589)에 진사하여 한림원편수(翰林院編修)를 지냈고, 국사를 편찬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왕수인의 학설을 굳게 믿었으며, 시문에 능했다. 주요저서로 《제초(制草)》, 《해장(解莊)》, 《천수각집(天水閣集)》, 《혈암집(歇庵集)》 등이 있다. 원굉도의 《서문장전(徐文長傳)》을 보면, 도망령이 원굉도의 절친이었음을 알 수 있다.

77) 黃輝(황휘): 명대 사천(四川) 남충(南充) 사람으로, 자는 평청(平倩), 호는 신헌(愼軒)이다. 만력(萬曆) 17년(1589)에 진사하여 한림원편수(編修)를 지냈고, 공안파의 원종도(袁宗道), 원굉도(袁宏道), 원중도(袁中道), 도망령(陶望齡), 강영과(江盈科) 등과 함께 “포도사(蒲桃社)”라는 선회(禪會)를 결성하고, 성명지학을 연구하였다. 주요저서로 《철암집(鐵庵集)》, 《평정일고(平倩逸稿)》, 《이춘당집(怡春堂集)》 《신헌문

논하였다. 즉 공안과의 문학이론 성립과 발전에 있어서 초횡과 삼원 등 공안과 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초횡의 학문 발전에 있어서 주변 문인들과의 교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는 다른 문인들로부터 새로운 서적을 접하고 자주 빌려 읽었으며, 그들과 함께 도와 학문에 대해 논하고 초서회(抄書會)를 갖는 등 꾸준한 학문적 활동을 하였다.

1559년, 20세에 초횡은 남경의 천계사(天界寺)와 보은사(報恩寺) 두 곳에서 공부하였다. 이곳에서 보당거사(寶幢居士) 고원(顧源)과 사귀게 되었고, 그로부터 소철(蘇轍)의 《노자해(老子解)》를 얻어 읽고는 소철의 학문적 성취가 비범하다고 여겼다. 또 당순지(唐順之)로부터 소식(蘇軾)의 《역경》과 《서경》에 대한 주해서를 구해 읽었는데, 이때부터 초횡은 소식과 소철의 경해(經解)를 좋아하였다. 초횡의 집안은 부유하지 않아 장서(藏書)가 적었기 때문에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서적을 구하고, 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암기하거나 베껴서 기록하였다.<sup>78)</sup> 그리고 이러한 독서습관은 그의 학문적 성취에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초횡은 온갖 책을 두루 읽은 것으로 유명하며, 그의 풍부한 저술과 학술사상은 이러한 독서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독서에 대한 중시로 인해 훗날 장서가(藏書家)로도 유명해 지기도 했다.

한편 초횡의 학문에 대한 당대 문인들의 평가가 매우 높았다. 1593년, 초횡이 관직에 있을 적에 당시 남경형부주사(南京刑部主事)로 있던 추원표(鄒元標)<sup>79)</sup>는 초횡에 대해 “경전과 역사를 망라하였고, 백가에 통달하였으며, 고집스러워 토론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고, 세밀한 것까지 탐구하였다. 그와 함께

집(慎軒文集)》 등이 있다.

78) “余少嗜書，苦家貧不能多致，時從人借本諷之。顧性顛愚，隨諷隨忘，有未盡意者，往來胸臆，又不能舉其全爲恨……庚辰讀書，有感葛稚川語，遇會心處，輒以片紙記之。” — 焦竑撰，李劍雄點校，《焦氏澹園集·題類林後》，北京：中華書局，2013，p. 274.

79) 鄒元標(추원표): 명대 강서(江西) 길수(吉水) 사람으로, 자는 이첨(爾瞻)이고, 호는 남고(南阜)이며, 시호는 충개(忠介)다. 만력(萬曆) 5년(1577) 진사(進士)가 되었다. 이학(理學)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강학 활동에서 명성을 크게 떨쳤다. 주요저서로 《원학집(願學集)》，《태평산거소고(太平山居疏稿)》，《추남고어의합편(鄒南阜語義合編)》 등이 있다.

하는 거처는 마치 경림(瓊林)과 무고(武庫)와도 같으니, 취하고 취해도 다함이 없이 갖춰져 있다.”<sup>80)</sup>라 하였다. 1601년에 진제(陳第)<sup>81)</sup>가 《시경》의 고음(古音)을 연구하고 있을 때, 그는 초횡이 《초씨필승》에서 고시(古詩)에 협음(葉音)이 없다고 한 부분을 보고는 그의 뜻과 매우 부합됨을 느꼈다. 이에 초횡에 대해 “이는 이전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것이다. 말을 아는구나.”<sup>82)</sup>라고 하며 칭송하였다. 그 후 1604년에 진제가 그를 찾아와 함께 고음과 경전, 역사서 등에 대해 논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진제는 초횡의 집에 자주 머물며 그의 책을 빌려 읽었고, 이러한 도움을 바탕으로 그는 고증학의 연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모시고음고》를 편찬하기에 이르렀다.<sup>83)</sup> 이밖에도 초횡의 학식에 대해 칭찬한 문인들이 매우 많다. 마테오리치 또한 남경에 왔을 때 초횡의 명성을 듣고 일부러 찾아와 만났으며 그를 ‘삼교합일의 영수’라 칭하였다.<sup>84)</sup>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초횡의 명성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을 방증해준다.

끝으로 초횡의 관직 생활을 살펴본다. 초횡은 좋은 성적으로 동자시에 급제하였고, 1564년, 25세에는 응천부(應天府) 향시(鄉試)에 급제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회시에서 8번 낙제하고, 1589년, 50세의 나이에 회시에서 급제하고, 전시(殿試)에서는 장원 급제하며, 북경 한림원수찬(北京翰林院修撰)에 임명

80) “網羅經史，貫穿百家，無堅不討，無微不究。與之處，如遊瓊林武庫，采之無盡藏也。” — 鄒元標，〈愿學集·焦弱侯太史還朝序〉，卷四，清文淵閣四庫全書補配清文津閣四庫全書本，中國基本古籍庫，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2001.

81) 陳第(진제): 명대 복건(福建) 연강(連江) 사람이다. 자는 계립(季立)이고, 호는 일재(一齋)이다. 명대의 저명한 음운학자이자 장서가로서 고음(古音)을 고증하여 후세 음운(音韻)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주요저서로 《기심집(寄心集)》，《복희도찬(伏羲圖贊)》，《모시고음고(毛詩古音考)》가 있다.

82) “往年讀焦太史筆乘曰，古詩無葉音，此前未道語也，知言哉。” — 陳第，〈毛詩古音考·毛詩古音考跋〉，北京：中華書局，1991.

83) “甲辰春，來金陵，稿未攜也。秋末，造訪太史，談及古音，欣然相契，假以諸韻書。故本所憶記，更加編輯，太史又爲補其未備，正其音切，於是書成。” — 陳第，〈毛詩古音考·毛詩古音考跋〉，北京：中華書局，1991 참고.

84) “這個人素有我們已經提到過的中國三教領袖的聲譽。他在教中威信很高。” — 利瑪竇，金尼閣 著，何高濟，王遵仲，李申 譯，何兆武 校，〈利瑪竇中國札記〉，北京：中華書局，1983, p. 359.

되었다. 경정향은 초횡의 급제 소식을 듣고 급히 서신을 보내 축하하였고, 이 지 또한 북경에 와서 초횡과 만났다.

초횡의 관직 생활 초반은 평탄하였다. 1592년, 53세에 초횡은 회시방고관(會試房考官)에 임명되었다. 그는 관직에 있으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주변 문인들과 교류하였다. 원종도(袁宗道)가 초횡을 따라 다녔고, 함께 학문을 논한 자들로 도망령, 축세록(祝世祿)<sup>85)</sup>, 관지도(管志道)<sup>86)</sup> 등이 있다. 그해에 명을 받들고 하남성(河南省) 개봉(開封)으로 가던 중에 한양(漢陽)에 들러 이지와 만났고, 또 황안(黃安)으로 가서 경정향을 만났다.

1594년, 55세에는 동궁강독관(東宮講讀官)에 임명되었다. 초횡은 이를 영예로 여겼고, 황태자 주상락(朱常洛)을 지도하였다. 초횡은 황태자의 교육을 위해 춘추시대부터 당송시대까지 60명의 태자의 고사를 모아 《양정도해(養正圖解)》를 편찬하였다. 이를 진상하려고 하자 다른 강관들의 시기로 인해 반대가 격렬하였고, 이때부터 관직 생활이 순탄치 않게 되었다.

이때 조정에서는 사관(史館)을 설립하여 왕조의 정사(正史)를 편찬하고자 하였다. 왕석작(王錫爵)이 총재를 맡았고, 진우폐와 심일관(沈一貫), 유우기(劉虞夔)가 부총재를 맡았으며, 초횡을 포함한 19명은 찬수관(纂修官)을 맡았다. 당시 초횡은 사학을 깊이 연구하였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 본인만의 견해가 있었다. 그가 지은 《논사(論史)》와 《수사조진사사의(修史條陳四事議)》는 논의가 확실하여 진우폐로부터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런데 나중에 황궁(皇宮)의 황극전(皇極殿)과 중극전(中極殿)에 화재가 일어나면서 국사를 편찬하는 일은 중단되었다.

1597년, 순천향시(順川鄉試)에서 초횡이 부감독관을 맡았는데, 낙제한 시

85) 祝世祿(축세록): 명대 강서(江西) 덕흥(德興) 사람으로 자는 세공(世功)이다. 만력(萬曆) 17년(1589)에 진사하여 남과급사(南科給事), 상보사경(尙寶司卿) 등의 관직을 역임했다. 경정향이 강학할 때 그를 따라 함께 다녔으며, 시와 초서에 능했다. 주요저서로 《환벽고(環碧齋)》가 있다.

86) 管志道(관지도): 명대 태창(太倉) 사람으로 자는 등지(登之), 호는 동명(東溟)이다. 융경(隆慶) 5년(1571)에 진사하여 남경병부주사(南京兵部主事), 광둥안찰금사(廣東按察僉事)를 지냈다. 주요저서로 《문변독(問辨牘)》, 《속문변독(續問辨牘)》, 《사문구정독(師門求正牘)》, 《척약제집(惕若齋集)》이 있다.



험지 중에서 서광계(徐光啓)의 시험지를 발견하고 그를 ‘세상의 유학자[名世大儒]’라고 칭하며 매우 칭찬하였다. 그리고 그를 장원 급제시키자 주위에서 그를 질투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 삼아 초횡이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탄핵을 주장하였고, 초횡은 결국 복건성(福建省)의 복녕주동지(福寧州同知)로 좌천되었다.

1598년 봄, 59세의 초횡은 북경에서 복녕주로 떠났다. 이때 초횡은 이지와 함께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6월에 남경에 도착하였고, 영경사(永慶寺)에서 이지와 함께 매일 학문과 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10월 전후로 복녕주에 도착하였다. 1599년, 60세에 복녕주에서 관직을 맡고 있을 때 관원심사가 있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박하다[浮躁]’는 평을 받았고, 초횡은 그 치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직하였다.

이로써 초횡의 관직 생활은 끝이 나고, 다시 남경으로 돌아가 여유롭고 안정된 나날을 보내면서 문인들로부터 추앙을 받았다. 초횡은 관직에 미련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관직을 그만두면서부터 독서, 강학, 저술, 유람 등에 더욱 집중하였다. 이에 초횡과 주변 문인들 간에 학문적 교류와 저술 활동도 한층 풍부해졌다.

즉 초횡의 과거와 관직 생활에서의 고난은 초횡의 학문 성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초횡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강학 활동을 펼쳤고, 학문의 범위를 확장 시켜 문물(文物), 전장(典章), 훈고(訓詁), 고거학(考據學)에 관심을 기울였다. 초횡의 세설체 소설 《초씨유림》과 경학, 사학, 문학, 의학 방면 등에 대한 고찰이 담긴 학술필기집 《초씨필승》<sup>87)</sup> 등의 저작은 1580년 전후에 이미 집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585년에 《초씨유림》을 완성하고, 1586년에는 《초씨필승》을 완성하였다. 그밖에도 《노자익(老子翼)》을 새기고, 《장자익(莊子翼)》을 편집하는 등 집필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갔다. 관직을 그만두고 난 후인 1605년 초횡은 문집 《담원집》 49권을 완성하였고, 1609년 70세에는 황태자가 은혜를 베풀어 그를 남경국자감사업(南京國子監司業)에 임명하였으나 사절하고는 학업과 저술 활동에 매진하였다.

87) 《초씨필승》은 초횡의 학술필기집으로서 경학, 사학, 문학, 의학 방면에서 모두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시기에도 학술 교류는 끊이지 않았다. 초횡은 매정(梅鼎), 조기미(趙琦美)와 함께 초서회(抄書會)를 갖기로 약속하였고, 진제, 원중도, 왕도곤(汪道昆) 등이 그를 방문하며 교류하였다. 1611년에는 《담원집》 속집을 완성하였고, 1616년 77세에는 《국조헌정록》 120권을 완성하였으며, 《국사경적지》 또한 그해 전후로 완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국조헌정록》과 《국사경적지》는 역사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1618년 79세에는 《옥당총어(玉堂叢語)》를 완성하였다. 《옥당총어》는 당대 인물들의 전장(傳狀), 비명(碑銘), 연보(年譜), 문집, 필기 등을 모아 기록한 것으로서 명대 역사를 연구함에 사료로서의 의의가 적지 않다.

1619년 겨울, 초횡은 8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초횡은 50세 나이로 회시에 급제하고 전시에서는 장원급제함으로써 관직에 나갔지만, 60세에 관계를 떠나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평생 그가 일궈낸 학문 성과는 ‘등신서’라고 평가될 정도인 다량의 저술에 담겨있다. 관리로서는 큰 성취를 보이지 못했지만, 문인이자 학인으로서는 큰 업적을 냈다고 할 수 있다.

초횡이 이처럼 사학, 문자학, 고증학, 문헌학, 심학 등 다방면에 관심을 두고, 또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데는 그의 평생에 걸쳐 지속된 폭넓고도 다양한 독서와 다양한 학문에 대한 개방적 태도 및 관심, 폭넓은 교류를 통한 질차탁마의 꾸준한 실천 등이 바탕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초횡의 이러한 태도와 관심은 그의 시관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사실 초횡의 시관이나 문학관, 문학사상은 문학사에서 마땅히 상세히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그 가치는 당시 학술계에서의 초횡의 역할과 성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초횡은 명말 어지러운 학풍의 변화 속에서 다방면으로 공부하여 자신의 학업, 특히 저술방면에서 성과를 이루었고, 명말의 심학과 청초 고증학의 가교로서 학술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sup>88)</sup> 그럼에도 주목이 덜 된 까닭은 청초 고증학자들로부터 받은 평가에 원인이 있다. 청초의 학자들은 초횡이 속한 태주학과에 대해 “맨손으로 용과 뱀을 잡으려

88) “重要的是，焦竑在考据內容，考据方法等方面爲后世考据學者做出了表率。他不僅爲明代心性之學走向求實之學做出了貢獻，也對其后的清代學術尤其是考据學的發展奠定了堅實的基础。” — 韓偉, 《大家精要·焦竑》，西安：陝西師範大學出版社，2017, p. 145.



한다[赤手而搏龍蛇]”, 즉 노력 없이 욕망을 추구한다고 지적하며 비난하였고, 이를 초횡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초횡에게 적합하지 않다. 초횡은 심학의 공소한 학풍에 반대하며 실용적인 학문에도 힘썼고, 그가 이룬 학문적 성취는 분명 인정받을 만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초횡이 당시 학자들로부터 받은 평가가 방증해준다.

초횡은 사람들로부터 ‘등신서(等身書)’로 형용될 만큼 저술도 많았고, 소장한 책도 매우 많았다.<sup>89)</sup> 《명사(明史)》에서는 초횡에 대해 “각종 서적에 통달하여 경전과 역사서부터 소설, 잡설(雜說) 등 깊이 깨닫지 않은 바가 없다. 고문에 능통하고, 《서경(書經)》과 《시경(詩經)》의 법도에 맞아 아름다우니 탁월한 인물이다”<sup>90)</sup>라고 평가하였다. 또 《명유학안(明儒學案)》에 따르면, 명말의 사상가이자 저명한 학자인 황종희는 초횡에 대해 “쌓은 서적이 수만 권에 이르고 저서들을 두루 읽었으며, 금릉의 인사들이 모인 곳에서 선생이 문단을 인솔함이 마치 물이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것과 같았다. 이학(理學)으로 인도함에 왕세정도 그보다 못하다<sup>91)</sup>”라 하였다. 또 《결기정집(結綺亭集)》에 따르면, 황종희(黃宗羲)의 부친은 일찍이 황종희에게 당부하길, “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史事)에 대해 통달하는 것인데, 《헌정록》이 읽을 만하다<sup>92)</sup>”라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진술들을 통해 당시 초횡이 학자로서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초횡은 당시 문인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였는데, 그 흔적을 통해 그가 당시 문인들 사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명사》에서는 초횡에 대해 “학문을 강구함은 나여방(羅汝芳)을 본받았

89) 《中國藏書家考略》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소장한 책이 건물 두 채에 이르고, 방 다섯 칸에 가득했다[藏書兩樓, 五楹俱滿]”라 하였다.

90) “博極群書, 自經史至稗官、雜說, 無不淹貫. 善爲古文, 典正訓雅, 卓然名家.” — 張廷玉等撰, 《明史·文苑·焦竑傳》, 北京: 中華書局, 1974. p. 7393.

91) “積書數萬卷, 覽之略遍. 金陵人士輻輳之地, 先生主持壇坫如水赴壑. 其以理學倡率, 王弼州所不如也.” — 黃宗羲, 許仁圖, 《明儒學案·下·文端焦澹園先生竑》, 臺北: 河洛圖書出版社, 1974, p. 46.

92) “學者最要緊是通知史事, 可讀《獻徵錄》.” — 全祖望, 《結綺亭集》, 上海: 商務印書館, 1936.

고, 경정향(耿定向) 형제 및 이지(李贄)와 친했다<sup>93)</sup>”라고 했다. 이 외에도 이지, 탕현조(湯顯祖), 원굉도, 도망령 등과의 왕래가 잦았는데, 특히 이지와 관계가 매우 특별했다. 이지는 초횡에 대해 말하길, “나의 학문은 비록 전해줄 만한 것이 없으나 초횡에게서 얻은 바는 또한 힘이 있었다. 초횡은 영원토록 전해질 인물이라 세상에 그와 사귀고자 하는 이가 매우 많다. 그 글로써 일가의 언설을 정립하고자 하는 이들은 초횡을 스승으로 삼는다……그래서 세상의 불후한 업적을 남기기 위한 자들로 초횡과 사귀 이는 비단 나 굉보뿐만이 아니다. 그러나 오직 나 굉보만이 초횡을 깊이 알았으며, 초횡 또한 굉보를 지기로 삼았다<sup>94)</sup>”라 하였다. 두 사람은 서신 왕래가 잦았으며, 또 초횡은 이지의 거의 모든 저서에 서문을 썼다. 이는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한 영향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초횡은 공안과 인물들과도 자주 교류했다. 그중에서도 원굉도, 황휘, 도망령과 관계가 깊었다. 특히 원굉도가 ‘성령설’을 내세우고, 심성지학(心性之學)을 추구함에 초횡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또 초횡이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응당 옛날 사람들이라는 허수아비[芻狗]를 모두 버려야 하며, 자신의 흉중으로부터 한 조각 세계를 열어젖혀야 비로소 참됨을 이루고 받아 쓰이게 되는데, 어찌 죽은 사람의 발밑에 이르고자 하는가<sup>95)</sup>”라고 말한 부분은 원굉도의 주장과 상당히 흡사하다.<sup>96)</sup>

93) “講學以汝芳爲宗，而善定向兄弟及李贄。” — 張廷玉等撰，〈明史·文苑·焦竑傳〉，第二四冊，北京：中華書局，1974，p. 7393.

94) “故宏甫之學雖無所授，其得之弱侯者亦甚有力。夫侯千古人也，世之愿交侯者衆矣。其爲文章欲以立言，則師弱侯……故世之爲不朽故以交於侯者，非一宏甫也，然惟宏甫爲深知侯，故弱侯亦自以宏甫爲知己。” — 李贄，〈續焚書〉，卷二，明刻本，中國基本古籍庫，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2001.

95) “學道者當盡掃古人之芻狗，從自己胸中辟取一片乾坤，方成真受用，何至甘心死人脚下。” — 焦竑撰，李劍雄點校，〈焦氏筆乘續集·支談上〉，北京：中華書局，2008，p. 287.

96) 초횡과 삼원은 전후칠자의 복고주의에 대한 비판하며 ‘성령’을 강조하였다. 원굉도는 “오직 성령만을 서술하고, 일정한 격식에 구애받지 않으며, 자신의 흉중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면 붓을 들지 않는다[獨抒性靈，不拘格套，非從自己胸臆流出，不肯下筆]”라고 하였다.

초횡은 과거시험에서 불합격한 서광계<sup>97)</sup>의 시험지를 보고 그를 장원으로 급제시켰다.<sup>98)</sup> 후에 서광계는 초횡의 제자가 되었는데, 서광계는 그가 서양의 신기술 및 신학문을 전파하는 데 크게 공헌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는 초횡의 안목과 학술적 견해가 남달랐음을 방증해준다. 《명사》에 의하면, 서광계는 마테오리치로부터 천문(天文), 역산(曆算), 화기(火器) 등을 배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99)</sup> 그런데 그 계기는 초횡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광계는 1595년 광둥(廣東)韶州(소주)에서 예수회 선사 라자오 카타네오(Lfizaro Catfino)를 만난 후 마테오리치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기회가 없었다. 1599년에 초횡이 이지와 함께 마테오리치와 처음 만났고, 서광계는 1600년에 남경에 들러 마테오리치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들이 만난 장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남경의 성당이고, 하나는 초횡의 집이다.<sup>100)</sup>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초횡이 그의 제자인 서광계의 학문 발전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초횡과 세 번이나 만났던 마테오리치 또한 초횡에 대해 “당시 남경에 매우 귀한 분이 살고 계셨다. 그는 예전에 장원 급제하였는데, 중국인들은 그 자체

97) 徐光啓(서광계): 송강부(松江府) 상해현(上海縣, 지금의 상해) 출신으로, 자는 자선(子先)이고 호는 현호(玄扈)이다. 만력(萬曆) 32년(1604) 43세의 나이에 비로소 진사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나 청렴하였고, 명대의 저명한 과학자이자 정치가로 이름을 날렸다. 1606년 전후에 예수회 서양 선교사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에게서 천주교 세례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천문, 역학, 수학, 과학, 수리, 화기 등 실용적인 서양 학문을 배웠다. 마테오리치와 함께 유클리드의 《기하원본》을 번역하는 등 《태서수법(泰西水法)》, 《農政全書》 등의 저서를 남겼다.

98) “1597年徐光啓第五次應順天府鄉試，仍卷落孫山外。但這次的主考官爲深得陽明心學之旨的焦竑。徐光啓之子徐驥《文定公行實》言：“是年大司成漪園焦公典試，發榜前二日，猶以不得第一人爲恨，從落卷中獲先文定公卷，擊節賞嘆，閱至三場，夏拍案曰：‘此名士大儒無疑也’，拔置第一。” — 劉根勤，〈“心學”與“實學”之間——對焦竑與徐光啓學術交往的考察〉，中山大學傳播與設計學院，2013 참고.

99) “從西洋人利瑪竇學天文、歷算、火器，盡其術。” — 張廷玉等撰，《明史·徐光啓傳》，北京：中華書局，1974, p. 6493.

100) “他們見面的地点也有爭議，一說在南京的天主教堂，一說在徐光啓的恩師焦竑家中。” — 劉根勤，〈“心學”與“實學”之間——對焦竑與徐光啓學術交往的考察〉，中山大學傳播與設計學院，2013.

만으로 매우 높은 영예라고 여긴다. 나중에 그는 관직을 그만두고 집에서 조용히 머물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였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매우 존경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언급했던 중국 삼교합일 사상의 영수로서 명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가르침에 있어서 위신이 매우 높다.”<sup>101)</sup>라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자료들만 보더라도 초횡이 당시 학술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초횡은 당송파의 ‘경전을 본받고 도를 밝히는(宗經明道)’ 문학정신을 이어받고, 의고주의를 비판하며 공안파의 길을 열어주었으며<sup>102)</sup>, 시문 창작에 있어서 내용과 형식, 그리고 고금을 함께 중시했기 때문에 각 집단의 장점을 가장 폭넓게 수용한 문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초횡의 학문적 태도와 견해가 위에 언급한 문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초횡의 시관, 문학관, 문학사상, 학술사상 등을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초횡을 연구한 기존의 학자들 또한 초횡의 학술사상이 깊고도 넓기 때문에 초횡의 문학에 대해서도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로 초횡 시관 연구의 의의는 초횡의 시문에 대한 주변 문인들의 평가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진의전(陳懿典)은 초횡의 문장 풍격에 대해 “선생의 학문은 지성(知性)을 본령으로 삼고, 널리 통달함을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그 정신은 주로 대도(大道)와 경세에 있고, 문(文)에 있지는 않았지만, 감응하고 촉발되면 시문으로 나왔으며, 오랜 시간 동안 유익함이 많았다.”<sup>103)</sup> 또 “선생은 다만 깊은 것에 힘쓰고, 옛것을 좋아하여 옛날 사람들의 작법에 절묘하게 들어맞았고, 다만 배움에 있어서 먼저 도를 깨우쳤으니, 그래서 문

101) “當時，在南京城里住着一位顯貴的公民，他原來得過學位中的最高級別，中國人認為這本身就是很高的榮譽。後來，他被罷官免職，閑居在家，養尊處優，但人們還是非常尊敬他。這個人素有我們已經提到過的中國三教領袖的聲譽。他在教中威信很高。” — 利瑪竇，金尼閣 著，何高濟，王遵仲，李申 譯，何兆武 校，《利瑪竇中國札記》，北京：中華書局，1983，pp. 358-359.

102) “焦竑的創作主張和文學實踐對明代文學思想發展也起到了很好的承上啓下的作用。” — 韓偉，《大家精要·焦竑》，西安：陝西師範大學出版社，2017，p. 96.

103) “先生之學，以知性爲要領，而不廢博綜……雖其精神所注在大道與經世，而不在於爲文，乃感觸酬應，發爲詩文，積九益多。” — 陳懿典，《澹園集·尊師澹園先生集序》，北京：中華書局，2013，p. 1214.

인의 악습을 깨끗이 씻어냈다.”<sup>104)</sup>라 하였다. 황여정(黃汝亭)은 초횡이 중국 고전문학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며 자신만의 풍격을 이루었다고 하였으며, “본래 《육경》을 근원으로 삼고, ‘삼리(三吏)’가 섞여 있으며, 한유, 유종원을 본받고, 그 기이함을 깎아내고, 증공, 왕안석에 이르러서는 자라남을 막았고, 시는 즉 도연명, 위응물을 본질과 왕유, 맹호연의 神을 본질로 삼았다.”<sup>105)</sup>라 하였다. 서광계는 초횡 문장의 가치에 대해 “덕에 유익하고, 행함에 이로우며, 일에 도움이 된다.”<sup>106)</sup>라 하였다.

## 제 2 절 奇異 승상 풍조의 교정: ‘본성으로서의 奇異’ 긍정

초횡의 기이관을 고찰하기 전에 먼저 ‘기이함(奇)’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다. 《설문해자(說文解字)》<sup>107)</sup>에 의하면, “奇는 다른 것이다. 또는 짝을 이루지 않는다. [奇, 異也. 一曰不耦]”는 뜻이다. 사전적으로는 ‘보기 드물다[罕見]’, ‘특수하다[特殊]’, ‘비상하다[非常]’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즉 ‘기이함’은 평범한 것과 구분되며, 나아가 ‘훌륭함[佳]’의 의미로도 쓰인다. 기이함을 나타내는 ‘奇’, ‘異’, ‘奇異’ 등은 중국 역대 문학비평에서 자주 쓰이며, 이는 작가나 작품의 가치평가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역대 문인들은 ‘기이함’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즉 글의 ‘기이함’은 문인들이 다른 문인들과 자신을 차별화하기 좋은 수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인들 사이에서 ‘기이함’을 추구하는 현상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기이함’을 추구하던 문인들 가운데 성과가 컸던 문인으로 당대(唐代)의 한

104) “先生維功心好古，故妙契古人之作法；維學先聞道，故盡洗文人之習氣。” — 陳懿典，《澹園集·尊師澹園先生集序》，北京：中華書局，2013，p. 1214.

105) “本原六經，錯綜三吏，法韓，柳而鏟其奇，達曾，王而削其蔓；詩則陶，韋爲質，王，孟爲神。” — 黃汝亨，《寓林集·祭焦若侯先生文》，卷二十，明天啓四年刻本，中國基本古籍庫，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2001.

106) “益於德，理於行，濟於事。” — 徐光啓，《澹園集·尊師澹園先生續集序》，北京：中華書局，2013，p. 1221.

107) 許慎，湯可敬撰，《說文解字今釋》，長沙：岳麓書社，2001，p. 654.

유(韓愈)를 꼽을 수 있다. ‘기이함’을 추구했던 것으로 잘 알려진 한유는 글쓰기에서 있어서 ‘글로써 도를 밝힌다(文以明道)’를 주장하며, ‘기묘한 문사와 심오한 사상(奇辭奧旨)’의 조화를 중시하였다.<sup>108)</sup> 그리고 한유는 이러한 조화가 고대 성현들의 문장에 구현되어 있다고 인식하였고, 고대 전적을 통한 문사(文辭)와 도(道)의 학습을 강조하였다. 한유의 ‘기이한 문장’에 대한 추구는 그가 평소 ‘기이한 것[異]’과 ‘평범하지 않은 물건[非常物]’을 소중히 여기는 심미관이 반영된 것으로서, 창작에 있어서 독창성을 매우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sup>109)</sup> 즉 본래 ‘기이함’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모두를 내포하고 있지만, 문인들은 ‘기이함’을 부정적으로 여기기보다 특별하게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명대에는 ‘기이함’을 추구하는 현상이 일종의 풍조가 되었고, 문인들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성행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은 명대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여영시(余英時)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에 발생한 사회, 문화적 변화를 중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로 보았다. 또 그는 이 시기에 발생한 여러 사회적 변화 가운데 ‘문인[士]’과 ‘상인[商]’의 관계 변화에 대해 주목하였다. 당시에는 거인(舉人)들에 비해 관직의 수가 매우 한정적이었다. 따라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선비들은 ‘유학을 포기하고 상업에 종사[棄儒就賈]’하였고, 반대로 ‘상인 집안 출신의 자제들<sup>110)</sup>이 관직에 나아가는[由商轉士]’ 현상이 나타나면서 문인계층과 상인계층의 전통적인 구분이 모호해졌다.<sup>111)</sup>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중간층 문

108) “한유는 글쓰기에서 ‘文以明道’를 강령으로 제시하였다. ‘文以明道’를 위해 문학 창작에서 ‘修其詞’, 즉, 문사의 세련과 ‘明其道’, 즉, 도를 밝히는 사상적 내용을 모두 중시한다. 세련된 문사의 운용과 도를 밝힌 우수한 내용, 이 두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달성한 이상적 모델로 한유는 古道를 담지하고 있는 고전 전적을 제시하였다. 이들 고전 전적의 세련된 문사와 古道가 이상적으로 조화된 상태를 ‘기묘한 문사와 심오한 사상 奇辭奧旨’이라 묘사하였다.” — 황정희, <한유 산문 중의 인격 형용어 “기(奇)” 연구>, 中國語文研究會, Vol. 33, 2007. p. 194.

109) 황정희, <한유 산문 중의 인격 형용어 “기(奇)” 연구>, 中國語文研究會, Vol. 33, 2007 참고.

110) 이몽양(李夢陽), 왕도곤(王道昆), 왕간(王艮), 고헌성(顧憲成), 고윤성(顧允成) 등이 있다.



인들은 자신들만의 차별성을 지니기 위해 새로운 문인문화를 형성하였다.

먼저 이들은 진귀한 골동품, 서적, 장식품 같은 물질을 수집하고 감상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문화적 소양을 드러내고, 정신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였다. 물질 중에서도 기이한 것을 가려내는 것은 문화적 소양을 지닌 문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일종의 특권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문인사회에 진입하고자 했던 상인들은 문인들의 문화를 배우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이 시기에는 감상을 위한 물질들을 다룬 서적<sup>112)</sup>이 대량 생산되었고, 물질에 대한 감상 능력이 없는 상인들도 특이한 물건들을 마구 수집하여 골동품값이 치솟고, 모조품까지 생겨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 되면서 당시 문인들 사이에서는 골동품에 대한 벽(癖)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기이한 물질’에 대한 집착은 갈수록 심해졌다.<sup>113)</sup>

이처럼 문인들 사이에서 기이함을 추구하는 경향은 출판, 학술방면에서도 드러난다. 먼저 출판과 관련해서는 ‘爭奇’시리즈<sup>114)</sup>의 출간을 예로 들 수 있다. ‘爭奇’시리즈의 출간을 통해 ‘奇’가 우월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우월함은 새로운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서, 당시 사회의 구성원들이 ‘기이함’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기까지 한 현상이었다.<sup>115)</sup>

111) 余英時, <明清變遷時期社會與文化的轉變>, 《中國歷史轉型時期的知識分子》,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94, pp. 35-36.

112) “고림(高濂)의 《준생팔진(遵生八箋)》 19권, 항원번(項元汴)의 《초창구록(蕉窗九錄)》, 문진형(文震亨)의 《장물지(長物志)》, 도룡(屠隆)의 《고반여사(考槃餘事)》, 장응문(張應文)의 《청비장(淸秘藏)》 2권 등이 있다.” — 이은상, <명말 강남 문인들의 물질문화 담론에 관한 試論>, 대한중국학회, Vol. 36, 2010, pp. 190-195.

113) 이은상, <명말 강남 문인들의 물질문화 담론에 관한 試論>, 대한중국학회, Vol. 36, 2010 참고.

114) “1623년을 전후하여 몇 년간 ‘□□爭奇’라는 제목을 달고 동일한 포맷으로 소재를 달리하여 편집된 책들이 建陽의 書坊에서 집중적으로 출간된다. 현재까지 《花鳥爭奇》, 《山水爭奇》, 《風月爭奇》, 《梅雪爭奇》, 《茶酒爭奇》, 《童婉爭奇》, 《蔬果爭奇》 등 7종이 알려져 있다.” — 최수경, <明代 後期 상업출판물 속의 ‘物’>, 한국중어중문학회, Vol. 60, 2015, p. 6.

115) “이 시기에 ‘奇’字가 함축하고 있는 문화적 의미의 범주는 전통적인 字義를 훨씬 뛰어넘는다. ‘爭奇’시리즈를 포함해 이 시기 서적 표제에 사용되는 ‘奇’자는 뛰어

또 학술방면에서는 양명학의 성립을 시작으로 많은 학자가 삼교합일론을 주장했다는 점과 문인들이 경전을 해석하는 데 제자백가서나 불경, 소설에 근거하여 해석한 사실을 예로 들 수 있다.<sup>116)</sup> ‘기이함’을 추구하는 풍조가 심해지면서 반대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태도를 보인 문인들도 있었다. 우신행(于慎行)은 “예전에 문인들의 풍조는 순박하고 고상하였고, 배움을 근본으로 삼았다. 글의 형식[文]과 내용[義], 근원[源]과 말단[流]은 모두 경전으로부터 나왔다……근래에 들어서 평범한 것을 싫어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며, 기이한 것을 받들고 특이한 것을 좋아한다. 육경의 가르침을 진부한 말로 여겨 제거해버리니 다만 힘을 쓰지 못할까 두려울 뿐이다”<sup>117)</sup>라 하였다. 이처럼 기이함을 추구하는 현상이 당시 사회의 풍조가 되자 우신행 같은 문인들은 전통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해 경계하였다. 초형 역시 이러한 현상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기이함’에 대한 본인의 관점을 명확하게 천명하였다.

‘기이함’에 대한 초형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한유의 주장과 유사하다. 한유와 마찬가지로 초형은 글에 있어서 ‘기이함’을 숭상함에 내용과 형식의 조화와 독창성을 중시하였고, 이러한 견해는 한유의 주장과 일치한다. 다만 초형의 ‘기이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초형은 이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형은 ‘기이함’의 개념을 긍정과 부정의 두 차원에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고, 그 견해는 ‘본성으로서의 기

---

남, 우월함을 의미하는데 그 뛰어남은 바로 ‘新奇’,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새로움’에서 비롯된다. 이 시기 ‘새로움’에 대한 열망은 비단 출판계뿐 아니라 모든 문화적 영역, 나아가서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통분모이기도 했다.” — 최수경, <明代 後期 상업출판물 속의 ‘物’>, 한국중어중문학회, Vol. 60, 2015. pp. 6-7.

- 116) 牛建强은 명대 문인들의 풍조가 이전보다 크게 변함[士風異動]에 대해 논의하면서 여러 변화 가운데 한 가지로 ‘새로운 것을 주장하고,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標新好奇的狂熱]’ 현상을 언급하였다. 문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주로 학술과 문체에 대한 새로운 추구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 牛建强, <明代中后期士風異動與士人社會責任的缺失>, 開封: 河南大學, 黃河文明與可持續發展研究中心, 2008.
- 117) “先年士風淳雅, 學務本根, 文義源流, 皆出經典……近年以來, 厭常喜新, 慕奇好異. 六經之訓目爲陳言, 刊落芟夷惟恐不力.” — 于慎行, 《穀山筆塵》, 卷八, 明萬曆于緯刻本, 中國基本古籍庫,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2001.



이함’ 긍정과 ‘인위적인 기이함’ 부정으로 나뉜다. ‘기이함’에 대한 초횡의 명확한 인식은 그의 시관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우선 이와 관련된 논의를 세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기이함에 관한 초횡의 기본적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문장이다.

글의 변질이 심해져 사람들이 각기 장점을 드러냄에 있어 기이함을 뽑냄이 펼쳐 일어났는데, 그 추세는 반드시 황당하고 괴이한 것에 이른 뒤에 그친다.<sup>118)</sup>

여기서 말한 글의 변질, 그리고 사람들이 각기 ‘기이함’을 뽑내는 현실에 대해서 초횡은 긍정이나 부정,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판정하지 않았다. 이는 초횡이 ‘기이함’을 덕목[長点]으로 보고 이를 추구하는 시세(時勢)가 성행하고 있음에 대한 진술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세가 급기야 ‘황당하고 기괴함[恢詭譎怪]’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초횡이 그 형세가 ‘황당하고 기괴함’에 이른다고 한 까닭은, 사람들이 ‘기이함’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여 초래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경계하였기 때문이다. 즉 초횡은 ‘기이함’을 자기 글의 장점으로 삼고자 함에 가치판단이나 시비판단, 好惡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시세가 극단을 추구하고서야 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한 것이다.

다음 문장에도 당시 사람들이 ‘기이함’을 맹목적으로 좇는 풍조에 대한 초횡의 비판적인 태도가 담겨있다. 또한 이러한 관점과 관련된 글의 ‘수사(修辭)’에 관한 견해도 담겨있다.

금, 옥, 무소뿔, 상아는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는 바이고, 편목, 남목, 예장목은 사람들이 재목으로 여기는 바이다. 대도시에는 범상하고 진귀한 것들이 눈앞에 가득하여 괴상한 것과 특이한 것이 아니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어렵다. 이에 바다 속의 썩은 돌을 캐내어 산호로 만들고, 도랑의 나무토막으로 제사 때 쓰는 술 항아리로 만든다. 무릇 기이한 것은 애초부터 기이했다.

118) “文之變至矣，人出所長，異耀震發，其勢必至恢詭譎怪而後已。” — 葉慶炳·邵紅編輯，  
《明代文學批評資料彙編·大司成馮公具區集序》，臺北：成文出版社，1979，p. 467.

요컨대 벌레가 나무를 갉아 먹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지 조각하고 장식하여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sup>119)</sup>

여기서 말한 금(金), 옥(玉), 무소뿔[犀], 상아[象]와 편목[楸], 남목[楠], 예장목[豫章]은 모두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귀한 물건이다. 또 이러한 물건들은 가공하지 않아도 타고난 자체만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자연적인 기이함’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성으로서의 기이함을 갖추고 있는 물건들이 있음에도, 당시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롭고 기이한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 자연적인 기이함을 발하는 것들을 오히려 평범하게 여기게 된 것이다. 사람들의 ‘기이한 물건’에 대한 수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가공한 물건들이 생겨났고, 초형은 그러한 물건에는 참된 가치가 존재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괴상한 것[怪産]’을 추구한다고 표현한 것이다. 즉 사람들의 ‘기이함’에 대한 극단적인 추구로 인해 기괴한 것들이 생겨나는 폐해가 발생하였고, 그 기괴한 것들은 바로 ‘썩은 돌[腐石]’로 만든 ‘산호(珊瑚)’와 ‘나무토막[斷木]’으로 만든 ‘희준(犧尊)’처럼 가공하여 만든 것들이다. ‘산호’는 색이 선명하고 미관이 훌륭하여 장식품 재료로 쓰이며 옛날부터 귀하게 여겨졌다. ‘희준’은 제사 때 쓰는 술 항아리로 소의 모양을 하거나 소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 둘은 겉으로는 모두 귀한 물질처럼 보이지만, ‘썩은 돌’과 ‘나무토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질은 여전히 하찮은 것이며 ‘인위적인 기이함’을 발할 뿐이다. 즉 초형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 ‘자연적인 기이함’에 대해서는 긍정했지만, ‘인위적인 기이함’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정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글의 ‘수사(修辭)’에 관한 견해로도 해석될 수 있다. ‘썩은 돌로 만든 산호’와 ‘나무토막으로 만든 희준’을 글에 적용하면, 이는 글에 있어서 곧 수사를 가리키는 비유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초형이 수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조탁하여 인위적으로 수식을 가하는 것에 반대하였음을 알 수 있

119) “金玉犀象，人之所寶，楸楠豫章，人之所材，至于通都大市，常珍盈目，非怪産奇翫不足發人之異觀，於是海中腐石出爲珊瑚，溝中斷木以爲犧尊。夫異則異矣，要之如虫蝕木自然而成，非雕鏤所能至也。” — 葉慶炳·邵紅編輯，《明代文學批評資料彙編·大司成馮公具區集序》，臺北：成文出版社，1979年，p. 468.

다. 하지만 글의 형식미 자체를 부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본래 금이나 옥이 걸으로도 아름다운데 이는 ‘기이함’이라는 가치를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걸로도 드러나게 된 결과이다. 이처럼 글도 본성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구현된 아름다움을 긍정해야 한다고 본 셈이다. 금이나 옥이 본성적으로 아름다움을 갖추고 생성됐듯이 글도 아름다움을 본성 차원에서 갖추고 있다고 본 것이다.

초형은 다음 문장에서도 본성적으로 갖춘 기이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아름다움을 구현하고 있는 글은 글쓴이가 의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陶淵明 선생은……그 희미한 충심과 고아한 情怀는 촉발되면 말을 이루는 데, 어떤 것은 질박함으로써 공교로워지고, 어떤 것은 기이함을 발하면서도 평범한 것처럼 보인다. 비유컨대 산속의 옥과 깊은 연못 속의 진주와 같아 광채가 저절로 빛나는데 선생은 알지 못한다.<sup>120)</sup>

초형이 도연명의 작품을 높이 평가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의 작품이 옥과 진주처럼 본성적인 기이함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형은 도연명이 마음에서 촉발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읊어낸 것이지 시의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창작한 것이 아님을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도연명의 시는 질박해 보이면서도 공교롭고, 기이하면서도 평이해 보이는 것이다. 여기서 평범하다는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용이나 형식이 인위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초형은 도연명의 작품을 옥과 진주같이 본성적으로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물건에 비유하였고, 이러한 가치를 본인은 모른다고 단정하며 본성적인 기이함이 구현된 글은 글쓴이가 의도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창작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기이함’에 대한 초형의 관점은 그의 실제 독서행위에서도 동일하게 목도

---

120) “靖節先……若夫微衷雅抱，觸而成言，或因拙以得工，或發奇而似易，譬之嶺玉淵珠，光采自露，先生不知也。”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陶靖節先生集序》，北京：中華書局，2013，pp. 169-170.

된다. 다음 글에서 초횡이 직접적으로 ‘기이함’을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기이함’에 대한 추구가 그의 독서행위에도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좌씨의 쓰임은 경전을 해설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며, 경전을 잘 해설하는 자 가운데 좌씨만한 것도 없다. 좌구명은 《춘추》에 실려 있는 일을 수 세대 후에 판명했는데 그 일을 수 세대 전에는 거의 가려져 있었다. 어떤 경우는 한 가지 일로 기초가 무너지고, 어떤 경우는 한 사람으로 인해 창업이 이루어지며, 어떤 경우는 안에서는 해아람이 잘못되어 밖으로는 모욕을 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미미한 잘못이 싹터 갈라져 붕괴에 직면하게 된다. 요컨대 한 줄에 실마리로 실타래를 끌 수 있고, 빙 둘러서 서로를 산이 강물에 비친 것처럼 비쳐준다. 마치 나무에 뿌리가 있어 수풀의 잎들이 널리 퍼져있지만 서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한가로이 노닐며 그에 젖어들면 신명함을 은연중에 알게 되다가 문득 그 핵심을 터득하게 해준다. 240년의 성패는 완전히 하루와 같고, 72명의 군주가 행한 일은 한 가지 일로 수렴되니 그래서 기이하다고 말하는 것이다.<sup>121)</sup>

초횡은 《춘추좌전(春秋左傳)》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 그 근거는 바로 초횡이 지향하는 ‘본성으로서의 기이함’이 잘 발현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초횡은 좌구명이 《춘추》에 기록된 사건들의 실마리를 가지고 풍부한 해설을 하였다고 평가하며, 이를 ‘나무에 뿌리가 있어 잎들이 널리 퍼져있지만 서로 이어져 있는 모습’에 비유하였다. 이를 다시 글쓰기에 비유하면 나무의 뿌리는 땅 밑에 있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바로 뿌리로 인해 널리 퍼져있는 잎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잎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뿌리와 조우하게 된다. 《춘추좌전》에는 240여 년 간 일어난 꽤 많은 사건이 실려있다. 그러나 그 많은 사건은 잎들이 뿌리와 연결되어 있듯이 주지(主旨)로 수렴된다. 숲속에서 서로 이어져 있는 잎들 하나하나와 더불어 한가로이 노

121) “左氏之用不盡于說經，而善說經者無如左氏，彼其事判于數世之後而幾隱於數歲之前，或以一事基敗，或以一人創治，或內算失而外以狙，或微釁萌而鋸以會壤，要以絲牽繩聯，廻環映帶，如樹之有根株，林葉扶疎附麗，使人優游浸漬，神明默識，而忽得其指歸。二百四十年之成敗宛如一日，七十二君之行事適一事，故曰奇也。”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春秋左翼序》，北京：中華書局，2013. p. 129.

닐며 젖어들다 보면 문득 뿌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춘추좌전》에 수록된 사건들 하나하나와 더불어 한가로이 노닐며 그들에 젖어들다 보면 그 모든 사건이 동일한 주지로 귀결됨을 문득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앞/사건’은 일종의 말단[末]·쓰임새[用]이고, ‘뿌리/주지’는 그것들의 근본[本]·본체[體]라고 할 수 있다. 《춘추좌전》은 겉보기에는 역사적 사건을 연도별로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장에는 본과 말, 체와 용 간의 긴밀한 호응이 자연스럽게 잘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춘추좌전》의 의미구조와 내용 설계 등이 유기적으로 잘 짜였고 서술전략이 매우 뛰어났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러한 구조와 설계, 전략 등이 기술된 내용과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있어, 이를 읽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춘추좌전》의 요체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이것이 초횡이 판단한 《춘추좌전》의 기이함이다. 또한 이는 다른 《춘추》 해설서들이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춘추좌전》만이 갖는 개성이기도 하다. 초횡이 인용문 서두에서 《춘추》를 잘 해설한 것 중에 《춘추좌전》만 한 것이 없다고 잘라 말할 수 있었던 근거이다. 결국 초횡은 《춘추좌전》에서 확인 가능한 이러한 빼어남, 곧 글의 내용 차원에서 기이함을 갖추는 것을 금이나 옥 등 본성적으로 갖추고 있는 기이함과 동질적인 것으로 본 셈이다.

이처럼 초횡은 기이함을 갖추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결을 더 나아가 기이함이 있어야 뛰어난 글이 됨을 《춘추좌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분명히 했다. 다만 본성적으로 그러한 자연스러운 기이함을 갖춘 글이 좋은 글임을 천명한 것이다.

### 제 3 절 ‘性-靈’과 ‘古-今’의 연동

초횡의 ‘기이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그가 말하는 ‘기이한 글’의 내용 차원에서 빼어남을 갖추는 것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러한 빼어남은 예컨대 본말의 유기적 호응이 문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나 있음 등을 가리킴도 확인하였다. 초횡의 이러한 관점 저변에는 고(古)와 금(今)에 대한 그의

고유한 관점이 놓여있다. 이에 대해서는 초횡의 역대 문장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六經과 四書는 말할 필요도 없고, 나아가 莊子, 老子, 申不害, 韓非, 管仲, 晏嬰의 서적이 어찌 후세의 空言과 같겠는가. 莊子와 老子는 道로 나아가고, 申不害, 韓非, 管仲, 晏嬰은 事功으로 나아갔지만, 모두 마음으로 합당하다 여기고 몸으로 실천함에 조금의 의심도 없었으니, 그들의 말은 마치 주머니를 뒤집어 물건을 꺼내듯, 손에서 일을 취해온 듯 조금의 회의도 없었다. 천하의 지극한 문장이 이들에게 있으니 참으로 훌륭하다. 한나라 때 蒯通, 蕭何, 酈生, 陸賈의 유세문은 전국시대의 것을 따랐고, 晁錯와 賈誼의 경제문은 申不害, 韓非, 管仲, 晏嬰의 것을 따랐다. 司馬相如, 東方朔, 吾丘壽王의 풍간의 글은 초사를 따랐고, 董仲舒, 匡衡, 揚雄, 劉向의 설리문은 육경을 따랐다. 司馬遷, 班固, 荀悅의 기사의 글은 《춘추》, 《좌씨전》을 따랐다. 그 詞와 法은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으니, 꽃과 열매가 서로 부합됨이 오히려 옛것에 가까워 지금에 이르러서도 칭송받는 것이다.<sup>122)</sup>

초횡은 글쓰기의 전범을 선진시기로 보고 있으면서 육경(六經) 외에도 제자서(諸子書), 역사서(史書), 초사(楚辭)까지 긍정하였다. 성리학자들은 대부분 법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는데, 초횡은 후세의 문장을 공언(空言)이라 칭하며, 후세의 문장에 비하면 제자백가서와 한대(漢代)의 문장이 ‘형식과 내용이 서로 부합되는[華實相副]’ 훌륭한 문장임을 강조하였다.

먼저 제자서에 대한 평가를 보면, 장자와 노자는 ‘도(道)’에 치중하고, 신한, 관중, 안영은 ‘사공(事功)’에 치중했지만, 사실 이들은 마음으로 옳다고 여기고 몸으로 이를 실천함에 터럭만큼의 미혹됨도 없이 마치 주머니 속 물

122) “六經四子無論已, 卽莊老申韓管晏之書, 豈至如後世之空言哉! 莊老之於道, 申韓管晏之於事功, 皆心之所契, 身之所履, 無絲粟之疑, 而其爲言也, 如倒囊出物, 借事於手, 而天下之至文在焉, 其實勝也. 漢世蒯通蕭何酈生陸賈游說之文也, 而宗戰國; 晁錯賈誼經濟之文也, 而宗申韓管晏; 司馬相如東方朔吾丘壽王譎諫之文也, 而宗楚詞; 董仲舒匡衡揚雄劉向說理之文也, 而宗六經; 司馬遷班固荀悅紀載之文也, 而宗春秋、左氏; 其詞與法可謂盛矣, 而華實相副, 猶爲近古, 至於今稱焉.” — 焦竑 撰, 李劍雄 點校, 《澹園集·與友人論文》, 北京: 中華書局, 2013, p. 93.

건을 다 꺼내놓고 물건을 집어낸 듯이, 손에 쥐고 있던 것에서 일을 취하듯, 그 어떤 부자연스러움이나 인위적 계기 따위가 개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초횡의 눈에 비친 옛글의 빼어남, 곧 기이함이었다. 초횡이 한대(漢代)의 문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던 원인도 시기적으로 춘추전국시대와 가까워서가 아니라, 한대의 문장이 춘추전국시대 글의 기이함을 잘 본받아 훌륭한 글의 명맥을 유지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초횡은 당대(唐代) 이후의 글에 대해서는 냉혹한 평가를 내린다. 그 평가는 다음과 같다.

唐代之 문장은 實이 法을 감당하지 못하고, 宋代의 문장은 法과 實이 詞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는 옛것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총괄해서 보면, 實은 아직 다 없어지지 않았다. 근자의 문장은, 저는 잘 모르나 저 문단을 쥐고 있는 자들은 도니 덕이니 사공이니 하지만 實은 훼손하고, 망령되어 문장을 짓고자 한다. 몸은 방에 머물면서 천하의 지도를 쫓아가며 바라보고, 집안은 몹시 가난한데 성대하게 차려진 고급스런 향연을 떠벌리며 말함이니, 비단 實이 들어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마음이 사이비한 것의 영향 아래 바야흐로 스스로도 명료하지 못하게 되니 또한 어찌 입과 손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겠는가.<sup>123)</sup>

초횡은 당대의 문장이 ‘실질[實]’보다 ‘격식[法]’에 더 치중하였고, 송대의 문장은 ‘격식’과 ‘실질’보다 ‘표현[詞]’에 더 치중하여 이전 시기의 문장보다 못하다고 평가했다. 여기서 ‘실질’은 내용을 가리킨다. 그리고 명대의 문장은 ‘실질’에서 더 벗어났는데, 이는 당시 문인들이 말로는 도, 덕, 사공을 운운하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실질을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명대에는 다양한 유파가 출현했지만, 그들이 창작에 있어서 공연히

123) “唐之文實不勝法，宋之文法實不勝詞，蓋去古遠矣，而總之實未漸盡也。近世之文吾不知之矣，彼其所有者道邪德邪事功邪，蔑其實而欲妄爲之詞，身居一室而指顧寰海之圖，家蓋屢空而侈談崇高之饗，非獨實不中窾，乃其中疑似影響，方不自快，又安能瞭然於口與手乎？”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與友人論文〉，北京：中華書局，2013，p. 93.



입으로 발하는 실질을 실제로는 갖추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당·송·명대로 올수록 더욱 심해져 자기 입으로 말한 도·덕·사공 등에 대한 이해조차 불명료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글에 실질이 구비되지 못해 ‘華實相副’하지 못하게 됐음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다.

초횡은 이러한 글들을 통해 자신이 주장하는 글쓰기의 전범이 옛것에 있음을 드러내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 초횡이 추구하는 글은 단순히 옛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옛글이 훌륭하게 된 원인이 구현된 글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초횡이 ‘성명(性命)’과 ‘사공’을 학문 연마의 근간으로 여기고,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 이를 체득한 상태로 글쓰기를 실천할 것을 주장한 대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명과 사공 모두를 체득한 바탕 위에서 글을 썼을 때 비로소 내용의 깊이가 확보되고, 그 내용에 부합되는 아름다운 수식이나 표현, 격식 등이 이루어져 ‘자연적인 기이함’을 빚낼 수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곧 이것이 초횡이 말하는 글에 ‘實’을 갖추는 길이었다.

당대의 한유가 글에 있어서 ‘奇辭奧旨’를 추구함에 고대 전적을 통해 문사와 도를 배울 것을 주장한 것처럼, 초횡 또한 같은 맥락에서 ‘성명’과 ‘사공’에 대해 체득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초횡은 맹자가 주장한 ‘지언양기(知言養氣)’를 바탕으로 조비, 유협, 종영, 한유 등의 문인들이 내세웠던 작가의 인격, 도덕적 수양을 문학과 연결시키는 문론<sup>124)</sup>을 계승하면서 그의 심학과 실

124) 작가의 도덕적 수양과 문학을 연결시키는 문론은 맹자의 ‘지언양기(知言養氣)’로부터 시작되었다. 작가의 기(氣)의 수양 정도가 말에 드러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론을 이어받아 위나라 조비(曹丕)는 <전론(典論)>에서 ‘문이기위주(文以氣爲主)’ 즉 ‘문기설(文氣說)’을 주장하였다. 즉 작가의 기질 및 기운이 작품의 품격이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 유협(劉勰)과 종영(鍾嶸)도 문기(文氣)에 관한 논하였다. 당대의 한유는 이에 근거하여 ‘氣成言宜’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기는 물이고, 말은 뜨는 물건이다. 물이 가득하면 물건 가운데 뜨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 뜨게 된다. 기는 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운이 풍성하면 말의 길고 짧은 것, 소리의 높고 낮은 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 마땅하게 된다[氣水也, 言浮物也. 水大而物之浮者大小畢浮. 氣之與言猶是也. 氣盛則言之長短與聲之高下者皆宜.]”라 하였다. — 이병한, 《중국 고전 시학의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참고.

학을 함께 중시하는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 옛것을 근거로 삼고, 그것을 추구함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한 ‘성명’과 ‘사공’은 초횡의 글쓰기 관련 논의에서 요체임을 알 수 있다.

‘성명’과 ‘사공’은 초횡의 논의에서는 서로 대(對)가 되는 개념이다. ‘성명’이란 말은 《장자(莊子)》 외편(外篇)과 잡편(雜篇)에 처음 실렸다. 이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서 만물 혹은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사공’은 현상을 가리킨다. 남송(南宋) 때 진량(陳亮), 섭적(葉適) 등을 중심으로 한 사공학과(事功學派)가 주희(朱熹)의 심성을 추구하는 형이상학적인 학문에 반대하며 사회, 정치적인 문제를 주요 관심사로 삼고, 실제적인 일을 실천할 것을 주장한 것처럼 사공은 본질·본체와 같은 형이상학적 존재와 대립적 관계에 놓인다고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초횡은 이 둘의 관계를 불가분한 관계로 인식하였다. 이는 초횡의 ‘성명’과 ‘사공’에 관한 논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성명’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내가 말한 性を 다하고 命에 이르는 것이란, 아래에서 배우지 않고 망령되이 위로 깨닫고자 함이 아니다. 배움에 있어서 위로 깨닫고자 바라는 것은 비유컨대 우물을 파서 샘에 도달하길 희망하는 것이다. 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물을 파서 무엇 하겠는가? 성명을 모르는데 배운들 어찌 쓰겠는가?<sup>125)</sup>

이 문장을 통해 초횡이 ‘성명’에 대한 깨달음을 학문의 근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진성지명(盡性至命)’은 ‘하학상달(下學上達)’하는 것임도 알 수 있다. ‘하학상달’이란 《논어(論語)》 <헌문(憲問)> 편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서 ‘下’는 정이(程頤)가 말했듯이 인생·세간의 온갖 일을 가리키고, ‘上達’은 위로 천리를 깨달음을 말한다. 초횡은 ‘진성지명’이 이러한 ‘상달’의 공부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다만 그는 ‘상달’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학’을 해야함도 동시에 분명히 하였다. 이처럼 초횡은 ‘성

125) “某所謂盡性至命，非舍下學而妄意上達也，學期於上達，譬掘井期於及泉也，泉之弗及，掘井何爲？性命之不知，學將安用？”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答耿師》，北京：中華書局，2013，p. 80.

명'을 단순히 형이상학적이고 도달하기 힘든 것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이를 실제적인 것과 매우 가깝게 여기고 실제적인 공부를 통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성명'을 깨닫는 과정을 우물을 파야 비로소 샘물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실제에 비유하며, 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 '성명'에 대한 깨달음을 끝까지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초횡이 형이상학적인 '성명'과 실제적인 '사공'의 관계에 대한 초횡의 인식은 그의 수사관(修辭觀)과도 연결된다. 초횡은 '성명'과 '사공' 모두에 대한 체득을 바탕으로 글을 지어야 내용에 부합되는 아름다운 수사가 저절로 생겨난다고 주장하였다.

내가 생각하는 군자의 학문이란 무릇 道를 깨닫는 것이다. 도를 깨닫게 되면 性命의 유심함과 事功의 곡절이 마음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바가 없는데, 어찌 이를 밖에서 찾는 것에 의지한단 말인가? 내가 명확히 드러나는 바를 가지고 서술하면 文(수사)은 그것으로부터 생겨난다. 따라서 성명과 사공은 그것의 실질이다……文은 文으로써 해나가면 즉 意에 두서가 없을 수 없고, 語에 호응이 없을 수 없으며, 格에 구조가 없을 수 없게 되니 이것이 詞와 法이다. 실질을 벗어난 것을 詞와 法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sup>126)</sup>

여기서 道를 깨닫는다는 것은 '성명'과 '사공'에 대한 체득의 결과를 의미한다. 즉 초횡은 '성명'과 '사공'에 모두 체득한 상태로 글을 쓰면, 인위적으로 수식을 가하지 않아도 내용에 저절로 부합되는 '수식[文]', '뜻[意]', '말[語]', '격식[格]'이 생겨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글쓰는 이가 '성명'과 '사공'을 체득해야 그것들이 '實'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작성된 문장이 바로 초횡이 추구하는 '자연적인 기이함'을 발하는 참된 글이고, 이러한 특징이 옛날 성현들의 글에 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횡은 옛것을 매우 중시하

126) “竊謂君子之學，凡以致道也，道致矣，而性命之深窅與事功之曲折，無不瞭然於中者，此豈待索之外哉？吾取其瞭然者而抒寫之，文從生焉。故性命事功，其實也……惟文以文之，則意不能無首尾，語不能無呼應，格不能無結構者，詞與法也。而不能離實以爲詞與法也。”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與友人論文〉，北京：中華書局，2013，pp. 92-93.

였던 것이다.

그런데 옛것을 중시하는 초횡의 태도는 당시 복고파의 복고주의와 확연히 구분된다. 복고파는 진한(秦漢)의 고문과 이백과 두보의 시를 이상으로 하고, 시의 격조를 중시하며 문단을 주도하였으나 지나친 모방과 표절로 인해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반면 초횡이 옛것에서 추구하는 것은 절대 걸으로 구현된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모방이 아니다. 초횡은 훌륭한 글에는 반드시 근원이 있으며, 그 근원이 바로 옛것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다음의 문장에 드러나 있다.

무릇 詞는 문장에서 가장 시급해야 할 바가 아니다. 옛적의 詞는 서로 베끼는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았다. 《서경》은 《역경》의 문채를 빌려 쓰지 않았고, 《시경》은 《춘추》에서 길을 빌리지 않았다. 司馬遷, 班固, 韓愈, 柳宗元의 경우도 근본이 없을 수 없으니, 이는 돌아보면 꽃이 꿀에 있어서, 약이 술에 있어서처럼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각각 꿀과 술에 의지하여 배태될 수밖에 없지만, 오래된 형체를 벗어 던져버리고 스스로 靈采를 드러내어 차있던 것은 비우게 하고 죽은 것은 살게 하며 냄새나고 썩은 것은 신비하고 기이하게 만들어 냈음이다.<sup>127)</sup>

고대의 글이 훌륭한 이유는 바로 베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베끼는 것이 무조건 불필요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 적어도 두 차원에서 모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하나는 약이 술에 기대어 제조되듯이 배태의 단계, 즉 글을 막 익히고 연마하는 단계에서는 모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글’을 써야 하는 단계에 이르기 위한 준비일 뿐이다. 자신만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모방해온 글을 과감히 버리고 ‘자기’, 곧 ‘개성’을 드러내야 한다. 초횡은 이를 ‘靈’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이 밝히 드러난 상태를 ‘靈采’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개성이 영롱하게 드러나게 되면, 예전에

127) “夫詞非文之急也，而古之詞又不以相襲爲美，書不借采於易，詩非假塗於春秋也，至於馬班韓柳，乃不能無本祖，顧如花蜜，藥在酒，始也，不能不藉二物以胎之，而脫棄陳骸，自標靈采，實者虛之，死者活之，臭腐者神奇之。”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與友人論文》，北京：中華書局，2013，p. 93.

이미 다루어졌던 주제나 소재, 표현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르게, 심지어는 정반대로 거듭나게 할 수 있게 된다. 초횡은 사마천, 반고, 한유, 유종원이 바로 그렇게 행한 이들이었다고 꼽았다. 그래서 그들은 대대로 문장의 전범으로 추앙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글은 그 이전 시대의 글, 곧《시경》이나 《서경》, 《역경》, 《춘추》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사마천과 반고는 오경 등 선진시기의 전적을 주되게 참고하였고, 한유와 유종원은 스스로의 글을 古文이라 칭한 데서도 목도된다. 곧 이들도 자기보다 앞선 시대에 나온 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것이다. 초횡도 이를 전제하고 있었다. 그도 사마천 등이 자기보다 앞선 시대의 글을 모방했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초횡은 모방의 대상이 옛사람의 글 자체였다고 보지 않았다. 그들이 베낀 것은 그것이 아닌, 《서경》이 《역경》에서 가져다 쓰지 않고, 《시경》이 《춘추》와 다른 길로 갔듯이, “자기 길을 개척해가는” 태도를 모방했다고 보았다. 이것이 초횡이 제시한 또 다른 차원에서의 모방 필요성이다. 달리 말해 옛것의 외양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 옛것이 훌륭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찾아 배우고, 자기만의 개성이 담긴 글을 썼기에 그들의 글이 시대를 가로질러 전범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초횡은 후대 사람들이 글에 있어서 옛것을 근원으로 삼아, 그것을 지금에 맞게 변통하여 자신만의 풍격을 갖추면 옛것과 마찬가지로 훌륭할 수 있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이처럼 초횡에게서의 ‘古’는 ‘옛날에 있었던 것’ 그 실체가 아니라, 그것을 전범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시경》 등이 전범인 까닭은 그것이 단지 옛날에 산생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고, 그 결과 자기만의 개성, 곧 ‘靈’을 밝히 드러냈기에 본받을만하다는 관점이다. 곧 초횡이 모방 대상으로 삼은 ‘古’는 단지 옛것이 아니라 ‘靈’을 머금고 있는 ‘古’이며, 그렇기에 본받을 만한 전범이 된 ‘古’이다. 이렇게 초횡은 시간 차원에서의 ‘古’가 아니라 가치 차원에서의 ‘古’를 모방 대상으로 제시했다. 초횡은 ‘古’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古’와 ‘今’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무릇 학문하면서 經世를 모르면 학문이 아니다. 經世를 하면서 옛것을 고찰하여 時變에 합당하게 할 줄 모르면 經世가 아니다.<sup>128)</sup>

옛것을 배우되, 지금에 맞게 변통할 줄 아는 것을 학문의 요체로 본 것이다. 이를 통해 초횡이 ‘古’를 학문의 원천으로 여기지만, 절대 ‘今’을 천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초횡은 ‘古’를 중시하면서도 이를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것으로 보지 않고, 지금 사람들도 ‘道’를 통해 꾸준히 수양하면 충분히 도달 가능한 경지로 인식하였다.

나의 스승이 참으로 즐긴 바는 본디 道와 합치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내딛게 되면 옛날 사람들의 아름다운 경지도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아정한 격식을 한두 명의 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 곱을 감상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sup>129)</sup>

여기서 초횡은 스승께서 참되게 즐긴 바를 道라고 함은 스승이 이미 높은 경지에 도달해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을 더 내딛는다는 것은 이미 도달한 높은 경지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노력한다는 뜻이다. 초횡은 스승이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백척간두에서 한걸음 더 내딛듯 노력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古人’에 견줄 만큼 뛰어난 성과를 이루었음을 말하였다. 지금의 문인들 또한 道와 합치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그 빼어난 바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古’를 ‘道’를 매개로 ‘今’에 서로 구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考古以合變”의 실체가 바로 이것인 셈이다. 초횡은 古人의 빼어난 바를 구현함은 문체와 무관하다고 보았다. 심지어 실용적인 문체일지라도 고인의 빼어남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고인의 빼어남 구현의 관건은 문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바에 있다는 뜻이다.

편지의 체제는 적다고 여겨지는데 그 쓰임은 큼니다. 보내주신 글을 자세히 살펴보니 간단한 말 사이에 文義가 섞여 있는 것이 마치 동글부채와 짧은

---

128) “夫學不知經世，非學也；經世而不知考古以合變，非經世也。”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荊川先生右編序》，北京：中華書局，2013，p. 141.

129) “吾師真恬愉，本與道合，繇此竿頭進步，古人佳處，知不難到也。雅製以示一二識者，靡不賞音。”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答沈座師》，北京：中華書局，2013，p. 100.

병풍에 만리의 형세가 안온하게 담겨있는 것과 같아 진실로 李營丘만큼 화려합니다. 그대의 재주는 절로 옛사람들의 아름다운 바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sup>130)</sup>

여기서 “만리의 형세가 안온하게 담겨있다”는 것은 내용이 사뭇 풍부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글의 뜻이 섞여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문장을 등글부채와 짧은 병풍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형식이 간단하지만, 함축적이고 풍부한 뜻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간소해 보이지만 내용의 깊이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높은 기세가 느껴지고, 또 이전 시대 사람의 경지에 견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초형은 이렇게 풍부한 내용이 바탕이 되고, 그 쓰임이 크면 古人의 빼어남은 실용적인 문체로도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편지글 같은 실용적인 문체도 내용에 따라 그 쓰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초형은 지금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의 빼어남에 도달하기 위해서 옛것을 배우고 체득하여 변통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문체에 상관없이 풍요로운 내용과 큰 쓰임을 담은 글의 창작을 그것의 구체적 실례로 제시했다. 한편 초형은 글이 풍부한 내용과 큰 쓰임을 갖출 수 있는 방도도 제시했다.

그 문장의 조리는 넓고 일관되고, 事理의 서술은 전아하고 유창하며, 經疑에서는 숨겨진 뜻을 입증했고, 語類에서는 기이한 바를 모아놓았다. 역대의 실전된 글을 모으고, 천년동안 남겨진 시부를 채집하여 만물을 문득 제압하고, 천하를 움켜쥐었으니 공전의 큰 인재가 아니라면 누가 이것과 함께할 수 있겠는가.<sup>131)</sup>

130) “尺牘在諸體爲小，而其用則大，究觀來刻，片語間，文義錯綜如團扇短屏，居然有萬里之勢，眞李營丘華也，以足下之材美，自可到古人佳處。”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答丁以舒》，北京：中華書局，2013，p. 125.

131) “夫其文理貫綜，敍致雅暢，經疑證隱，語類摻奇，收百代之闕文，采千載之遺韻，頓挫萬彙，囊括九圍，非曠代之通材孰與於此。”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與陳晦伯》，北京：中華書局，2013，p. 109.



문장의 조리가 막힘이 없이 두루 포괄할 수 있고, 사리의 서술이 격조있고 순통하도록 글을 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전된 글을 찾아낼 정도로 독서를 널리 그리고 치열하게 하여 천하의 만물과 사건을 장악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것을 널리 익히고 이를 체화하는 과정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음악을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옛것을 받들고, 소리를 내는 운지법을 익힌 후 악보로 돌아가 의지한다. 여기에 훌륭한 스승을 얻어 가르침을 받으면 성취를 이루어 伯牙와 맞닿게 된다.<sup>132)</sup>

이는 초횡이 소식(蘇軾)의 문학적 성취를 평가한 것으로서 문인으로서 뛰어난 경지에 오르는 과정을 음악에 비유한 것이다. 먼저 옛것을 믿고 따라 그 근원을 찾아 배우고, 본인이 연주법을 익혀 악기를 직접 다룰 수 있듯이 옛것을 직접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스승을 찾아 훌륭한 가르침까지 받으면 옛날 거문고의 명수인 백아(伯牙)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초횡의 고금관은 고금을 이러한 性과 靈과 연관시켜 논의함으로써 고금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펼쳐냈다. 다음 문장에서 초횡이 古와 性을 어떻게 연동시켰는지 살펴본다.

옛날 어진 선비들의 詠歎과 그리움에 빠진 부인들의 슬픈 읊조림은 시가 되지 않음이 없었다. 감정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말로써 그것을 이끌어 소위 詩言志라 하였다. 후세에 글을 짓는 자들은 이러한 본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인위적인 것에 기탁 하였는데, 잠깐의 명성을 다툼으로써 결국 詩道는 날로 희미해졌다. 내가 한, 위부터 육조까지 작가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마음속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말할 수 있는 자는 阮籍, 左思, 張景陽, 陶靖節 네 명뿐이다.<sup>133)</sup>

132) “譬之嗜音者必尊信古始，尋聲布爪，唯譜之歸，而又得碩師焉以指授之乃成，連於伯牙。”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刻蘇長公集序》，北京：中華書局，2013，pp. 142-143.

133) “古者賢士之詠歎，思婦之悲吟，莫不爲詩，情動於中而言以導之，所謂詩言志也。後世

초형은 시의 전통적인 개념인 ‘詩言志’를 언급하면서 시는 반드시 마음에서 감정이 일어나 말로써 표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초형은 이를 시의 본성으로 인식하였고, 지금의 문인들이 이러한 본성에서 벗어나 詩道가 희미해진 상황에 대해 비판하였다. 지금의 문인들이 본성을 따르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나 옛것의 형식적인 부분만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인위에 기탁하여 시를 지으며 명성에만 힘쓰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초형이 한, 위, 육조의 수많은 작가 중에 阮籍, 左思, 張景陽, 陶靖節 네 사람만을 꼽은 사실을 통해 초형이 옛것을 전범으로 삼고 있지만, 단지 옛것이어서가 아니라 글쓴이 자신이 느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점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즉 古詩가 훌륭할 수 있었던 원인은 글쓴이가 이러한 시의 본성을 잘 따랐기 때문이고, 지금의 문인들이 古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古가 훌륭하게 된 까닭인 性을 본받는 것이다.

이에 관한 견해는 다음 문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굴원은.....쫓겨나자마자 《離騷》를 지었고, 그 충절과 격분의 감정이 절실하여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후세에서는 그것을 楚辭라 불렀으며 읊을 때마다 원망하는 시를 지으면 모두 그것에 속하게 하였다. 심지어는 감정이 울적하고 분하지 않은데도 이를 수단으로 이용하여 명예를 얻으려 하였다. 예를 들어 《七諫》과 《九懷》<sup>134)</sup> 같은 부류는 종류와 엄숙함, 격한 것이 일치하는데, 대개 근심 없이 읊어냈기 때문에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sup>135)</sup>

---

摘詞者，離其性而自托於人偽，以爭須臾之譽，於是詩道日微。余觀漢魏以逮六朝，作者蠅起，能道其中之所欲言者，阮步兵、左太冲、張景陽、陶靖節四人而已。” — 焦竑撰，李劍雄點校，《澹園集·陶靖節先生集序》，北京：中華書局，2013，p. 169.

134) 후대 사람들이 굴원의 작품과 함께 굴원을 위해 지은 작품들을 《楚辭(초사)》에 수록하였는데, 동방삭(東方朔)의 《칠간(七諫)》과 왕포(王褒)의 《구회(九懷)》가 그것에 속한다.

135) “屈平者……一放而爲離騷，繇其忠憤感切，不得已而出此，後世輒名之楚詞，而爲怨詩者咸歸之，甚者情匪鬱伊而嚮聲釣世，如七諫九懷之流，類矜激乎一致，蓋無疾而呻吟，非其質矣。” — 焦竑撰，李劍雄點校，《澹園集·南遊草序》，北京：中華書局，2013，p. 174.

굴원의 《이소》는 후세의 원망하는 시와 명확하게 구분된다. 굴원은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울적함, 분함 같은 깊은 감정을 부득이하게 쏟아낸 것이지만 인위적인 활동의 소산이 아니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소》는 후세의 문인들로부터 훌륭한 시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후세의 문인들이 그 시를 추구함에 시의 본질이 되는 진실한 감정을 본받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와 상관없이 원망하는 시를 지었기 때문에 《이소》에 담긴 억울함 또는 구구절절함이 담겨있지 않은 것이다. 초횡의 이러한 견해를 통해 문인들이 古를 배움에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하였다.

또한 초횡은 이러한 시의 본성을 본받아 지금의 작가들도 古의 훌륭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작가들이 자신의 진실한 감정, 개성[靈]을 드러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견해는 명대의 문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君의 시문은 의경이 넘치며, 그 뜻으로 인한 감흥이 도달하는 바가 미더우며, 성률이 합치되지 않으면 일찍이 그것을 바로잡았다. 근래에 지은 작품은 청초하고 간이하면서도 깊으며, 모두 법도에 들어맞고 뿌리는 고대에 있음이 마치 준마가 치달리는데 鑾和로 조절하고, 五輅를 몰아감에 大道를 행하는 것과 같으니, 성대한 모습은 다른 말들이 이를 수 없을 따름이다.<sup>136)</sup>

이 글에서 초횡은 축세록(祝世祿)의 시문에 대해 평가하였다. 시문에 의경이 잘 구현된 까닭은 글쓴이가 자신의 ‘靈’을 잘 드러냈기 때문이다. 또한 성률의 형식미도 함께 추구했는데, 분명한 것은 진실한 감정의 표현을 더욱 중시했다는 것이다. 성률을 우선시하면 솔직한 표현에 제약을 받기 쉬우므로 감정의 표현을 우선시하여 그 뜻을 드러낸 후, 형식을 바로 잡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작품에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발현되고 법도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초횡이 이러한 시에 대해 뿌리가 고대에 있다고 평가를 내린 이

136) “君詩筆淋漓，信其意興所到，而聲律或有不合，向嘗規之。近作清峭簡遠，往往中於法度，而根柢前古，如騏驎之奔佚，節之鑾和，以駕五輅，而行大道，沛然非群馬所能及已。友人陳少明刻君詩，傳同好，余謬爲序，以倡於簡端。”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環碧齋稿敘》，北京：中華書局，2013. p. 159

유는 앞에서 말한 古가 훌륭하게 된 바, 즉 자신의 감정[靈]을 밝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초형의 이러한 관점은 명대의 문인인 팽로(彭輅)의 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일이 없는 사이에 낭관들과 자주 鐘山을 바라보고, 玄武湖를 내려다보고 배회하며 읊은 시가 날이 갈수록 많아졌다. 이는 웅당 당시 선생의 아름다운 풍격과 문체가 강산과 서로 상응하여 발현된 것으로, 그것을 본 사람은 고인이 다시 일어난 것처럼 느꼈다……의기가 높고 간단하며 세속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크게 벗어났다. 지금 그 시집을 읽어보니 아름다움이 충만하고, 탁월하여 스스로 일가를 이루어냈다. 실제로 뛰어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sup>137)</sup>

글쓴이는 다양한 계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데, 팽로는 대체로 자연에 감응하여 촉발된 감정을 시에 발현하였다. 직접 보고 느낀 바를 그대로 읊어내어 자신만의 풍격을 이루었기 때문에 초형이 그를 옛날 시인의 경지에 견준 것이다. 이처럼 세속의 풍조에 따라 시를 창작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체화하여 본인만의 靈이 담긴 아름다운 작품을 창작할 줄 안다는 것은 그가 ‘古人’이 실천했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태도를 올바르게 본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초형의 이러한 견해들을 보면, 古나 今에 있어서 모두 작가의 진실한 감정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초형은 글쓴이가 단지 진실한 감정을 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시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시는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성령이 깃드는 바이다. 진실로 느낀 바가 지극하지 않으면, 정이 깊지 못하고, 마음을 흔들고 혼을 놀래키지 못하며, 세상

137) “益以無事間合諸郎官眺鍾陵，俯玄武湖，徘徊嘯詠，篇什日富。當是時先生風華文采與江山相映發，見者以爲古人復興……意氣高簡，不少貶以就俗。今讀其集，沖融婉秀，卓然自名其家，非實有過人者不能。”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彭比部集序》，北京：中華書局，2013，p. 163.

에 전해져 멀리 갈 수 없다.<sup>138)</sup>

초횡은 시는 곧 인간의 성령이 깃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성령’은 인간의 ‘감정’을 뜻하는 말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앞서 확인했듯이 초횡이 굴원의 《이소》를 높이 평가한 이유는 작가가 단지 불평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출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의 시에는 구구절절한 ‘깊은 감정’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독자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소》는 비록 시기는 조금 늦었지만, 후대 사람들의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세상에 오랫동안 전해질 수 있었다. 이에 초횡은 깊은 감정을 시로 잘 승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작가의 수양을 제시하였다. 그 수양은 ‘성명’과 ‘사공’에 대한 체득, 즉 ‘도’와 합치되기 위한 노력이다. ‘도’와 합치되어 높은 경지에 이르면, 시 또한 자연히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는 고대의 경전에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초횡은 경전의 학습을 매우 중시했다. 다음 문장을 통해 경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莊周가 말하길, “시으로써 性情을 말한다.”라 하였다. 대체로 성령을 깊이 깨닫고, 권유하여 잘못을 바로잡으니 하나에 힘쓰면 바름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평화롭고 온후하며, 함축적이면서 남는 정이 있다. 그래서 말에는 죄가 없으며, 그것을 들으면 족히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 후세의 시는 性에서 떨어져 있고, 물결이 구름이 모여 있는 곳으로 사라진 듯하며, 다만 유람의 자료로 여기고, 육경의 뜻은 희미해졌다.<sup>139)</sup>

여기서도 초횡이 시의 본성을 ‘시언지(詩言志)’로 인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

138) “詩非他，人之性靈之所寄也。苟其感不至，則情不深，情不深，則無以驚心而動魄，垂世而行遠。”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雅娛閣集序〉，北京：中華書局，2013，p. 155.

139) “蒙莊有言，詩以道性情。蓋以洞達性靈，而勸諭箴砭，以壹歸於正，即其懇款切至，要必和平溫厚，婉委而有餘情。故言之無罪，聞之足以戒也。後世詩與性離，波委雲屬，祇以爲流連之資，而六藝之義微。杜子美力挽其衰，閔事憂時，動關國體，世推詩人之冠冕，良非虛語。樂天雖晚出，而諷諭諸篇，直與之相上下，非近代詞人比也。”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續集·題寄心集〉，北京：中華書局，2013，p. 911.

다. 수양을 통해 성령을 깊이 깨닫는 데 힘써 자기의 뜻을 드러낼 줄 알게 되면 시의 본성을 자연히 터득하고, ‘古詩’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지만, 후세의 문인들이 그 전통을 이어받지 못하고 경전 공부에 힘쓰지 않아 지금의 시가 옛날의 시만큼 훌륭하지 못하다고 말하였다. 초형은 이러한 폐단을 인식하며 글쓴이가 시를 창작함에 반드시 경전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밝혔다. 그래서 초형은 지금의 문인들이 경전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 그 시의 형식미 같은 예술적 표현이 고대의 문인들만큼 뛰어나지 못해도 그 사람의 시를 인정하였다. 진제에 대한 초형의 평가가 그러하다.

陳第는 五經에 통달하였고 특히 시경과 역경에 뛰어났는데, 伏羲圖贊과 毛詩古音을 보면 대체로 살펴볼 수 있다. 그가 시를 지음에 시인의 뜻이 아닌 것이 없고, 말에 실제로 행한 것이 없으면 붓에서 쓰여지지 않았다. 쇠퇴한 시대의 폐단을 고치고, 세속의 병으로부터 일으키니 대체로 마음을 깊게 쓴 것이다. 그 온후함과 아정함은 만물을 감화시키고 세태에 감개하며 원망하는 모습이 없으니 이는 두보, 백거이와 무엇이 다른가? 독자들은 그 뜻으로써 그것을 구하여 근래의 악습에서 벗어나고 시경의 모양새를 되찾기를 바란다.<sup>140)</sup>

초형은 진제를 평가함에 시의 예술적 성취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다. 초형은 그 시가 경학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진제가 옛날 시인들의 뜻에 통달하고, 전통적인 시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초형은 이를 통해 당시 문인들이 《시경》의 전통, 시의 본성을 잊어버리고 기이하고 화려함만 추구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며 옛것을 통한 학습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즉 ‘古’를 통해 지금의 문인들은 시의 본성을 되찾을 뿐 아니라, 그 시에

140) “一齋陳子通五經，尤長於詩、易，觀其伏羲圖贊、毛詩古音，概可見已。其爲詩，無非風人之遺意，言非有爲，不發於筆端。砭季代之膏肓，而起流俗之廢疾，蓋三致意焉。其溫厚爾雅，動物感時，而無所容懟，此與子美、樂天何異？讀者以此求之，庶可脫近習而還三百之舊觀。若與時輩同類而共觀之，非所以論一齋子矣。”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續集·題寄心集》，北京：中華書局，2013，p. 911.



담긴 문인들의 ‘도’를 체득해야 비로소 자신의 깊고 진실한 감정을 작품에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초횡의 고금관을 각각 性과 靈을 통해 살펴본 결과, ‘작가의 진실한 감정’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공안파가 주장하는 ‘성령’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공안파가 지금 문인들의 솔직한 감정 표현을 중시한 반면, 초횡은 작가의 단순한 감정이 아닌 ‘道’의 체득을 바탕으로 한 깊은 감정을 주장하였고, 이는 ‘古’를 통한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문학사에서는 대부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초횡이 주장하는 ‘성령’이 단순히 공안파의 ‘성령’과 같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그 근거는 당시의 문단 상황과 공안파의 ‘성령’을 함께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명대에 복고파가 출현하여 “문(文)은 반드시 진한(秦漢)을 따르고, 시(詩)는 반드시 성당(盛唐)을 따라야 한다.[文必秦漢, 詩必盛唐]”고 주장하며 시단(詩壇)이 복고주의로 물들고, 형식적인 것에 치중하는 풍조가 만연했다. 이에 복고파에 반대하는 공안파가 출현하여 ‘성령설’을 내세우고, 작가의 개성적인 표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문학사에서는 대체로 초횡을 공안파에 속하는 인물로 서술하였는데, 이는 공안파의 핵심 인물인 ‘삼원’은 그들보다 윗세대인 이지와 초횡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이유로 공안파의 주장이 이지나 초횡의 주장과 비슷할 것이라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초횡이 삼교합일 사상을 받아들였고, 초횡의 권유로 이지와 만난 원종도와 원평도가 이지로부터 ‘성명지학(性命之學)’의 체계를 완전히 터득<sup>141)</sup>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이 일치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또한 초횡이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응당 옛날 사람들의 허수아비[芻狗]를 모두 버려야 하며, 자신의 흥중으로부터 한 조각 세계를 열어젖혀야 비로소 참됨을 이루고 받아 쓰이게 되는데, 어찌 죽은 사람의 발밑에 이르고자 하는가.<sup>142)</sup>”라고 말한

141) 이들은 자신들의 성명지학에 대해 “자신의 내적 성찰을 우선시하고,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않는 것이다. 이는 유가와 불가를 다 포용하는 것으로서 삼교의 가르침을 좋고 나쁨[好惡]의 구분이 없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142) “學道者當盡掃古人之芻狗，從自己胸中辟取一片乾坤，方成真受用，何至甘心死人脚下。”— 焦竑 撰，李劍雄 點校，《焦氏筆乘續集·支談上》，北京：中華書局，2008，p. 287.



부분은 원평도의 ‘성령설’과 유사하다.

그런데 필자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초횡과 공안파가 비슷한 요소를 지닌 것은 맞지만 공안파의 문학 주장이 초횡의 문학 주장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초횡의 고금에 대한 인식과 함께 살펴보았는데, 초횡의 ‘성령’은 공안파의 ‘성령’과 구분될 뿐 아니라, 초횡의 ‘성령’은 ‘성’과 ‘령’의 융합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본래 ‘성령(性靈)’의 사전적 의미는 정신[情神],性情(性情), 정감(情感) 등이다. 그런데 문학사에서 공안파가 “오직 성령만을 서술하고, 일정한 격식에 구애받지 않으며, 자신의 흥중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면 붓을 들지 않는다<sup>143)</sup>”라는 성령설을 주장한 사실에 근거하여 공안파의 ‘성령설’을 대부분 개성에 대한 중시, 개성적인 글쓰기, 개성적인 문학의 추구로 서술하였다.<sup>144)</sup> 즉 초횡의 ‘성령’은 공안파의 ‘성령’을 포함하고 있지만, 훨씬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초횡이 작가 자신의 감정이나 진솔한 표현만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옛것에 대한 학습과 작가의 수양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하면 초횡이 주장한 바는 즉 각각 古와 今에 바탕을 둔 ‘性’과 ‘靈’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초횡이 ‘성령’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본인이 직접 이러한 주장을 펼친 것은 아니지만, 초횡이 글의 ‘기이함’을 주장하면서 작가의 수양을 중시한 사실과 ‘古今’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면 ‘성’과 ‘령’을 분리될 수밖에 없다. 초횡의 이러한 인식은 공안파가 주장한 ‘성령’과 차이가 매우 크므로 초횡은 단순한 ‘성령’이 아닌, ‘성’과 ‘령’의 융합을 추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 전통을 매우 중시한 초횡과 달리 공안파 문인들은 갈수록 반전통적인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초횡의 문학적 주장에 공안파와 비슷한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초횡을 공안파에 귀속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143) “獨抒性靈，不拘格套，非從自己胸臆流出，不肯下筆。” — 袁宏道, 《袁中郎全集·叙小修詩》，臺北：世界書局，1990, p. 5.

144) “원종도(袁宗道, 1560~1600), 원평도(袁宏道, 1568~1610), 원중도(袁中道, 1570~1623) 삼형제가 나와 의고주의적인 당시의 문학풍조를 반대하고 개성적인 문학창작을 주장하여 ‘공안파’라 불리게 되었다.” — 김학주, 《중국문학사》，서울：신아사，2011, p. 405.

결론적으로 초형의 기이관과 고금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글 전반에 대한 초형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초형의 시론을 살펴보려고 한다.

### 제 3 장 序跋文에 드러난 초횡의 시관

현재까지 초횡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들 가운데 초횡의 시관에 관한 논의는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다. 백정(白靜)이 《초횡사상연구(焦竑思想研究)》에서 초횡의 불교시학관에 관해 논의하였지만 초횡의 시관을 재구성하기에는 부족하다. 초횡이 삼교합일을 주장했기 때문에 작품에 불교적인 색채가 드러날 수 있지만, 초횡의 시관이 불학사상을 위주로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로 서발문에 드러난 초횡의 시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그의 시관은 기본적으로 유가의 전통적인 시관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초횡의 시관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그의 유불사상을 검토하였다. 초횡이 삼교합일을 주장했기 때문에 생전에도 사람들이 그의 관점을 이해함에 종종 오해가 발생하였다. 초횡은 이에 대해 “송대의 유학자인 주돈이, 정호, 소옹, 육구연은 모두 도에 체득하여 제가 심히 탄복하는 바입니다. 정이, 주희는 ‘性’을 따르지 않고, ‘돈오(頓悟)’를 본받아 형체가 비슷한 것에 의지한 것을 훌륭하다고 여기는데, 이는 즉 공자와 맹자가 귀의처로 삼은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sup>145)</sup>”라 하였다. 초횡은 계속해서 돈오가 아닌 꾸준한 하학(下學)을 통한 상달(上達)을 주장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견해를 불교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오해하는 것에 대해 “불교는 비록 그 뜻이 늦게 나왔지만, 요, 순, 주공, 공자와 다를 바가 없으며, 그 뜻은 대부분 유가 경전에 갖추어져 있다<sup>146)</sup>”라고 해명하였다.

그리고 용소영(龍曉英)은 <초횡연구(焦竑研究)>에서 초횡이 선종(禪宗)과 관련하여 돈오를 추구하다가 나중에 “이치는 반드시 돈오로 깨닫고, 일은 점수로 한다[理須頓悟, 事則漸修]”라는 돈오와 점오를 함께 추구하는 관점으

---

145) “宋儒如周元公、程伯子、邵堯夫、陸子靜諸公，皆於道有得，僕所深服。至伊川、晦庵之學，不從性宗悟入，而以依倣形似爲工，則未得孔孟爲之依歸故耳。”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答錢侍御》，北京：中華書局，2013，p. 84.

146) “佛雖晚出其旨與堯舜周孔無以異者，其大都儒書具之矣。”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又答耿師》，北京：中華書局，2013，p. 81.

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러한 설명에는 오류가 있다. 앞서 초횡의 기이관을 살펴보면 초횡이 ‘성명’과 ‘사공’을 함께 추구했음을 확인하였다. 즉 초횡은 형이상학적인 학문을 깨닫는 데 있어서 항상 ‘사공’에 해당하는 실천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한 것임으로 그가 처음에 돈오만을 주장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초횡이 이치를 깨닫는 데 있어서 강조한 본말론적 구조의 견해는 유교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서, 초횡은 즉 유교에 바탕을 둔 상태에서 유불의 조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시와 관련된 초횡의 논의들을 살펴봤을 때, 유교의 전통적인 시관이 드러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이미 확인했듯이 초횡은 ‘古’와 함께 ‘今’도 중시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전통 시관을 계승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키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 제 1 절 傳統詩敎論의 계승

《시경》은 중국 최초의 시가집으로서 중국의 문학, 문화 및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시경》의 가장 큰 특징은 풍부한 내용과 감정을 바탕으로 하며, 인간의 성정을 함양하고 나아가 정치, 사회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근본으로써 활용된다는 점이다. 《예기·경해(禮記·經海)》에 따르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가르침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됄됨이를 온유돈후하게 만드는 것이 시의 가르침이다”<sup>147)</sup>라 하였는데, 바로 이 관점이 유가의 시교설(詩敎說)에 대한 기본 인식이다. 《논어》에서 “시 삼백 편을 다 외워도 임무를 맡았을 때 이루지 못하고, 사신이 되어 사방으로 나가서 단독으로 응대하지 못한다면 비록 시를 많이 외웠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sup>148)</sup>라고 하였다. 즉 유가에서 시는 반드시

147) “孔子曰，入其國，其敎可知也，其爲人也溫柔敦厚，詩敎也。” — 李學勤 主編，〈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整理，〈十三經注疏·禮記正義〉，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9，p. 1368.

148) “誦詩三百，授之以政不達，使於四方，不能專對，雖多亦奚以爲。” — 李學勤 主編，〈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整理，〈十三經注疏·論語注疏〉，北京：北京大學出版

시 개인의 수양은 물론 정치적 도구로써 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초횡은 이러한 전통적인 시교론을 긍정하였다. 그는 다음 문장에서 《모시서》의 해설을 인용하여 시교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옛날의 학자들은 시경을 읊었고, 마침내 사방에 사신으로 나갔다. 출행하는 사람은 천자가 四牡<sup>149)</sup>를 지어 그들을 위로하고, 돌아와서는 보고하며 채집한 시를 조정에 바쳤는데, 太史는 그 시속을 기록함으로써 권하고 경계할 바를 갖추었다. 그래서 말하길, “조정의 사관은 득실의 흔적을 밝히고, 인륜의 변화를 안타까워하고, 刑政의 가혹함을 슬퍼하였고, 情性을 읊조림으로써 윗사람을 풍자하고, 일의 변화에 깨닫고는 옛날의 풍습을 그리워하니 시의 쓰임이다.”라 하였다. 제후들이 시를 바치지 않고, 천자가 풍요를 채집하지 않고, 악관들이 雅와 頌을 깨닫지 못하고, 사관들이 변한 세상에 밝지 않은 이래로 시교가 사라졌다. 그래서 文中子<sup>150)</sup>는 일찍이 이에 크게 탄식하였다.<sup>151)</sup>

초횡은 이 글을 통해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경》을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이란 사실을 밝히며, 《시경》의 쓰임에 대해 말하였다. 옛날 사신

---

社, 1999, p. 196.

149) 四牡(사모):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다. 원래 소아(小雅)의 사모(四牡)는 녹명(鹿鳴)·황황자화(皇皇者華)와 함께 임금이 여러 신하와 귀한 손님에게 잔치를 베풀고 사신(使臣)을 송영(送迎)하는데 쓰인 악가(樂歌)였는데, 그 후에 연례(燕禮)와 향음주(鄉飲酒)에서 쓰였다.

150) 文中子(문중자): 왕통(王通)을 가리킨다. 당나라 왕발(王勃)의 조부이며, 자는 중엄(仲淹)이고, 호는 문중자(文中子)이다. 수(隋)나라의 교육가, 사상가이다. 어려서부터 《삼자경(三字經)》, 《오경(五經)》 등을 읽었고, 도가의 노장(老莊)사상에도 능통하였으며, 시(詩)·서(書)·예(禮)·역(易)에 통달하였다. 유학(儒學)을 깊이 이해하였고, 강학에 힘썼다.

151) “古之學者，誦詩三百，乃使於四方。行者，天子賦四牡以勞之；其還報也，采詩以獻於朝，而太史錄其時世，以備勸戒，故曰：國史明乎得失之迹，傷人倫之變，哀刑政之苛，吟詠情性以諷其上，達於事變而懷其舊俗，詩之用也。自諸侯不貢詩，天子不采風，樂官不達雅、頌，國史不明變世，降而詩教亡。文中子嘗三嘆於斯矣。” — 焦竑 撰，李劍雄點校，《澹園續集·使楚集序》，北京：中華書局，2013，pp. 773-774.

들은 사방으로 나가 그곳의 시속을 알 수 있는 적절한 시들을 채집하고, 조정에 복귀해서 천자한테 이를 보고하였다. 또 사관들은 보고받은 시들을 기록하고, 이를 기록함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데 경계 거리로 삼았다. 이는 바로 《시경》의 풍유의 작용을 언급한 것으로서 초횡은 그 쓰임을 긍정한 것이다.

《시경》의 풍(風)에 대한 《모시서(毛詩序)》의 해설을 더 살펴보면, “풍이란 풍자, 교화이다. 풍자하여 움직이게 하고, 가르쳐 감화시킨다……세상이 잘 다스려질 때의 음악은 평안하고 즐거우니 그 정치가 화평하고, 난세의 음악은 원망스럽고 노여우니 그 정치가 어그러진다. 망국의 음악은 슬프면서 생각에 잠기게 하니 그 백성들이 곤궁하다. 따라서 득실을 바로잡고, 천지를 움직이고, 귀신을 감동시키는 데는 시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선왕들은 이것으로써 부부를 다스리고, 효도와 공경을 이루었으며, 인륜을 도탑게 하고, 풍속을 개선하였다……윗사람은 풍유로써 아랫사람을 교화하고, 아랫사람은 풍유로써 윗사람을 풍자하였는데, 문사로써 완곡하게 간하니 말하는 자는 죄가 없고, 듣는 자도 족히 경계할 수 있다.”<sup>152)</sup>라 하였다.

그리고 초횡은 이러한 시교의 작용이 사라진 세상을 지적하면서 문중자를 통해 명대 시풍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은근히 드러낸 것이다.

당시 명대의 시풍은 시교의 기능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 시의 형식이나 작가의 솔직한 표현에 더욱 공을 들였다. 예를 들어 복고파는 전통을 중시함에 ‘시교’에 초점을 두기보다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하였고, 당송파는 유교의 정신을 본받고 있었지만, ‘시교’의 기능보다는 공안파와 마찬가지로 작가의 사상과 감정의 솔직한 표현에 더 치중하였다. 이에 초횡은 전통적인 시교론을 주장하며 당시 시풍에 대해 비판하였다.

다음 문장에서 초횡이 다른 문인들과 달리 시교의 작용을 잘 활용한 자로 두보뿐 아니라 백거이의 시 또한 매우 높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초횡이 시의

152) “風，風也，教也，風以動之，教以化之……治世之音安以樂，其政和；亂世之音怨以怒，其政乖；亡國之音哀以思，其民困。故正得失，動天地，感鬼神，莫近於詩。先王以是經夫婦，成孝敬，厚人倫，美教化，移風俗……上以風化下，下以風刺上，主文而譎諫，言之者無罪，聞之者足以戒，故曰風。” — 毛亨 編，鄭玄 箋，孔穎達 疏，《毛詩註疏》，臺北：臺灣商務印書館，1968，pp. 5-13 참고.

기준을 시교의 작용에 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莊周가 말하길, “시로써 性情을 말한다.”라 하였다. 대체로 성령을 깊이 깨닫고, 권유하여 잘못을 바로잡으니 하나에 힘쓰면 바름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평화롭고 온후하며, 함축적이면서 남는 정이 있다. 그래서 말에는 죄가 없으며, 그것을 들으면 족히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 후세의 시는 性에서 떨어져 있고, 물결이 구름이 모여 있는 곳으로 사라진 듯하며, 다만 유람의 자료로 여기고, 《육경》의 뜻은 희미해졌다. 두보는 힘써 그 쇠함을 바로잡고자 하여 세상일을 걱정함에 움직이면 늘 나라의 체제와 연관시켰다. 세상에서 시인 중에 첫 번째로 받아들여졌는데, 진실로 헛된 말이 아니다. 백거이는 비록 늦게 나왔지만, 풍유한 여러 편의 시는 다만 그와 앞뒤를 다룰 따름이지 근자의 시인과 견줄 바가 아니다.<sup>153)</sup>

여기서 “시로써 성정을 말한다”는 것은 《모시서》에서 밝힌 시는 마음속에서 우리나라는 뜻과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는 ‘시언지’ 설과 일치한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우리나라는 뜻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 여기서 초횡이 말한 ‘성령’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앞에서 언급한 ‘성’과 ‘령’의 조화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성령’을 깨달으면 시로써 풍유할 수 있게 되고, 문면에 직접적인 뜻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자는 죄가 없으니, 듣는 사람이 족히 경계로 삼으면 된다”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교의 작용을 잘 활용한 자로 두보를 꼽았고, 백거이의 시 또한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당시 복고파 문인들이 주로 이백과 두보의 시법을 따라 배우고 숭상했기 때문에 그들만큼 격률을 추구하지 않은 시인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초횡은 그들과 달리 시의 기준을 시교의 작용에 두었기 때문에, 백거이를 지금의 문인들과 비교하며 지금 문인들의 시가

153) “蒙莊有言，詩以道性情。蓋以洞達性靈，而勸諭箴砭，以壹歸於正，卽其懇款切至，要必和平溫厚，婉委而有餘情。故言之無罪，聞之足以戒也。後世詩與性離，波委雲屬，祇以爲流連之資，而六藝之義微。杜子美力挽其衰，閔事憂時，動關國體，世推詩人之冠冕，良非虛語。樂天雖晚出，而諷諭諸篇，直與之相上下，非近代詞人比也。”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續集·題寄心集》，北京：中華書局，2013，p. 911.



시교의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초형은 다음의 문장에서도 풍유를 강조하면서 당시 문인들에 대해 더욱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고대에 시를 논한 자 중에 문중자 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 풍유하여 뜻을 전달할 수 있으며, 나가면 뒷사람을 공경하고, 들어오면 부모님께 효도한다……대개 고대의 군자는 기개가 비범하고 초월해 있으며,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마치 예복을 갖추어 입은 듯하고, 종묘에 공손히 올라가는데 마치 방울이 고르고, 한 가지 길을 따라감에 수확이 없어도 스스로 절약하며, 법을 따르지 않아도 모두 법이니 그래서 죽히 술수가 된다. 근세에 작자들은 그 근본을 따르지 않고, 오직 문사의 앞만 있어 풍자하고 원망함에 크게 화를 내며, 화려하고 괴이하게 변해 풍자는 많지만, 핵심은 적고 산만하여 돌아갈 곳이 없으니 어찌 이치와 도를 관통하겠는가!<sup>154)</sup>

고대의 문인들과 근세의 문인들 간의 비교를 통해 초형이 시의 근본을 ‘풍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또 초형에게 있어서 풍유는 그 사람의 풍부한 학식과 올바른 행실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초형은 시를 통해 ‘풍유’를 실천함에도 ‘도’에 대한 체득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개인의 수양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풍유일 뿐, 실제로 풍유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도 분명 《시경》의 옛 정신을 되찾고자 노력한 문인들이 있었다. 초형은 이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는데, 먼저 심맹위(心孟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살펴본다.

孟威는 이름난 진사로서 右諫議가 되었고, 명성과 내실이 사방에 알려지고

---

154) “古之論詩者莫善於文中子矣，可諷可達，出則悌，入則孝……蓋古之君子，高視闊步，凌厲軼越，而一言一動如整冠裳，祇謁宗廟，如鳴鑾衡，一遵塗轍，不斂而自約，不法而皆法，故足術也。近世作者不循其本，而獨詞之知，刺譏憤懣，怨而多怒，瑰麗詭變，諷多要寡，漫美無歸，奚關理道!”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續集·刻晉遊草序》，北京：中華書局，2013. p. 773.

문단을 번성하게 했다. 東臺에서 글을 쓰니 일찍이 유가의 顧問으로 받들어졌고, 남쪽에서 수레를 몰며 자문의 명령을 널리 퍼뜨렸다. 이에 전차에 호랑이 방석을 놓고 성대한 모습으로 彭蠡湖를 따라가고, 匡山에 오르고 鄂江을 거슬러 올라가 簪嶺에 이르렀다. 위로는 평안한 도읍의 영달함을 접하고, 옆으로는 민간의 곤궁함을 살피고, 깊숙이 고대의 유적을 탐구하며 명승지를 널리 관람하였다. 눈과 귀로 모은 바가 다양한 것을 포괄하고 있으니 마음에 담은 것이 어찌 천리에 그쳤겠는가……이로써 지역의 풍속을 드러내고 백성들의 은폐된 삶을 드러내는데 시에 가깝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수레가 이르는 곳은 시로써 형상화되고, 초나라 노래가 이미 연주되면 沂水의 노래가 잇따라 일어나니 울창한 산봉우리가 그 재능을 보좌하고, 맑은 商音이 금석에 부딪쳐 울려 나오니 우렁차도다. 가히 역사로서의 시를 갖추고, 가히 천자의 교화를 펼쳐낼 수 있음이 성대하도다. 파견된 신하들이 황제의 자문에 응하면 조정에서는 중히 여겼고, 언덕과 계곡에서 유람하고 깊은 곳을 찾아감에 모두 시에 펼쳐냈으니 실로 세 가지 아름다움을 겸하였다……단지 유람하여 기록이 있게 하였을 뿐 아니라, 성왕의 제도가 아직 존재함을 드러냈다고 말할 수 있을 따름이다.<sup>155)</sup>

초형은 심맹위의 명성을 언급함으로써 문단에서의 그의 지위를 밝혔다. 이러한 명성은 그의 학문과 시교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노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그는 유학을 깊이 깨달았으며 매번 각지를 돌아다닐 때마다 그곳의 시속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실제로 어떤 지역에 이르러서는 그 지역의 고사와 노래가 다시 형상화되는 듯하다고 여겼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풍속을 이해하는 데 시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인식하였다. 그는 각 지역에 이를 때마다 시경의 옛 전통을 찾아 그 자취를 느끼고, 이를 기

155) “孟威以名進士爲右諫議，聲實四達，鬱彼士林。東臺載筆，夙推顧問之儒，南服驅車，光被咨諏之命。於是文茵暢轂，嚶嚶皇皇，遵彭蠡，升匡山，遡鄂江，終簪嶺。上接寧城之英達，旁察閭閻之疾苦，冥探古蹟，博覽名區，耳目之所搜羅，包乎羣類，胸懷之所囊括，奚啻千里……是時也，以謂章土風，悉民隱，莫近於詩。故輶軒所至，必形篇什，楚歌既奏，沂詠互發，蒼巖佐其鋒鏑，清商激於金石，颯颯乎可以備詩史，可以陳王風。於戲盛已，夫皇華咨詢，朝寄之重，丘壑游衍，幽尋之適。播諸詩章，實兼三美……微獨俾壯遊之有紀，亦以明王制之尙存云爾。”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續集·使楚集序》，北京：中華書局，2013，p. 774.

록하여 아직 옛 성왕의 도가 남아 있음을 밝혔다.

즉 명대에는 시경의 전통에서 이미 멀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남아 있는 그 흔적을 찾아 이를 좇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초횡은 유학의 성취에 바탕을 두고, 《시경》의 옛 정신을 되살린 것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초횡의 이러한 기준은 작품의 예술적 성취보다 더 중요시되기도 하였다. 이는 진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陳第는 《五經》에 통달했는데 특히 시경과 역경에 뛰어났으며, 《伏羲圖贊》과 《毛詩古音》을 보면 대체로 살펴볼 수 있다. 그가 시를 지음에 시인의 뜻이 아닌 것이 없고, 말에 실제로 행한 것이 없으면 붓에서 쓰여지지 않았다. 쇠퇴한 시대의 폐단을 고치고 세속의 병으로부터 일으키니 대체로 마음을 깊게 쓴 것이다. 그 온후함과 아정함은 만물을 감화시키고, 세태에 감개하며 원망하는 모습이 없으니 이는 두보, 백거이와 무엇이 다른가? 독자들은 그 뜻으로써 그것을 구하여 근래의 악습에서 벗어나고, 시경의 모양새를 되찾기 바란다. 만약 동시대 유명한 인사들과 함께 그것(진제의 시)을 본다면, 진제를 논하는 바가 아니다.<sup>156)</sup>

초횡은 진제를 높이 평가했지만, 두보의 격률, 백거이의 평이함 같은 시의 예술적 성취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 초횡은 문인이 경학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진제가 옛날 시인들의 뜻에 통달하고, 《시경》의 본래 모양새를 되찾는 올바른 것으로 돌아간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는 당시 문인들이 시교의 작용을 버리고, 기이하고 화려함만 추구하는 것에 대한 경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인사들과 함께 그들의 기준으로 진제의 시를 논의한다면 그것은 진제의 시를 평가하는 올바른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초횡이 문인들을 평가함에 학습을 중시하는

---

156) “一齋陳子通五經，尤長於詩、易，觀其伏羲圖贊、毛詩古音，概可見已。其爲詩，無非風人之遺意，言非有爲，不發於筆端。砭季代之膏肓，而起流俗之廢疾，蓋三致意焉。其溫厚爾雅，動物感時，而無所容諷，此與子美、樂天何異？讀者以此求之，庶可脫近習而還三百之舊觀。若與時輩同類而共觀之，非所以論一齋子矣。” 一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續集·題寄心集》，北京：中華書局，2013，p. 911.

태도는 초횡과 일반 양명좌파 학자들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초횡이 시에 관해 논한 문장들을 살펴보면, 유가의 전통적인 시관이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경》의 ‘풍유(諷諭)’외에도, 사마천(司馬遷)의 ‘발분설(發憤說)’, 구양수(歐陽修)의 “시는 궁핍해진 뒤에야 공교로워진다(詩窮而後工)”는 이론과 한유의 ‘평정하지 못하면 곧 소리를 낸다(不平則鳴)’<sup>157)</sup> 등 유가의 전통적인 시관과 시의 도(道)와 관련하여 맹자의 ‘지인논세(知人論世)’<sup>158)</sup>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그가 전통적인 유가의 시관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이들의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발분설’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사마천은 흉노(匈奴)와의 전투에서 투항했던 어느 장수를 변호하다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거세형을 받았지만,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사기》를 완성하였다. 사마천은 서문에서 서백(西伯)이 《주역(周易)》을 짓고, 공자가 《춘추(春秋)》를 짓고, 굴원이 <이소(離騷)>를 짓고, 좌구명(左丘明)이 《국어(國語)》를 지은 것은 모두 곤경을 딛고 일어난 결과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학관을 ‘발분저서(發憤著書)’라고 하며, 후에 한유와 구양수에게로 이어진다.

한유는 한대의 사마천(司馬遷)과 사마상여(司馬相如), 양웅(揚雄)과 당대의 진자양(陳子昂)과 소원명(蘇源明), 원결(元結), 이백(李白), 두보(杜甫), 이관(李觀) 등이 훌륭하게 올렸던 사람들이라고 평가하였다. 굴원에 대해 “초나

157) 한유가 <송맹동야서(送孟東野序)>에서 “마음의 평정을 얻지 못하면 곧 소리를 낸다”라 하였다. 이는 작가의 처지나 환경이 작품의 창작과 연관성이 깊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마천(司馬遷)의 발분설(發憤說)을 계승한 것으로서 나중에는 구양수(歐陽修)가 한유의 생각을 발전시켜 “시는 궁핍해진 뒤에야 공교로워진다(詩窮而後工)”라는 주장을 펼쳤다.

158) 맹자가 《맹자·만장·하》에서 “천하의 좋은 인재를 벗 삼아도 부족하다면, 또 거슬러 올라가 옛 사람을 논해야 한다. 그 시를 낭송하고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 모른다면 말이 되는가? 이런 까닭으로 그 시대를 논하는 것이니 이것이 옛 사람과 벗삼는 일이다[以友天下之善士爲未足，又尙論古人之人。頌其詩，讀其書，不知其人，可乎？是以論其世也。是尙友也]”라 하였다. 즉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작가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작가의 생애, 시대 배경, 환경, 교유 등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라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망할 무렵에 굴원이 나와 울었다”라고 말하며 굴원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유는 《송맹동야서(送孟東野序)》에서 ‘불평즉명’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사물이란 평정을 잃으면 소리를 낸다. 초목은 본래 소리가 없지만 바람이 흔들면 소리를 내고, 물은 본래 소리가 없지만 바람이 흔들면 소리를 내게 하니, 물이 튀어 오르는 것은 무엇이 격동시킨 것이고, 빨리 흘러가는 것은 무엇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고, 끓는 것은 무엇이 뜨겁게 하기 때문이다. 금석도 본래 소리가 없지만, 무언가로 치면 소리를 낸다.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로 찬가지이다. 부득이한 경우가 되어서야 말을 하게 되며, 노래에는 또한 생각이 있고, 우는 것에는 슬픔이 있다. 대체로 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것은 모두 불평이 있기 때문이다.<sup>159)</sup>

그리고 구양수는 이러한 관점을 계승하여, 《매성유시집서(梅聖俞詩集序)》에서 “시는 곤궁한 후에 더욱 공교로워진다.”라는 이론을 펼쳤다.

내가 듣건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인들은 순조로운 자들이 적고 곤궁한 자들이 많다고 하였다. 어째서 그러한가? 대개 세상에서 전해지는 시는 대부분 옛날의 곤궁한 사람의 말로부터 나왔다. 못 선비들 중에 (재능을) 쌓아두고 세상에 펼칠 수 없는 이들은 대부분 스스로 산골짜기로 들어가기를 좋아하였다. 밖으로는 벌레, 물고기, 풀, 나무, 바람, 구름, 새, 짐승의 모습을 보며 왕왕 그 기괴함을 탐구했고, 안으로는 근심스러운 생각과 분한 감정이 쌓이면 그것을 원망과 풍자로 일으켰다. 버림받은 신하와 과부가 한탄하는 바를 말함으로써 인정의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써냈는데, 대체로 곤궁할수록 더욱 공교로웠다. 그러한 즉 시가 시인을 곤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

---

159) “大凡物不得其平則鳴，草木之無聲，風撓之鳴，水之無聲，風蕩之鳴。其躍也或激之，其趨也或梗之，其沸也或炙之。金石之無聲，或擊之鳴。人之於言也亦然，有不得已者而後言，其歌也有思，其哭也有懷，凡出乎口而爲聲者，其皆有弗平者乎！” — 周啓成，周維德 注譯，陳滿銘，黃俊郎 校閱，《新譯昌黎先生文集·送孟東野序》，臺北：三民書局，1999, p. 429.

라, 아마 곤궁해진 뒤에 공교해지는 것이다.<sup>160)</sup>

초횡 또한 이러한 관점을 계승하여 ‘회재불우(懷才不遇)’ 하거나 곤궁한 인물들이 불평을 표출해낸 시를 긍정하였다.

옛날 시라고 불리는 것은 대개 나그네와 원한 있는 선비,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울분을 풀어내기 위해서 불평을 드러내었다. 대개 《離騷》가 유래된 바이다……시는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성령이 깃드는 바이다. 진실로 감정이 지극하지 않으면 정이 깊지 못하고, 마음을 놀라게 하고 혼을 흔들지 못하며, 세상에 전해져 멀리 갈 수 없다.<sup>161)</sup>

이 글에서 초횡은 유가의 전통적인 시관과 함께 인간의 ‘성령’을 함께 강조하였다. 여기서 ‘성령’은 ‘성’과 ‘령’의 조화가 아닌 인간의 ‘감정’을 뜻하는 말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초횡이 《이소》를 높이 평가한 이유는 작가가 단지 불평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출했기 때문이 아니다. 초횡은 시에 작가의 ‘깊은 감정’이 담겨있지 않으면, 독자들의 마음을 이끌 수 없으며 세상에 전해질 만한 작품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오랫동안 전해지는 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은 감정이 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초횡의 관점이다. 그 이유는 다음의 문장에서 자세히 드러난다.

……쫓겨나자마자 《離騷》를 지었고, 그 충절과 격분의 감정이 절실하여

160) “蓋世所傳詩者，多出於古窮人之辭也。凡士之蘊其所有，而不得施于世者，多喜自放於山巔水涯，外見虫魚草木、風云鳥獸之狀類，往往探其奇怪；內有憂思感憤之郁積，其興於怨刺，以道羈臣寡婦之所嘆，而寫人情之難言；蓋愈窮則愈工。然則非詩之能窮人，殆窮者而后工也。” — 歐陽修，楊家駱 編，《歐陽修全集·上》，居士集卷第四十二，臺北：世界書局，1971，p. 295.

161) “古之稱詩者，率羈人怨士，不得志之人，以通其鬱結而抒其不平。蓋離騷所從來矣……詩非他，人之性靈之所寄也。苟其感不至，則情不深，情不深，則無以驚心而動魄，垂世而行遠。”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雅娛閣集序》，北京：中華書局，2013，p. 155.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후세에서는 이를 楚辭라 불렀으며 원망하는 시는 모두 그것에 속하게 하였다. 심지어는 감정이 울적하고 분하지 않은데도 이를 수단으로 이용하여 명예를 얻으려 하였다. 예를 들어 《七諫》과 《久懷》 같은 부류는 종류와 엄숙함, 격한 것이 일치하는데, 대체로 근심 없이 읊어냈기 때문에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sup>162)</sup>

굴원은 불평을 드러내면서 깊은 감정을 그대로 담아냈기 때문에 후세에 전해져 높은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후대 사람들은 이러한 시를 추구하며 ‘불평(不平)’한 감정이 없는데도 굴원의 시풍을 따라하여 명성을 얻고자 한 것이다. 초횡은 이러한 목적으로 창작된 시는 참된 시가 아님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동방삭(東方朔)의 《칠간》과 왕포(王褒)의 《구회》는 비록 굴원을 추모하기 위해 지었지만, 굴원처럼 깊은 감정이 깃들지 않았기 때문에 초횡의 입장에서는 이를 높이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다음의 문장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시는 대체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저절로 말할 따름이다. 저 물상을 그려내고, 일을 서술한 것은 스스로 그러한 바에서 일어났고, 세월의 흐름과 이별을 슬퍼하며 마음에 근본을 두고 있다. 떠난 사람을 애도하고 이별을 슬퍼함에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대체로 슬픔과 깊음이 안에 있으면, 읊어지는 노래가 마땅하고, 강제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소리를 낸다.<sup>163)</sup>

말하고자 하는 바를 시에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시인이 물상을 직접 체화하고, 일을 서술함에 보고 느낀 바를 그대로 그려내야 한다. 즉 마음속에서 느낀 바가 있고, 진실된 감정을 시로 읊어내면 시가 저절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초횡은 ‘불평즉명’을 계승하면서 ‘무병신음’ 같은 인위적인

162) “……一放而爲離騷，繇其忠憤感切，不得已而出此，後世輒名之楚詞，而爲怨詩者咸歸之，甚者情匪鬱伊而鬻聲釣世，如七諫九懷之流，類矜激乎一致，蓋無疾而呻吟，非其質矣。”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南遊草序》，北京：中華書局，2013，p. 174.

163) “詩也者，率自道其所欲言而已。以彼體物指事，發乎自然，悼逝傷離，本之襟度。蓋悲喜在內，嘯歌以宣，非強而自鳴也。”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續集·竹浪齋詩集序》，北京：中華書局，2013，p. 778.



표출에 반대하고 진실하고도 깊은 감정의 표출을 매우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초횡이 중시한 유가의 전통적인 시관 중 하나인 ‘지인논세’에 대해 살펴본다.

옛날과 지금 시라고 불리는 것은 이백과 두보의 시보다 성대한 것이 없다. 학자들은 그 시를 외움에 그 세대를 논하고 생각하지 않음이 없다. 그 사람들의 연대에 대한 연보를 만들어 전하는데 이르러서는 대체로 毛公과 정鄭玄 이래로 모두 같다. 羔羊, 兔置, 考槃, 碩人을 몰라도 그 사람이 나아가고 물러남은 때때로 저절로 시에 드러나, 연보에 의거하지 않아도 아는 이가 있다. 그래서 이백과 두보의 시는 년도 순으로 하는 것이니 어찌 다만 출행하여 왕래하고, 교유하며 모이고 헤어지는 것만 있겠는가. 그 시문의 변환은 분명 살펴볼 만하고, 당시의 흥망성쇠 또한 대략 갖추어졌다. 우매한 자가 그 작품들을 가지고 종류를 분류하는데, 시에서 세상을 논하는 것의 의미는 날로 쇠퇴하였기 때문에 나는 일찍이 탄식하였다.<sup>164)</sup>

초횡은 이백과 두보의 시를 높이 평가함으로써 지금의 시가 ‘지인논세’의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고양(羔羊), 토저(兔置), 고반(考槃), 석인(碩人)은 모두 《시경》의 편명이다. 《시경》의 시는 연보를 참고하지 않아도 시를 통해 ‘지인논세’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연보를 참고하여도 파악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연보의 기능은 단순히 연도와 종류의 분류에만 있으면 안 되며, 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초횡은 다음 문장에서 작가가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시에 다 표현해내고, 자신의 행적이 시에 저절로 드러나 독자가 연보 없이도 파악할 수

164) “古今稱詩，莫盛於李杜，學者誦其詩，莫不思論其世，至爲譜其年以傳，蓋自毛、鄭以來皆然，不知羔羊、兔置、考槃、碩人，其人之進退隱顯，往往自見於詩，有不待譜而知者。故李杜之詩編年爲序，豈獨行役之往來，交游之聚散，與夫文藝之變幻，犁然可考，而時之治亂升降，亦略具焉。昧者取其編，門分類析，而因詩以論世之義日晦，余嘗歎之。”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青谿山人詩集序》，北京：中華書局，2013, p. 172.

있다면 일가를 이룬 것이라 하였다.

대체로 공이 이르면 반드시 시가 있고, 출입하고 교유하는 것과 근심과 유쾌함을 기록한 것이 매우 완전하여 후대의 독자는 따라서 읊고, 공이 행했던 것을 추적하는데 꼭 그 모습에 의지하거나 살던 곳을 바라볼 필요가 없으며, 일단 책을 문지르면 모두 다 얻을 수 있다.<sup>165)</sup>

초형의 ‘전통시교론’의 계승을 통해 초형이 시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초형이 시교론을 계승했다고 해서 그가 단순히 사회 효용론적 관점에서 그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며, 현실적 가치나 기능을 중시하는 언지설(言志說)과 정감의 표현을 중시 연정설(緣情說)의 조화를 추구하여 전통시교론의 발전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시언지설’은 한대(漢代)의 유가들이 계승하여 《모시서》에서 “시란 뜻이 나아가는 바이니, 마음에 있으면 뜻이 되고, 말로 드러내면 시가 된다. 감정은 마음속에서 움직여 말로 나타나게 되는데, 말이 부족하면 감탄하게 되고, 감탄으로 부족하면 길게 읊조려 노래하게 되며, 길게 노래하는 것으로 부족하면 모르는 사이에 손을 움직여 표현하고, 발을 굴러 표현하게 된다……왕도가 쇠하고 예의가 폐하여지고, 정치와 교화를 잃게 되고, 나라의 정치가 달라지고, 도성마다 습속이 변하는 데 이르러서 변풍과 변아가 지어졌다. 나라의 사관은 득실의 흔적을 밝히 이해하고, 인륜이 폐하여짐을 슬퍼하고, 형정의 가혹함을 애처로이 여겨 성정을 읊어내며 윗사람들을 풍자하니, 일의 변화에 통달하고, 옛날의 풍속을 그리워하였다. 그러므로 변풍은 감정에서 나와 예의에 이르는 것이다.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백성들의 본성이고, 예의에 이르는 것은 선왕의 은택이다”<sup>166)</sup>라 하였다.

---

165) “蓋公所至，必有詩，其出入、交游、憂思、愉快，所自爲紀者甚備，後之讀者，低回吟諷，而跡公之施於事者，不必卽其貌，望其廬，而一撫卷，皆可得矣。”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青谿山人詩集序》，北京：中華書局，2013，p. 173.

166) “詩者，志之所之也，在心爲志，發言爲詩，情動於中而形於言，言之不足，故嗟嘆之，嗟嘆之不足，故詠歌之，詠歌之不足，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也……至於王道衰，禮義廢，政教失，國異政，家殊俗，而變風變雅作矣。國史明乎得失之迹，傷人倫之廢，哀刑政之

《모시서》에서는 시를 논함에 정감을 배척하지는 않았지만, 시를 정치와 관련된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시에 담긴 정감은 반드시 유교 사상에 기반한 것이어야 했다.

‘감물설’에 대한 논의는 《예기·악기(禮記·樂記)》에서 출발한다. 《예기·악기》에서는 시(詩), 가(歌), 무(舞)가 모두 마음에 근본을 두고 있음을 밝히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물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sup>167)</sup>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물(物)’은 중국 고대에 있어서 주관 외적인 것, 자연적인 것, 물질적인 것 등 일체의 객관적 대상을 나타낸다.<sup>168)</sup> 위진시대에 문학비평이 성행하면서 육기(陸機)가 이를 이어받아 《문부(文賦)》에서 ‘시연정설(詩緣情說)’을 제기하였다. 그는 시에 담긴 감정은 바로 ‘사시(四時)’나 ‘만물(萬物)’에 의해 촉발된다고 주장하며 감물설을 발전시켰다. 이에 유험(劉勰)은 《문심조룡(文心雕龍)》에서 “감정은 만물로써 일어나며, 만물은 감정으로써 보여진다.”라고 하며 감물설의 발전을 이어나갔다. 종영(鍾嶸) 또한 《시품서(詩品序)》에서 “기가 사물을 움직이고, 사물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까닭에 성정을 흔들고 춤과 노래로 드러난다.”라고 하며 감물설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실 이들은 ‘시연정설’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시언지설’과 ‘시연정설’ 두 가지 모두를 중시하였다. 그런데 ‘시연정설’이 명대의 ‘동심설’, ‘성령설’에 크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동심설’과 ‘성령설’은 ‘시언지설’의 유가적인 효용을 갖추지 못하고, 사회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었다는 평을 받게 되었다. 이에 반해 초횡은 유가의 효용과 인간의 감정을 모두 중시함으로써 ‘감물언지(感物言志)’ 시론의 진정한 발전을 추구한 것이다.

---

苟，吟詠情性，以風其上，達於事變而懷其舊俗也。故變風發乎情，止乎禮義。發乎情，民之性也；止乎禮義，先王之澤也。” — 毛亨 編，鄭玄 箋，孔穎達 疏，《毛詩註疏》，臺北：臺灣商務印書館，1968，pp. 6-15 참고.

167) “人心之動，物使之然。” — 李學勤 主編，《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整理，《十三經注疏·禮記正義》，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9，p. 1074.

168) 이병한, 《중국 고전 시학의 이해》，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p. 11.

## 제 2 절 ‘좋은 詩’의 조건: 性과 靈의 융합

초횡이 시에 있어서 유가의 전통적인 시관과 함께 ‘성’과 ‘령’의 융합을 주장한 까닭은 시에 대한 독창성의 추구에 있었다. 명대에는 전후칠자가 출현하여 문단에 의고주의 풍조가 만연했고, 이러한 이유로 공안파가 출현하여 “세상의 도가 이미 변하고, 문장 또한 그것을 따르니 오늘날 옛것을 모방할 필요가 없다”<sup>169)</sup>라는 반 전통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문단을 바로 잡으려고 했으나 공안파는 지나치게 ‘성령’을 강조하여 내용이 공소해지는 폐해가 발생하였다.

초횡 또한 명대의 문단 상황이나 문인들을 여러 차례 비판한 적이 있다. 특히 명대의 문인들이 옛것을 근원으로 삼는 데 있어서 그 글에 담긴 작가의 정신이나 기골을 얻지 못하고, 형식만 모방하는 풍조에 대해 비판하였다. 또 초횡의 ‘기이관’과 ‘고금관’에 관해 논의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초횡이 옛날 사람들의 글을 훌륭하다고 평가한 이유는 단지 옛것이어서가 아니라, 옛것을 토대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여 본성으로서의 기이함을 발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관점을 지니고 있었던 초횡은 당시 문인들의 독창성이 결여된 시에 대해 지적하며 본인이 추구하는 좋은 시의 조건을 분명히 밝혔다. 다음 문장을 통해 복고파의 시풍에 반대하는 입장과 시의 독창성을 중시하는 초횡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내가 말하건대 원나라가 쇠망한 이래로 문학은 희미해졌다. 홍치, 정덕연간에 이르러서는 이몽양, 하경명 무리가 나와 힘써 고풍을 일으키고, 사대부들은 사마천의 사기와 두보의 시가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만 전해지는 것을 같이 하고 그대로 믿으며, 글을 짓는 데 자신만의 깨달음이 없다. 심지어 거칠고 느슨하여 그것을 추구하면 소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견식이

---

169) “世道既變, 文亦因之, 今之不必摹古者也.” — 袁宏道, 《袁中郎全集·江進之》, 卷二十三, 明崇禎刊本,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2001.

있는 자는 또 그것을 싫어하여 버리고, 담박하고 고아한 소리가 마침내 점점 흘러나온다.<sup>170)</sup>

여기서는 원말명초(元末明初)의 시풍에 대한 초횡의 견해를 살펴볼 수 있다. 이민족의 통치 아래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제도가 파괴되고, 원대 문학은 위기를 맞았다. 비록 산곡(散曲), 잡극(雜劇) 등 민간 문학이 큰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지만, 시나 사의 전통적인 위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명대 초기 영락(永樂, 1403)에서 성화(成化, 1487) 연간 사이에는 경제가 번영하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대각체(臺閣體)’가 출현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의 시는 대부분 성덕(聖德)이나 태평(太平)을 노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작품에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에 이몽양과 하경명을 중심으로 복고파(復古派)가 형성되면서 그들은 “문(文)은 반드시 진한(秦漢)을 따르고, 시(詩)는 반드시 성당(盛唐)을 따라야 한다. [文必秦漢, 詩必盛唐]”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사마천의 《사기》와 두보 시의 율격을 전범으로 삼았는데, 지나치게 옛것에 의존하여 자신만의 감정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복고주의를 반대하는 문인들에 의해 폐해가 지적되었다. 복고주의에 반대하는 문인들이 시를 창작하면서 ‘담박하며 고아한[沖夷雅澹]’ 시가 마침내 나온다고 서술한 것으로 보아, 초횡 또한 복고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문장에서 복고파에 대한 초횡의 견해가 더욱 자세히 드러난다.

근래에 李氏가 고문을 제창하였고, 학자들은 흔들려 이를 따르는데 그 뜻을 얻지 못하고, 다만 표절함으로써 높음을 다투었으며, 이 무리가 아니면 비문으로 배척하였다. 아, 얼마나 편협한가!<sup>171)</sup>

170) “竊謂元季以來，詞學纖靡，迨弘德間，李何輩出，力振古風，學士大夫非馬記杜詩不以談。第傳同耳食，作匪神解，甚者粗厲闡緩，扣之而不成聲，識者又厭棄之，而沖夷雅澹之音乃稍稍出焉。”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蘇叔大集序》，北京：中華書局，2013. p. 171.

171) “近代李氏倡爲古文，學者靡然從之，不得其意，而第以剽略相高；非是族也，擯爲非文。噫，何其狹也!”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續集·文壇列俎序》，北京：中華書

여기서 이씨는 이몽양을 가리킨다. 이몽양이 복고주의를 제창하면서 주장한 것은 옛글에 담긴 ‘靈’을 배우는 것이 아닌, 형식에 대한 학습과 모방이었고, 이를 추구함에 다른 시관은 배척하였다. 초횡의 고금관에서 드려나듯이 초횡이 형식미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있어서 시란 기본적으로 유가의 효용과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초횡은 복고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옛것을 답습하는 풍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계하였다.

고대 작가 무리는 어떤 이는 시로써 품은 근심을 흠어지게 하고, 어떤 이는 원대한 뜻을 펼쳐내는데, 부딪치고 만나면 말을 이루니 생동하며 기세가 강해진다. 사물에 비유하여 자신의 뜻을 드러냄에 세상 사람들이 세 치의 붓으로 흠반이에 따라 쓰고, 마음으로 헤아리고 손으로 쫓아가 앞사람의 발걸음을 따르며 이전 사람의 흔적을 뒤쫓으니 어찌 또 시가 있겠는가?<sup>172)</sup>

여기서는 시 본래의 효용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의 문인들이 옛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옛것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에 대해 비판하였다. 다음 문장에서도 초횡이 시의 창작에 있어서 독창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롭게 응용함에 이르러서는 정신이 융화되고 기세가 넓어져 형체가 생겨남에 의도하지 않아도 모두 뜻이 있고, 법을 따르지 않아도 절로 법이 있으며 이 오묘함이 책에 드러난다. 만약 단지 옛날 사람들만 따르고 생각하여 자기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매우 정교할지라도 베껴 쓴 책이라고 비웃음 당하는 것을 면치 못하니 좋은 작품이 아니다.<sup>173)</sup>

局, 2013. p. 781.

172) “古作者流，或以散鬱結之懷，或以抒經遠之致，觸遇成言，飛動增勢。此物此志也，世人把三寸柔翰，鉛摘緹油，心量而手追，隨步武之後，躡其遺塵，此寧復有詩也?”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劉元定詩集序》，北京：中華書局，2013，p. 173.

173) “至於得心應手，神融象滋無意而皆意，不法而自法，斯妙於書者已。儻但步趨古人而略不見我之筆意，縱極工好，未免奴書之訛，非名品也。”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題陳小明詩》，北京：中華書局，2013，p. 279.

초횡의 관점에서는 옛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본인만의 생각이 결여된 시는 참된 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독창성을 강조하였다. 즉 좋은 시는 옛것을 배움과 동시에 자신의 뜻을 드러내어 의도하지 않아도 내용과 형식이 조화되어 오묘함이 발현된다는 것인데, 이는 바로 ‘성’과 ‘령’의 융합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을 밝힌 것이다. 다음 문장에서도 이에 대한 추구가 드러난다.

내가 嶺南에서 왕선생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니 말하는 것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아정하고 규칙이 있으니 온화하고 매우 아름다우며 진실로 문학의 先鞭이고, 문단의 올바른 법도이다.<sup>174)</sup>

여기서 ‘말하는 것’이란 문인들의 시를 의미한다. 초횡은 영남(嶺南)지역의 문인들을 높이 평가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가 추구하는 시는 독창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시의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 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초횡이 시에 있어서 내용이 되는 자신만의 감정이나 생각과 함께 형식이 조화를 이룬 시를 참된 시로 인식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초횡이 제시한 ‘성’과 ‘령’의 융합에 대한 견해를 더 자세히 살펴본다.

앞에서도 이미 몇 차례 논했지만 초횡의 ‘성령’은 ‘성’과 ‘령’의 조화이며, ‘진실한 감정’을 포함한다. 초횡은 시에 대해 “시는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성령이 깃드는 바이다. 진실로 감정이 지극하지 않으면, 정이 깊지 못하고, 마음을 흔들고 혼을 놀래키지 못하며, 세상에 전해져 멀리 갈 수 없다.”라고 정의하였다. 즉 아무리 전통적인 시관을 계승했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감정’이 없으면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초횡은 다음 문장에서 이러한 조화를 이룬 문인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공의 시는 본 것을 깃들이고 마음을 써내는데, 운율을 맞추고 글자를 배치

174) “余觀嶺南自王先生而下，言人人殊，而爾雅有則，溫和甚美，誠藝苑之先鞭，詞林之正軌也。”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蘇叔大集序〉，北京：中華書局，2013，p. 171.



함에 비록 그 기질이 희미하여 써낸 것에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라도 옛 법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 없다. 당시에 교류했던 사람들은 모두 세상에 이름난 사람이었고, 지금 배우는 자들도 다투어서 전하며 읊조림을 그치지 않는다. 그런즉 혈뜬고 시샘하는 자는 公의 몸을 피곤하게 할 수 있지만, 말은 가히 귀하니, 그 말을 얻어서 가릴 수 있는 바가 없다.<sup>175)</sup>

여기서 기질이 희미하다는 것은 부정적인 뜻이 아니다. 본 것을 그대로 깃들이고, 느낀 바를 표현함에 운율이 명쾌하게 들어맞지 않아 보이는 것은 오히려 그 내실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미언대의(微言大義)’와 같이 어떠한 이치나 뜻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따져보면 전혀 법도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를 내실보다 화려함을 추구하여 대구에 힘쓰는 사람들이 보면 율격이 맞지 않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는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깃들였기 때문에 내실이 풍부할 뿐 아니라 법도에도 잘 들어맞는 높은 수준의 시인 것이다. 다음 문장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君의 시문은 의경이 넘치고, 그 뜻으로 인한 감흥이 도달하는 바가 미더우며, 성률이 간혹 율격이 합치되지 않으면 일찍이 그것을 바로잡았다. 근래에 지은 작품은 청초하고 간이하면서도 깊으며, 왕왕 법도에 들어맞고 뿌리는 고대에 있음이 마치 준마가 치달리는데 鑾和로 조절하고, 五輅를 몰아감에 大道를 행하는 것과 같으니, 성대한 모습은 다른 말들이 이를 수 없을 따름이다.<sup>176)</sup>

175) “公之詩，寓目寫心，聲比字屬，雖氣質渾渾，不見刻畫，而無一不中古法。當時所相與賡和，皆海內名流，至今學者爭傳誦之不休。然則讒邪媚嫉之人，能困公之身，而言之可貴，卒莫得而掄也。”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寒松齋存稿序》，北京：中華書局，2013. p. 165.

176) “君詩筆淋漓，信其意興所到，而聲律或有不合，向嘗規之。近作清峭簡遠，往往中於法度，而根柢前古，如騏驥之奔佚，節之鑾和，以駕五輅，而行大道，沛然非群馬所能及已。友人陳少明刻君詩，傳同好，余謬爲序，以倡於簡端。”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環碧齋稿敘》，北京：中華書局，2013. p. 159.

시문에 담긴 감정 혹은 정서가 풍부하고 그것이 믿을만하다는 것은, 작가가 자신의 감정을 진실하게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를 지음에 감흥에 충실하기 때문에 때로는 격식에 잘 맞지 않을 수 있는데, 격식 또한 잘 바로 잡았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이 조화를 이루었음을 말하였다. 그래서 작품은 인위적이거나 헛되이 화려하지 않고, 평이해 보이면서도 깊은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작가가 옛것에 뿌리를 두면서 ‘진실함 감정’을 함께 드러냈기 때문에 도달할 수 경지로서 작가의 수양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분명 쉽게 도달할 수 없지만, 가치 차원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에 초횡은 시에 있어서 이러한 경지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좋은 시로 조건으로 ‘성’과 ‘령’의 융합을 제시한 것이다.

초횡이 좋은 시의 조건으로 제시한 ‘성’과 ‘령’의 융합은 독창성, 즉 초횡이 빼어난 글의 조건으로 인식했던 ‘기이함’에 대한 추구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는 창작 과정에서 옛것의 훌륭한 점만을 그대로 계승하거나, 자기의 솔직한 감정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이 둘의 조화를 통해 자신만의 풍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금의 문인들 또한 옛날 문인들의 경지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초횡의 시관은 여전히 그의 기이관과 고금관을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가 전통적인 시관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아니라 명대의 상황에 들어맞는 시론으로 발전시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 제 3 절 詩作에 대한 윤리학적 요구

초횡은 시의 창작에 있어서 ‘성’과 ‘령’의 융합을 추구하였고, 여기서 ‘성’에 해당하는 작가의 수양을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였다. 작가의 수양에 대한 견해는 다음의 문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고대의 기예는 도가 하나이다. 神이 안정되면 하늘을 치달리고, 氣가 온전하면 조화롭고 빼어나며, 마음에서 일치되면 형체로 변화되어 절로 나오는

데, 이는 하늘이 열어주는 바라서 남는 바가 없다. 뭉게뭉게 운무를 타고 급히 오르고, 마음대로 종횡하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초목이 바람에 요동친다. 순식간에 만 가지가 변하는데, 앞에 놓인 것이 모두 시이니, 어찌 일찍이 시문에서 본 바가 있었겠는가? 옛날의 학자들은 시경을 외웠고, 이에 사방에서 사신으로 쓰였다.<sup>177)</sup>

이 글에서는 ‘神定’과 ‘氣全’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神’과 ‘氣’의 의미를 《문심조룡(文心雕龍)》을 통해 살펴본다.<sup>178)</sup> 《문심조룡》에 의하면, 작가는 문예 창작을 위해 외부 사물에 대한 미적 체험을 통해 표현 욕구를 느껴야 하고, 그래야 비로소 창작을 위한 구상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문예구상과 표현에 관한 ‘신사론(神思論)’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유희협은 <신사(神思)> 편에서 정신과 외부 사물의 만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예술적 사유는 기묘하여 정신과 외물이 함께 움직이는데, 예술적 사유는 가슴에 있으며 인간의 의지가 그 관견을 통제한다. 외물은 눈과 귀를 따르고 말이 그 핵심을 관장한다. 핵심이 통하게 되면 외물이 그 모습을 숨기지 않고, 관견이 막히게 되면 예술적 사유는 작가의 마음에 숨어든다. 이런 까닭에 문사를 연마함에 虛靜을 중시하고, 오장을 소통시키고 정신을 맑게 하며, 학문을 쌓아 지식을 축적하고 이치를 헤아림으로써 재능을 풍부하게 하며, 견식을 연마하여 관찰을 다하고, 언어를 다루어 문장을 엮어낸다. 그런 후에야 작자의 신묘한 깨달음으로 성률을 찾아 문장으로 표현하니, 독창적인 장인이 의상을 관찰하여 기교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대개 문장을 쓰는 첫

177) “古之藝一道也，神定者天馳，氣全者調逸，致一於中，而化形自出，此天機所開，不可得而留也。勃勃乎乘雲霧而迅起，踔厲風輝，驚雷激電，披拂霾塵，倏忽萬變，則放乎前者皆詩也，豈嘗有見於豪素哉？”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劉元定詩集序》，北京：中華書局，2013. p. 173.

178) ‘神’과 ‘氣’는 역대 문론에서 자주 쓰였지만, 현재 필자가 그 논의를 모두 포괄하여 정의를 내리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선진시대부터 육조시대까지의 문학 현상을 연구하여 이론으로 집대성시킨 유희협의 《문심조룡》을 참조하였다.

번째 기술이며 글을 쓰는 큰 실마리이다.<sup>179)</sup>

또 <신사>편에서 “옛날 사람이 이르길, ‘몸은 강이나 바다에 있어도 마음은 높은 궁궐에 있다’라 하였는데 이것이 상상력을 말한 것이다”<sup>180)</sup>라고 하였고, “상상은 형상과 통하고, 심정의 변화에 의해 생겨난다”라고 말한 것으로 봤을 때, ‘신사’는 즉 문예 구상에서의 상상력을 의미한다. 작가는 신사 활동을 통해 작가 내면의 ‘의상(義象)’이 생겨나는데, 그 과정에서 원활한 문예 구상의 여부는 ‘지기(志氣)’와 관련되어 이루어진다. 그래서 《문심조룡》의 <양기(養氣)> 편에서는 “문예 구상에는 예리함과 둔함이 있고, 영감이 오는 시기에는 통할 때와 막힐 때가 있다”라고 하며, 민첩한 문예 구상을 위해 유협은 작가의 수양이 수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고요하고 빈[虛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기질을 키우는 것[養氣]’과 ‘학식을 쌓는 [積學]’방법을 제시하였다.<sup>181)</sup>

초형이 주장하는 작가 수양론 또한 이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神定’과 ‘氣全’은 즉 문예 구상에 막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초형은 시에 있어서 독창성을 매우 중시하였고, 독창성을 지니기 위해서 절대 모방해서는 안 되며, 시에 ‘神情’을 담아낼 것을 주장하였다. 앞의 해석에 따라, 여기서 ‘神’은 문예를 구상하는 상상력, ‘情’을 진솔한 감정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다음 문장에서 사령운에 대한 초형의 평가를 통해 이에 대한 견해를 살펴본다.

179) “故思理爲妙，神與物游，神居胸臆，而志氣統其關鍵；物沿耳目，而辭令管其樞机。樞机方通，則物无隱貌；關鍵將塞，則神有遁心。是以陶鈞文思，貴在虛靜，疏淪五藏，澡雪精神；積學以儲宝，酌理以富才，研閱以窮照，馴致以懌辭，然後使元解之宰，尋聲律而定墨；獨照之匠，窺意象而運斤：此蓋馭文之首術，謀篇之大端。” — 劉勰 著，周振甫 注，《文心雕龍註釋·神思》，臺北：里仁書局，1984, p. 515.

180) “古人云，形在江海之上，心存魏闕之下，神思之謂也。” — 劉勰 著，周振甫 注，《文心雕龍註釋·神思》，臺北：里仁書局，1984, p. 515.

181) 劉勰 著，周振甫 注，《文心雕龍註釋·神思》，臺北：里仁書局，1984, pp. 777-778 참고.

따르는데 모방하는 자는 정신이 무너지고, 시구를 다듬는데 조각하는 자는 기가 약하며, 화려하게 꾸미는데 이어붙이는 자는 감정이 고갈된다. 康樂<sup>182)</sup>은 조각하고, 이어 붙이는 것을 모두 잘하여 공교롭고 기이하면서도 세 가지 폐해를 밟지 않은 것은 神情이 족히 그것을 운용했을 따름이다.<sup>183)</sup>

사령운(謝靈運)이 시구를 다듬고 이어 붙이는 데 능하면서도 공교롭고 기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神情’을 운용했기 때문이다. 즉 작가가 ‘神情’을 활용할 수 있으면, 모방이나 인위적인 수사로부터 피할 수 있으며, 작가만의 독특한 풍격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백거이(白居易)의 시에 대한 초형의 감상론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나는 어릴 적에 요부선생의 격양집을 읽었고 그것을 매우 좋아하였다. 뜻은 속세를 벗어난 시인의 무리와 같았으며, 하나의 풍격을 이루었다. 한참 뒤에 백거이의 장경집을 보니 비로소 그 시문의 풍격이 그곳으로부터 나온 것을 알게 되었다.....백거이는 견식이 높고 불경에 통달하여 때때로 마음속에서 깨닫는 바가 있었고, 스스로 손에서 운용함이 마땅했으니 시인들이 걸었던 길로 인해 속박당하지 않음이 이와 같다. 근세에는 두보를 숭상하여 종종 격률을 좇지 않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데, 다만 표면적으로 가깝고, 神情은 마치 연나라와 월나라에 있는 것처럼 요원하다. 비단 백거이를 몰라서도 아니고, 또 두보를 배워서도 아니다.<sup>184)</sup>

초형은 백거이의 시를 높이 평가하면서 백거이의 견식, 이치에 대한 깨달

182) 사령운(謝靈運)을 가리킨다.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의 시인으로 산수시(山水詩)에 능했다.

183) “摹畫於步驟者神蹟，雕刻於體句者氣簡，組綴於藻麗者情潤。康樂雕刻組綴竝擅工奇而不蹈三敝者，神情足以運之耳。”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題謝康樂集後〉，北京：中華書局，2013，p. 275.

184) “余少讀堯夫先生擊壤集，甚愛之，意其蟬蛻詩人之羣，創爲一格，久之，覽樂天長慶集，始知其詞格所從出……樂天見地故高，又博綜內典，時有默悟，宜其自運於手，不爲詞家谿徑所束縛如此。近世宗尚子美，往往卑其音節不復數，第膚革稍近，而神情邈若燕越，非但不知樂天，亦非所以學杜也。”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刻白氏長慶集鈔序〉，北京：中華書局，2013，p. 146.

음 등을 언급하였다. 이는 곧 초횡이 추구하는 작가로서의 수양이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양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시를 쓰게 되면, 그 감정은 저절로 깊을 수밖에 없으며 자신만의 풍격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초횡은 이러한 상태를 갖추기 위해 작가의 인격 차원에서의 수양과 실제 독서 차원에서의 수양 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다른 문인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격 차원에서의 수양에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초횡이 생각하는 참된 시는 작가의 깊고 진실한 감정이 깃든 독창성을 지닌 시이며, 이는 작가의 인격 수양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견해는 청대(清代) 유희재(劉熙載)<sup>185</sup>의 “시의 품격은 인품으로부터 나온다(詩品出於人品)”라는 견해와 일치한다. 유희재는 《예개·시개(藝概·詩概)》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蘇軾과 陸游 두 대가의 시는 모두 호방하나, 육유는 의도적으로 시인되  
자 했고, 소식은 비록 시를 쓰긴 했지만 평안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니  
그래서 더욱 뛰어나다……《문심조룡》에서 “嵇康은 생각이 맑고 높으며, 阮  
籍의 뜻은 심원하다고 하였고, 중영의 《시품》에서 郭璞은 뛰어난 재주에  
의존하고, 劉琨은 맑고 강한 기세에 의존하다”고 하였다. 내가 말하건대,  
志·旨·才·氣는 사람마다 한자씩 차지하고 이것으로 평하고 있는데, 사실  
시를 쓰는 이 네 글자 중 하나도 결핍되어서는 안 된다……시는 인품에서 나  
오는 것인데, 인품은 정성스럽고 충성스러운 것을 최상으로 하며, 초연하고  
높은 기세를 가지고 풀을 베고 자연에 은거하는 자는 그다음이다. 떠나는 이  
를 전송하고 오는 이를 위로하면서 세속의 부귀를 좇는 자는 논하지 않겠  
다.<sup>186</sup>

185) 유희재(劉熙載, 1813~1881)는 문예이론에 뛰어났던 청대의 문학가이다. 강소(江蘇) 흥화(興化) 사람이며, 자는 백간(伯簡)이고, 호는 융재(融齋) 또는 오애(寤崖)이다.

186) “東坡、放翁兩家詩皆有豪有曠. 但放翁是有意要做詩人, 東坡雖爲詩而仍有夷然不肖之意, 所以尤古……文心雕龍云: 嵇志清峻, 阮旨遼深, 鐘嶸詩品云: 郭景純用俊上之才, 劉越石仗清剛之氣.” 余謂志旨才氣, 人占一字, 此特就其所尤重子言之, 其實此四字, 詩家不可缺一也……人品拙款朴忠者最上, 超然高舉、誅茅力耕者次之, 送往勞來、從俗富貴者無譏焉.” — 劉熙載, 《藝概》, 卷二, 清同治刻古桐書屋六種本, 中國基本古籍考,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2001.

초황은 이러한 관점을 이어받아 문인들의 인품과 관련하여 시를 논하였다. 먼저 명대 이전 시대 문인들의 인품에 관해 논의한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는 도연명에 대한 평가이다.

陶淵明 선생은 인품이 매우 높고 평생을 진솔함에 맡겼으며 득실을 따지지 않았다. 매번 그 사람을 생각하면, 번번이 하늘가 仙人의 생각이 있음에 감탄한다. 그 희미한 충심과 고아한 情怀는 촉발되면 말을 이루는데, 어떤 것은 질박함으로써 공교로워지고, 어떤 것은 기이함을 발하면서도 평범한 것처럼 보인다. 비유컨대 산속의 옥과 깊은 연못 속의 진주와 같아 광채가 저절로 빛나는데 선생은 알지 못한다.<sup>187)</sup>

이는 도연명의 인품과 그의 작품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서 시품과 인품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다. 도연명은 백거이와 마찬가지로 세속에 초탈하였고 자신의 분수를 지킬 줄 아는 높은 경지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에 품은 바를 시로 발현해냈기 때문에 그의 시가 평범한 듯하면서도 공교롭고 기이한 것이다. 초황이 도연명이 그 훌륭함을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이러한 시의 풍격이 도연명이 인위적으로 구현해낸 것이 아니라, 본래 자신이 지닌 고아한 품성이 저절로 발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당대의 위응물(韋應物)과 백거이(白居易)의 시의 풍격을 통해 작가의 수양을 함께 논하였다.

당대의 위응물과 백거이의 문장의 기질이 느슨하면서도 기묘한 것이 섞여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다……위응물의 성품은 高簡했으며, 앉는 곳에 향을 피우고 바닥 쓸고 앉는데, 뜻은 반드시 초연하고 자득한 바가 있었다. 백거이는 호수와 산을 방랑하였는데, 가기가 저절로 따라다녔고, 선리에 통달하였으며 만족할 줄 알고 욕심이 적었다. 그 말의 오묘함은 저절로 근본이 있는 것이

---

187) “靖節先生人品最高，平生任真推分，忘懷得失，每念其人，輒慨然有天際眞人之想。若夫微衷雅抱，觸而成言，或因拙以得工，或發奇而似易，譬之嶺玉淵珠，光采自露，先生不知也。”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陶靖節先生集序》，北京：中華書局，2013，pp. 169-170.



지 비단 우연일 뿐만은 아니다.<sup>188)</sup>

초횡은 위응물과 백거이의 문장의 기질에 대해 논하면서 ‘한묘(閑妙)’하다고 하였다. 여기서 ‘한묘’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 느슨하다는 것은 즉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깨달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느낌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참된 깨달음이기 때문에 ‘오묘함’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위응물과 백거이 모두 이치에 통달함과 동시에 초연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성품이 시에 발현되어 시가 저절로 훌륭해지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 초횡은 송대의 소식(蘇軾)과 소철(蘇轍)의 성품에 대해 칭송하며 작가의 인품과 작품의 성취를 함께 논하였다.

소식과 소철은 뛰어난 사람의 바탕으로 경학에 마음을 두고, 깊이 깨닫고 남은 것에 빠져들었고, 깊고 미묘한 뜻을 오묘하게 깨달음이 마치 六通四辟을 보는 것 같고 마땅하지 않은 것이 없다. 따라서 그것을 발휘하여 문장을 짓는데, 마치 강하가 끊임없이 흐름이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砥柱에 부딪히고, 呂梁을 넘어 수천 리를 지나 바다로 들어감에 비록 편안하여 물살이 평온하거나, 격하여 파도가 세차 변화가 수없이 일어날지라도 다만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할 따름이다. 그래서 세대가 바뀌고, 좋고 나쁨이 자주 바뀌는데도 두 사람의 글은 결국 육경과 함께 썩지 않는다. 무엇 때문인가? 저들은 진실로 자득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글을 짓는 선비들은 대대로 인재가 부족하지 않으니 재처럼 날아가고 연기처럼 사라져 없어지고, 그 영향을 따라 다해버리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두 사람은 즉 문장으로 세상에 드러났는데, 노년에 이르러서 어려움이 많았고, 생각이 깊고 견해가 확고하여 일찍이 옛날 성현의 글에서 배회하고 헤아렸다. 일찍이 내가 그것을 읽어보았는데, 고대의 微言과 아득한 논의가 분명히 갖추어져 있고, 대체로 실속 없는 화려함은 없애고, 진실만 보이니 이 두 사람의 지극함이

188) “唐韋左司白香山之文氣質閑妙渾然天成……左司性高簡，所居焚香掃地而坐，意必有超然自得者。香山嘗放浪湖山，聲伎自隨，而洞達禪理，知足而寡欲，此其言語之妙自有根荄，非偶然而已。” — 葉慶炳·邵紅編輯，〈明代文學批評資料彙編·大司成馮公具區集序〉，臺北：成文出版社，1979，p. 467.

다.189)

소식과 소철은 모두 경학을 바탕으로 두었고 도를 체득하였기 때문에 작품의 창작에 있어서 막힘이 없으며, 문장의 내용이 충실한 것이다. 대대로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횡은 두 사람의 문장이 오랫동안 전해질 것이라 말하며, 그들의 글이 육경에 견줄 만큼 훌륭하다고 인식하였다. 두 사람의 문장에 대한 평가는 현재까지 논의된 초횡의 견해와 완전히 일치한다. 앞에서 초횡이 선진시기의 글을 근원으로 삼고 있음은 이미 확인하였는데, 두 사람의 글에 미언(微言)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였고, 또 문장에 초횡이 계속 반대하던 헛된 화려함이 없으며 진실함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초횡이 두 사람의 글에 대해 특히 높이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명대 문인들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다. 팽로(彭輅)의 시문에 대한 평가에서도 초횡이 시품과 인품의 관계를 중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팽비부 선생의 이름은 輅, 자는 子殷이다.....선생은 어려서 매우 영민하여 과거 공부를 하는데 무리 중에 특히 뛰어나 나오면 번번이 과거에 성취가 있었다.....벼슬을 하면서 진실함에 의지하고 분수에 맞게 행동하여 영합하는 바가 없었다. 헤아려 결정하는 틈에도 매일 책을 읽고 문장을 지었으며, 옛 시가를 잘 짓자 알아보는 이가 그 재능을 추천하였는데, 상관이 좋아하지 않아 관직을 옮겼고, 사람들은 대부분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겼다. 선생은 담담하며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이득으로 여겼다. 금릉에는 아름다움이 풍부한 산수가 있어 늘 빈객이나 제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노닐었는데, 노닐 적에 반드시 시를 지어 스스로 드러내었고, 제자 중에 화답하는 자와 서로 권했

189) “兩蘇氏以絕人之資，剖心經術，沉浸涵泳之餘，妙契其微旨，若見夫六通四辟，無之而非是者。故發之爲文，如江河滔滔汨汨，日夜不已，衝砥柱，絕呂梁，歷數千里而放之於海，雖舒爲安流，激爲怒濤，變幻百出，要以道其所欲言而止。故世代遞更，好憎屢變，而二子之文卒與六經爲不朽。何者，彼誠有所自得也。不然，操觚之士，代不乏人，而灰飛煙滅，隨影響而盡，此其故可知已。二子既以文章顯於世，及其老而多難也，思深見定，始徘徊而詮次先聖之文。嘗伏而讀之，古之微言渺論，班班具在，蓋浮華剝而真實見，斯二子之至者也。”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續集·刻兩蘇經解序》，北京：中華書局，2013，p. 751.

다.<sup>190)</sup>

초횡이 팽로의 시문에 대해 논함에 그의 재능과 품성에 관해 언급한 바가 많다. 초횡은 팽로를 학문에도 뛰어나고 진실하며 자신의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평가하였다. 팽로는 주위에 쉽게 영합하는 바가 없었고, 이로 인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음에도 그는 초탈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그의 작품 창작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유희재가 ‘시품출어인품’을 논하면서 육유와 소식을 비교하여 두 사람 모두 뛰어나지만, 소식이 더욱 초연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여 소식의 시를 더욱 높이 평가하였는데, 이 시론은 ‘불평즉명’에서 더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불평해도 시에 불평을 드러내지 않고, 초연한 태도로 이를 극복할 줄 아는 것은 한 차원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초횡 또한 팽로의 이러한 태도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또 초횡은 팽로의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이 없는 사이에 낭관들과 자주 鐘山을 바라보고, 玄武湖를 내려다보고 배회하며 읊은 시가 날이 갈수록 많아졌다. 이는 응당 당시 선생의 아름다운 풍격과 문체가 강산과 서로 상응하여 발현된 것으로, 그것을 본 사람은 고인이 다시 일어난 것처럼 느꼈다……七子가 나와서 서로 드러내었다. 비록 당시에 이름이 있었으나 격조가 마치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 같았다. 오직 선생이 사람들이 아직 하지 못했을 때, 의기가 높고 간결하여 세속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크게 벗어났다. 지금 그 시집을 읽어보니 아름다움이 충만하고 탁월하며 스스로 일가를 이루어냈다. 실제로 뛰어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서 대개 七子만 말했기 때문에 선생의 아는 이는 드물다.<sup>191)</sup>

190) “比部彭先生，諱輅字子殷……先生少穎敏甚，爲進士業，夙拔儔類，出輒收其科……及爲吏，任眞推分，無所逢迎，剴裁之隙，日讀書績文，又工古詩歌，識者推其能，而上官不悅，徙學秩，人多爲不平，先生夷然不屑，若更以爲得也。金陵饒佳山水，時從賓客及帷中弟子遊，遊必賦詩以自見，弟子之和者相屬。”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彭比部集序》，北京：中華書局，2013，pp. 162-163.

191) “益以無事間合諸郎官眺鍾陵，俯玄湖，徘徊嘯詠，篇什日富。當是時先生風華文采與江山相映發，見者以爲古人復興……先生旣歸，七子者出，互相矜詡，雖其有名於時，而詞調如出一人，獨先生爲於衆所未爲之時，意氣高簡，不少貶以就俗。今讀其集，沖融婉

팽로는 초탈한 태도로 인해 자연에 더욱 심취할 수 있었으며, 자신이 자연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느낀 바를 그래도 시로 읊어냈기 때문에 시와 자연이 상응하였다. 즉 ‘정경교유’를 실천한 것이다. 초횡은 훌륭한 글의 근원을 ‘古’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초횡이 그의 시를 보고, 그를 고인에 비유한 것은 팽로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라 할 수 있다. 또 그를 ‘七子’와 비교하며 그가 자신만의 풍격을 지니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처럼 초횡이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문인들은 모두 이치에 통달해 있으며, 인품 또한 훌륭하여 시에 진실한 감정이 잘 드러내었다. 이러한 기준은 유원정(劉元定)에 대한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劉元定은 어지러운 세상에서 홀로 나왔고, 부귀하여도 검게 물들지 않았으며, 매번 시가 있는데 다만 마음을 취하니 문장을 꾸미지 않아도 감정이 절로 드러난다.<sup>192)</sup>

여기서는 유원정의 초탈한 성격과 다른 것으로 인해 쉽게 동요되지 않는 경지를 언급하였다. 특히 ‘검게 물들지 않는다[不緇]’라는 말은 그가 매우 훌륭한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논어(論語)》 <양화(陽貨)>편에 나온 것으로 “단단하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갈아도 손상되지 않는구나. 희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검은 물을 들여도 검어지지 않는구나”<sup>193)</sup>라 하였다. 즉, 어떠한 나쁜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훌륭한 성품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 곧 감정이 실리고, 수식을 가하지 않아도 좋은 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은 숙대(叔大)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와 같은 견해를 엿볼 수 있다.

---

秀，卓然自名其家，非實有過人者不能，然世率言七子，而能知先生者鮮矣。” — 焦竑撰，李劍雄點校，《澹園集·彭比部集序》，北京：中華書局，2013，p. 163.

192) “劉君元定，風塵獨出，貴富不緇，每有篇章，直取胸臆，蓋藻繪未施而神情自邁。” — 焦竑撰，李劍雄點校，《澹園集·劉元定詩集序》，北京：中華書局，2013，p. 173.

193) “不曰堅乎，磨而不磷。不曰白乎，涅而不緇。” — 李學勤主編，《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整理，《十三經注疏·論語注疏》，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9，p. 268.

叔大는 성년이 되어서 가업을 이어받았고, 자리에 보배를 품고 있었다. 행동과 마음이 고상하여 紫微宮에 이르렀고, 책략이 기이하여 은하에 이름이 항상 있었을 따름이다. 재능이 탁월하였으며 뜻은 산속에 감추어 두었다. 문장이 화려하고 정취가 도타우니 얼마나 공교한가? 지금 그 문집을 읽으면 높이 올라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 같으며, 두 도읍의 아름다움을 다하고, 이별의 슬픔과 기쁨의 만남이 있다. 여러 뛰어난 인물들과 사귀고 나면 매번 글을 짓는데, 본말을 섭렵하지 않음이 없고 진실한 감정을 짓들인다. 그래서 헛되고 화려한 것을 척결하고, 곧바로 마음을 드러내 기괴한 것을 깎아버리고, 홀로 한가롭고 넓은 곳에서 오묘하니 어찌 성율이 조화롭고, 기가 순조로우며 마음에 통달하고, 변하고 물들지 않음을 얻지 못한 자가 시행하겠는가?<sup>194)</sup>

이 글을 통해 숙대 또한 인품과 시품이 일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숙대의 시가 마치 실경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내용과 형식 모두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본말을 섭렵한 상태에서 시에 진실한 감정을 짓들이기만 하면 곧 좋은 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시에는 저절로 헛된 화려함을 배척하고, 내용에 부합하는 아름다운 형식이 구현된다.

다음 축세록(祝世祿)<sup>195)</sup>에 대한 초형의 평가에서도 이러한 견해가 드러난다. 초형은 먼저 축세록의 부지런한 태도를 칭송하면서 그의 성품을 드러내었다.

194) “叔大, 年踰弱冠, 紹爲箕之業, 韞席珍之寶; 抗跡紫宮, 策奇清漢, 在旦晚間耳. 而材能高世, 志在藏山, 詞文藻績, 情致顛篤, 一何工也. 今讀其集, 登高覽勝, 窮二都之壯麗, 傷離喜邁, 盡羣英而梯接, 每有綴屬, 靡不涉其源委, 寄之衷素, 故能剔抉浮華, 直舉胸臆, 剗削奇詭, 獨妙閒曠, 豈其和聲順氣, 鬯浹心膂, 緇磷遷染, 不得而施者邪! 抑亦嶺南諸君子風流具存, 譬之莊嶽而齊語者也.” — 焦竑 撰, 李劍雄 點校, 《澹園集·蘇叔大集序》, 北京: 中華書局, 2013, pp. 171-172.

195) 祝無功(축무공): 축세록(祝世祿, 1539~1610)을 가리킨다. 축세록의 자(字)는 世功이고, 강서(江西) 덕흥(德興) 사람이다. 경정향(耿定向)이 동남(東南) 지역에서 강학할 때 축세록이 함께 따랐다고 한다. 축세록은 시와 초서(草書)에 능했고, 저서로는 《環碧齋》 시집 세 권, 척독(尺牘) 세 권 및 《環碧齋》 小言 등이 있다.

環碧齋稿는 나의 벗 축무공의 시이다. 무공은 시 짓기를 좋아하였고, 나가서는 海陽을 다스렸다. 남은 뜻은 관아의 일을 처리하는 데 바빴으며 다른 고을보다 매우 심했다. 아침에 일찍 나가 저녁에 늦게 돌아오지 않으면 일을 처리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대는 오히려 시 짓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매우 바쁘고 여유가 없었는데 그대는 차분하여 이를 여유롭게 여겼다.<sup>196)</sup>

다음은 축세록의 이러한 성품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그의 학식 또한 칭송하였다.

弟子員들은 그대가 名理에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으며, 또 당시 책 상자를 지고 배움을 구하러 오면 그대는 시로 문답하였다. 비워가서 얻어오지 않음이 없으니 사람들이 모두 만족하며 돌아갔다. 듣는 자들은 그대가 어찌 여력이 있음이 이와 같은지 크게 의심하였다.<sup>197)</sup>

마지막으로 축세록의 시문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하며 축세록의 시문이 뜻과 성률이 잘 조화를 이루고, 옛것에 뿌리를 두고 있어 문장에 기세가 있음을 말하였다.

그대는 시문이 통쾌하여 그 뜻을 지키고, 흥이 도달하였으며, 성률이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일찍이 그것을 바로잡았다. 근래에 지은 것들은 청초하고 간략하면서도 깊으며, 법도에 들어맞아 뿌리가 고대에 있음이 마치 준마가 달리는데 鑾和로 조절하고, 五輅를 몰며, 大道를 행하는 것과 같으니 성대한 모습은 다른 말들이 이를 수 없을 따름이다.<sup>198)</sup>

---

196) “環碧齋稿者，余友祝無功詩也。無功好爲詩，去而爲海陽，余意簿書鞅掌，劇於郡他邑，非戴星而理不可。然君顧爲詩不廢，他人拮据不暇者，君從容應之有餘。”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環碧齋稿敘》，北京：中華書局，2013. p. 158.

197) “弟子員知君擅名理，又時負笈問學，君與倡酬問答，無不虛往實歸，人人意滿去。聞者多怪君何有餘力如此？”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環碧齋稿敘》，北京：中華書局，2013. p. 158.

198) “君詩筆淋漓，信其意興所到，而聲律或有不合，向嘗規之。近作清峭簡遠，往往中於法



또 초횡은 이러한 사람들의 성품이 고대에 대한 학습이 통해서 갖추어짐을 주장하였다. 다음 문장에서 도덕윤(屠德胤)<sup>199</sup>에 대한 초횡의 평가를 통해 이러한 견해를 살펴볼 수 있다.

이치에 통달하고 문사가 막힘이 없었고 배움이 충분하여 기운이 흘러나왔다.....비유컨대 물이 깊으면 곧 물결이 일고, 나무가 무성하면 곧 그늘이 지는 것이니 의심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모친을 대신하여 목숨을 청하고, 교훈을 세워 스승을 존경하고, 집안을 다스려 孝則과 女箴가 갖추어졌으며 옛것을 헤아려 경전과 역사를 논했는데 모두 핵심이다. 재앙을 구하고 오랑캐를 막는 데 이르러서는 충성심이 크고 겉모습은 굳세다. 끊임없이 글을 쓰는데 법칙에 들어맞지 않음이 없다. 죽히 두렵고 너그럽고 아름다운 자로 하여금 그 아름다움을 일으키고, 仁義의 도를 따르는 자가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으니 어찌 공언일 뿐이겠는가!<sup>200</sup>

도덕윤은 학식과 인품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시문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훌륭하다는 사실을 ‘깊은 물’과 ‘무성한 나무’에 비유하여 칭송하였다. 또 그의 글이 모두 법칙에 들어맞는 것은 경전과 역사에 대한 공부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문장에서는 정여벽(鄭汝璧)<sup>201</sup>의 인품과 학문에 대해 칭송하면서 그의 ‘지행합일’에 대해 논하였다.

度，而根柢前古，如騏驎之奔佚，節之鑾和，以駕五輅，而行大道，沛然非群馬所能及已。”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環碧齋稿敘》，北京：中華書局，2013. p. 159.

199) 屠德胤(도덕윤): 도중부(屠中孚)를 가리킨다. 자가 덕윤(德胤)이고, 도숙장(屠叔章)의 아들이다.

200) “理洞而辭暢，學足而機流……譬之水深而漪動，木茂而陰繁，無足疑者。乃若請命代母，立訓尊師，教家則孝則、女箴之畢具，考古則談經、論史之皆覈，以至救災防胡，褒忠表烈，亶亶言之，靡不中窾。足令蟬緩嬰娜者振其靡，而蹈仁履義者恃以立，則豈徒言而已哉!”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續集·重暉堂集序》，北京：中華書局，2013. p. 776.

201) 명대의 鄭汝璧(정여벽, 1546~1607)이 《由庚堂集》을 지었다. 정여벽의 자는 邦章, 호는 昆岩 또는 愚公이다. 융경(隆慶) 2년에 진사(進士)하였다.



崑巖鄭公은 스무 살에 조정에 올랐고, 법을 능히 집행하여 중요한 인물들과 업적을 세웠으며 출중한 명성은 한 시대를 흔들었다. 이미 儀曹, 典選部를 맡아 禮部에서 순응하고, 관가의 법을 정돈하였으며, 禮樂이 섞여 있어 깊이 깨닫는 학문은 더욱 융성하였다……마침내 지금 公의 문집을 얻었는데, 맑으면서 깊고 넓으며 육경의 오묘한 뜻을 밝혔다. 유생들의 理性을 해석함에 안에는 숨겨진 뜻이 없으며, 밖에서는 격식을 손상시키지 않았다. 말을 헛되이 수식하는 것은 물리치지 않아도 스스로 내쳤으니, 文中子가 말한 법칙으로 삼을 것을 약속하고 깊이 전범으로 삼는 것과 마땅히 부합된다. 군자의 글을 짓는데 三墳五典을 널리 배움이 적지 않고, 流畧을 깊게 보는데 말하는 사람들은 公孫僑와 鞞伯華에 불과하다고 한다. 말을 하는데 어찌 급히 번개를 치고 무지개를 흐르게 하여 이목을 혼드는 것이 불가능하겠는가? 그런데 많이 듣고 보고 핵심을 지키며 충만하면서도 과도하지 않게 하니, 단지 덕이 있는 말일 뿐만이 아니라 公의 後福 또한 대략 볼 수 있다.<sup>202)</sup>

초횡은 정여벽 또한 경전에 대한 학습이 있었기 때문에 말에 헛된 수식이 없고, 핵심을 지킬 수 있었던 사실을 강조하며 경전 공부와 작가의 수양에 바탕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초횡은 위응물, 소식, 소철, 사령운, 백거이, 도연명, 팽로, 유원정, 숙대, 축세록, 도덕운, 정여벽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의 창작에 있어서 작가의 수양을 우선시켰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고대 전적을 통한 학습과 같은 작가의 수양을 통한 인품이 바탕이 되어야만 그 내용에 깊이가 생기고, 본인이 깊이 느낀 바를 진솔하게 표현해낼 수 있으며, 이로써 본인만의 풍격을 지닌 참된 시를 창작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초횡은 작품의 실제 창작 차원에서 시의 창작법과 관련된 학습을 강조

202) “大中丞崑巖鄭公, 弱冠登朝, 能執法與要人抗業, 矯矯名動一時. 已歷儀曹, 典選部, 委蛇容臺, 澄敘官方, 錯綜禮樂, 識洞而學益融……乃今得讀公之集, 澄澹洸洋, 疏六籍之奧窔, 闡羣生之理性, 內無蔽志, 而外無傷格, 支詞冶語, 不擯自黜, 與文中子所言約以則, 深以典者, 適有合焉. 斯其爲君子之文, 非歟公少博攻典墳, 洞覽流畧, 說者謂公孫僑、銅鞮伯華不過也. 其爲言豈不能掣電流虹, 震鐙耳目? 然多聞見而守以卓約, 磅礴而一不使有餘, 微獨爲有德之言, 而公之後福亦畧可窺矣.” — 焦竑 撰, 李劍雄 點校, 《澹園集·由庚堂集序》, 北京: 中華書局, 2013. p. 168.

하였다. 이는 시법(詩法)에 대한 초형의 견해를 통해 살펴본다.

楊子가 말하길, ‘나무를 잘라 바둑판을 만들고, 가죽을 문질러 공을 만드는 데도 다 법이 있다’라 하였는데, 하물며 시에 있어서랴……내가 말하건대 공부를 잘하는 자는 똑같은 것을 따르지 않고, 같게 되는 바를 배운다. 같은 것이 법이며 같게 해주는 바는 법을 법으로 삼는 것이다. 蒲且子는 주살을 잘 쏘았는데 詹何가 이를 듣고 기뻐하며 그 방법을 배워 초나라에서 낚시로 이름을 얻었다. 吳道子는 張顥의 필법을 배웠는데 그의 그림은 특히 천하에서 오묘했다. 주살을 배워서 물고기를 얻고, 서법을 배워 그림을 깨달았으니 어찌 서로 멀고 끊어져 있지 아니한가? 그들은 법이 되는 바를 얻었으며 법은 본디 존재한다.<sup>203)</sup>

초형은 물건을 만드는 데에도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시 창작에 있어서 또한 법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지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고 해서 그것을 법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법이 되는 바를 본인이 직접 체득해야 하며, 그 법이 되는 바를 잘 익히면 첨하(詹何)나 오도자(吳道子)처럼 그것을 근원 삼아 다른 분야에서도 뛰어난 경지에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훌륭하게 만드는 바를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초형은 시법을 터득하는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유하였다.

공부하는 데에는 臨과 摹 두 가지 방법이 있다. 摹는 마치 목공이 집을 짓는데 대들보와 마룻대, 서까래의 각도가 모두 수평을 재는 기구에 의거하는 것과 같고, 臨은 마치 한 쌍의 고니가 하늘에 닿아 널리 비행하다가 각자 다른 곳에 머무는 것과 같다. 대체로 摹는 그 형체를 얻고, 臨은 뜻을 얻는 것이니 본디 다른 것이다.<sup>204)</sup>

203) “楊子有言，斷木爲棊，攄革爲鞠，莫不有法，而況於詩乎？……竊謂善學者不師其同，而師其所以同，同者法也，所以同者法法者也。蒲且子善弋，詹何聞而悅之，受其術而以釣名於楚。吳道子師張顥筆法，其畫特爲天下妙，學弋而得魚，臨書而悟畫，豈不相遼絕哉？彼得其所以法而法固存也。”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陳石亭翰講古律手鈔序》，北京：中華書局，2013，p. 164.

초형은 배움에 있어서 ‘摹’의 방식을 반대하였다. 배우는 데 있어서 수평을 재는 기구를 가지고 각도를 재듯 한 치에 오차도 없게 하는 것은 답습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반면, 한 쌍의 고니가 하늘에 닿을 듯 널리 비행하는 것은 폭넓게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자 다른 곳에 머문 것은 널리 배워 자기만의 것을 완성했음을 비유한 것이다. 이처럼 초형은 작가들이 이러한 ‘臨’에 의거하여 시법을 배워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초형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정신이 안정한 자는 하늘을 내달리고, 기가 완비된 자는 재능을 쏟아 내는데, 때때로 법이 서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따르고, 세상에 법도가 내려지지 않아도 천하의 법도는 저절로 완전하다. 예를 들어 운무가 출몰하여 순식간에 앞을 가리는데, 비록 구불구불하여 방향을 찾을 수 없어도 결국 법이 되는 바는 丹砂처럼 밝게 빛난다. 아, 배움에 뛰어난 자이다.<sup>205)</sup>

이는 작가의 시 창작과 관련된 비유로 볼 수 있다. 작가의 정신(神)과 기운(氣)이 완비되면, 시를 창작함에 재주가 충분히 발휘되어 본인이 어떠한 법을 세우지 않아도 사람들이 법으로 삼을만한 훌륭한 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다. 이처럼 훌륭한 바는 분명 존재하지만, 글을 짓는 사람이 꼭 어떠한 법을 세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움에 뛰어난 자가 아니면 그것을 쉽게 익힐 수 없다. 따라서 초형은 작가의 실제적인 독서행위를 통해 법을 익힐 수 있는 자질을 구비할 것을 주장하였다.

204) “學書有臨摹二法，摹如梓人作室，梁棟榱角，悉據準繩，臨如雙鵠摩空，翩翩浩蕩，栖止各異，蓋摹得其形，臨得其意，自不同也。”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題陳小明詩》，北京：中華書局，2013，p. 279.

205) “夫神定者天馳，氣完者材放，時一法不立而衆伎隨之，不落世檢而天度自全，譬之雲煙出沒忽乎滿前，雖旁歧詰曲，不可以爲方，卒其所以爲法者丙丙如丹，噫，此善學者也。”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陳石亭翰講古律手鈔序》，北京：中華書局，2013，p. 164.

나는 다만 학자들이 독서를 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한다. 책을 읽을 줄 알면 곧 피폐하게 정력을 다해 문장의 수식에 힘쓰고, 마땅히 유의해야 할 것은 방 안에 묶어두고 보지 않으니 독서를 잘하지 못함의 허물이다.<sup>206)</sup>

독서는 문인으로서 누구나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수양이다. 그런데 초횡은 이를 실천하지 않는 학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독서에 관해 두 단계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첫째는 ‘독서를 할 줄 아는 것(能讀書)’, 둘째는 ‘독서를 잘하는 것(善讀書)’이다. 먼저 ‘能讀書’란 문인들이 책을 어느 정도 읽으면, 그 후로 책을 계속해서 읽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문인들은 독서에 힘쓰지 않고 문장의 수식에만 치중하는데, 초횡의 입장에서 이는 참된 글이 아니다. 따라서 그는 ‘善讀書’를 주장하며 독서를 잘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을 제시한다.

독서는 경전을 연구하고 이치를 밝히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역사서를 통해 고인들의 경륜의 흔적을 볼 수 있으며, 또 그다음은 경세와 관련된 서적을 통해 응용할 만한 자료가 되게 하는 것이다. 대부분 본말이 모여 있어 모두 유익한 서적이니 나머지 것은 급한 바가 아니다.<sup>207)</sup>

초횡은 독서를 중시하지만, 무차별적인 독서는 지양한다. 따라서 그는 독서에 있어서 우선시할 것들을 정리하였다. 첫째는 경전, 둘째는 역사서, 셋째는 경세와 관련된 서적이다. 경전과 역사서는 모두 옛날 사람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다. 또 경세와 관련된 서적은 지금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읽으면, 곧 ‘古’와 ‘今’에 모두 능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초횡은 작가들이 이러한 독서행위를 통해 훌륭하게 되는 바

206) “余惟學者患不能讀書，能讀書矣，乃疲精力於雕蟲篆刻之間，而所當留意者，或束閣而不觀，亦不善讀書之過矣。”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荊川先生右編序》，北京：中華書局，2013，p. 141.

207) “讀書以治經明理爲先，次之諸史，可以見古人經綸之跡，又次則載諸世務，可爲應用資者。數者本末相輳，皆有益之書，餘非所急也。”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荊川先生右編序》，北京：中華書局，2013，p. 141.

를 배워 창작에 응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독서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 다음의 문장을 보겠다.

관직에 머무는데 나라의 전장제도를 밝게 익히는 것을 중요시 여기면, 관아의 모든 條例에 정통할 수 있고, 일을 처리함에 헤아려서 그것을 행할 수 있으니 교활한 관리가 저절로 그 손에서 처리되는 바가 없다. 이외에는 경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문은 그 다음이다.<sup>208)</sup>

초형은 관직에 있는 자에게는 전장제도를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첫째로 경세에 관한 서적을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다음으로 경전을 제시한 것으로 봤을 때, 직업을 막론하고 경전에 대한 학습을 우선시켰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기예는 도에 가깝고, 도는 경전에 실려있다. 경학을 버리고 글을 지을 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샘을 없었는데 물이 있을 수 있고, 부싯돌을 버렸는데 불이 있을 수 있고, 해와 달을 버렸는데 밝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 이치가 아니다.<sup>209)</sup>

초형에게 있어서 문인이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였다. 또 이에 대한 근거는 주변 인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수없이 전쟁하는 틈에 三餘之學을 이루었고, 薛仁貴<sup>210)</sup>의 경학과 杜元凱<sup>211)</sup>의 좌전을 좋아하는 벽이 거의 이에 가깝다. 또 손님이 모이면 정장의

---

208) “居官以明習國朝典制爲要，衙門一切條例既能洞曉，臨事斟酌行之，滑胥自無所措其手矣。此外治經第一，詩文次之。”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答樂禮部〉，北京：中華書局，2013，p. 123.

209) “技進於道，道載於經。而謂舍經術而能文，是舍泉而能水，舍燧而能火，舍日月而能明，無是理也。”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續集·刻兩蘇經解序〉，北京：中華書局，2013，p. 752.

210) 薛仁貴(설인귀): 당나라 고종(高宗) 때의 장수로 고구려 정벌에 공을 세웠다.

역참<sup>212)</sup> 같았고, 벗은 嵇康의 수레를 부르고 매번 흰 구름이 산을 둘러쌌으며, 밝은 달빛이 하늘을 떠다닐 때 일찍이 시가를 창화하지 않음이 없었고, 거문고와 술로 고조되었다. 산에 오르고 물가에 닿으니 宋玉의 詞가 아닌 것이 없고, 높은 문은 구름에 잇닿아 있으며 安仁<sup>213)</sup>의 흥취를 멀리 뛰어넘었다. 이는 또한 유가 학술에 대한 집착이며 장수의 문하에서 일상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옛날 隨陸<sup>214)</sup>이라 칭해지는 이들은 무예가 없었고, 絳과 灌은 글이 없었다. 두 가지 아름다움을 겸비하는 것은 본디 예전에도 어려운 것이었다. 시문과 학문에 이르러서는 모두 마음의 근원에 묶여있고, 용맹한 절개와 충성스러운 계획은 모두 정교한 구상으로부터 나오니, 그대의 넓은 재주가 아니면 누가 이곳에 함께 이르겠는가!<sup>215)</sup>

초황이 높이 평가한 두일장(杜日章)은 장수면서도 틈틈이 경학을 공부하여 시문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흔치 않은 일이지만, 수양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기본적으로 수양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정

211) 杜元凱(두원개): 중국 서진의 학자이다. 정치가, 진주자사, 진남대장군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 《춘추좌씨경전집해》는 춘추학으로서의 좌씨학을 집대성하였고, 《좌씨전》을 춘추학의 정통적 위치로 올려놓았다.

212) 鄭莊之驛(정장지역): 《사기·급정열전(史記·汲鄭列傳)》에 따르면, 정당시(鄭當時)는 자가 장(莊)이고, 효경제(孝景帝)때 태자사인(太子使人)이 되었다. 그는 닷새에 한 번 돌아오는 휴가에는 항상 역마를 장안의 여러 교외에 배치해 놓고, 옛 친구들을 찾아가거나 빈객들을 초청하여 밤낮으로 접대하였다. 그런데도 그는 항상 사람들을 끌고루 초청하지 못할까 근심하였다. 또 그는 황제와 노자의 학설을 좋아하고, 덕망있는 사람을 좋아하여 그가 교제하며 알고 지내는 사람은 대부분 나이가 많고, 천하의 명사들이었다. 후에는 손님을 잘 대하는 사람을 비유하였다. 또 ‘鄭莊驛’이라 하여 주인이 손님을 접대하는 장소를 가리키기도 하였다.

213) 安仁縣을 가리킨다. 호남성(湖南省)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214) 隨陸(수육): 한나라 유방(劉邦) 때의 문신(文臣)인 수하(隨何)와 육가(陸賈)를 가리킨다.

215) “……乃以百戰之隙，績三餘之學，薛仁貴之經術，杜元凱之傳癖，庶幾近之。且也客集鄭莊之驛，友命嵇康之駕，每白雲帶嶺，素月流天，未嘗不賡和詩歌，激揚琴酒。登山臨水，無非宋玉之詞；高閣連雲，遠軼安仁之興。此又儒術之結習，非將門之常談矣。古稱隨陸無武，絳灌無文，兼斯二美，自昔爲難。若乃詞林學府，咸綰於心樞，武節忠規，並推於意匠，非君通材，孰能與於此乎！”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杜日章集序》，北京：中華書局，2013，pp. 177-178.

교한 구상이 막힘없이 나온 것이다.

초횡이 시의 창작에 있어서 이러한 배움을 중시한 까닭은 천편일률적인 작품의 창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는 앞서서도 확인한 바로, 초횡은 시의 독창성을 주장하며 작가의 수양을 바탕으로 한 깊은 감정이 시에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을 시의 기본적인 창작법으로 인식하였다. 즉 작가의 실제적인 공부가 없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배우게 되고, 결국 작품에 독창성을 지니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작가의 인격 수양과 독서를 통한 배움을 강조한 것이다.

또 이러한 창작법에 바탕을 두면 자연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풍격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 초횡이 추구했던 풍격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대체로 그대의 풍격은 천하에서 아름답고 탁월하며, 맑고 편안하고 겸허하여 명성이 절로 멀리 간다. 따라서 그 시는 격발하지 않아도 높고, 수식하지 않아도 공교롭고, 깊은 의미는 순박함 사이에 숨어있으며, 섬세하고 짙은 것은 아담한 것에 깃들여 있으니 세상을 다스리는 소리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겠는가?<sup>216)</sup>

이 글을 통해 초횡이 자연스러운 수사를 추구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격발하지 않아도 높고, 수식하지 않아도 공교롭다는 것은 인위적인 수사를 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깊은 뜻[雋永]’이 ‘순박함[溫醇]’속에 담겨있고, ‘깊고 짙음[纖穠]’이 ‘아담[雅澹]’에 깃들여 있는 것처럼 서로 상충 되는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풍격을 완성하였다. 서로 모순되는 풍격이 동시에 구현된 시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세상을 다스리는 소리[治世之音]’에 비유한 것은 초횡의 유교적인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앞서서도 연명의 시가 ‘질박함(拙)’으로 인해 ‘공교로움(工)’을 얻고, 기이(奇)하면서

---

216) “蓋公標格令上天宇，清真雍容謙和，聲華自遠，故其詩不激而高，不刻而工，雋永藏於溫醇，纖穠寓之雅澹，所稱治世之音者非耶？” — 焦竑 撰，李劍雄 點校，《澹園集·弗告堂詩集序》，北京：中華書局，2013，p. 169.



도 평이(易)한 것처럼 보이지만 옥과 진주처럼 빛을 발한다고 평가한 것도 이러한 풍격에 대한 추구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중용을 추구하는 초횡의 문학관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는 서로 대립 되는 풍격의 동시 구현을 주장하며, 윤리학의 미학화(美學化)를 실현하였다.

결론적으로 시에 대한 초횡의 감상론을 통해 그가 추구하는 참된 시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초횡은 작가의 두 가지 차원에서의 수양과 함께 ‘神情’을 추구하였으며, 시의 풍격에 대한 견해를 분석함으로써 초횡의 시관은 여전히 유가의 전통적인 시관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초횡의 시관은 유가의 전통적인 시관과 ‘성’과 ‘령’이 융합하여 조화를 이룬 것이었고, 또 그것을 추구함에 함께 주장한 작가 수양론은 맹자의 ‘지언양기’로부터 조비, 유험, 종영, 한유 등을 따라 발전된 ‘문기설’을 계승함과 동시에 본인의 심학과 실학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복고파가 옛것을 숭상함에 형식적인 면을 위주로 하고, 공안파는 작가 개인의 감정을 극도로 중시하면서 문단의 풍조는 유가의 전통적인 시관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유가의 전통적인 시관과 성령을 함께 추구한 것은 자신이 늘 강조하였던 ‘변통’을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대 시문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던 초횡의 태도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 제 4 장 결론

명대에는 다양한 유파가 출현하여 각자의 문학적 주장을 펼쳤으며, 서로의 주장에 대한 비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명대의 문인들은 서로에게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문학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본인의 주장에 설득력을 갖추는 것 또한 문학작품의 창작만큼 중요한 일이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초횡의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는 이지나 공안파 등 주변 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 원인은 그의 폭넓은 학문의 수용과 문학에 대한 분명한 견해에 있었다. 초횡은 학문에 있어서 양명학 좌파인 태주학파에 속하여 심학을 계승하였으나 심학의 공소한 학풍에 반대하였으며 고증에서도 성과를 이루었다. 상호 폄훼가 심했던 심학과 고증학을 함께 다룬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매우 흔치 않은 일이었다. 당시 양명좌파의 후학들이 점차 실제적인 공부에서 벗어나 공연히 심학을 논하는 학풍으로 변질됨에 따라 청초의 고증학자들로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었고, 초횡은 그들과 달리 학문의 실천을 우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명좌파에 속했다는 이유로 그가 지닌 위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초횡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사상에 주목한 학자들은 이지나 공안파와의 영향 관계 등을 고찰함으로써 초횡 사상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따라서 사상사에서는 초횡에 대한 서술이 비교적 풍부하나 문학에서의 서술은 매우 간략하다. 대체로 초횡을 공안파의 일원으로 소개하며 그 또한 ‘성령’을 주장했다는 정도의 언급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초횡은 공안파보다 앞선 세대이며, 공안파가 그들의 문학이론을 성립하고 ‘성령설’을 제창함에 그가 길을 열어주었다.

초횡은 시에 있어서 성령을 주장했을 뿐 아니라 다른 시파에 귀속될 수 없는 자신만의 시관을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기존의 연구는 초횡의 사상에 관심이 치우쳐 그의 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초횡의 시관을 재구성하고, 초횡 시관의 문학

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을 밝히고 기존연구 검토를 검토하며 연구범위를 정하였다. 먼저 초횡의 문학과 관련된 연구의 진행 상황과 한계를 파악하였고, 초횡의 시관을 분석하기 위해 그의 학문적 견해가 잘 드러나는 서발문과 서신을 주요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초횡 시관의 토대가 되는 그의 생애와 사상, 기이관, 고금관에 대해 고찰하였다. 초횡의 생애와 관련해서는 그의 출신 배경, 스승과의 교류, 주변 문인들과의 교류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초횡이 학문적 성취를 위해 다방면으로 배우면서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주변 문인들의 평가를 통해 그가 당시 문단의 핵심 인물이었음을 증명하였다. 또 명대에 유행했던 풍조인 ‘기이함’에 대한 초횡의 인식론을 살펴봄으로써 그가 ‘본성으로서의 기이함’을 긍정했음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고금관을 통해 ‘본성으로서의 기이함’이 발현된 글의 근거가 고대의 성현들의 글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횡의 실제 독서행위를 통해 살펴본 결과, 초횡이 선진시기의 글을 전범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고대의 성현들의 글에는 그들의 ‘性命’과 ‘事功’에 대한 체득과 그들의 ‘靈’이 결합되어 깊이 있는 내용과 아름다운 수사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초횡은 ‘古’를 중시했지만 절대 ‘貴古賤今’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옛것으로부터 글 자체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옛것이 훌륭할 수 있었던 원인을 찾아 배우고, 자신의 ‘靈’을 담아내면 지금의 글 또한 옛것과 같은 훌륭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초횡의 고금관과 함께 초횡이 주장한 ‘성령’을 연동시킴으로써 ‘개성에 대한 중시’로 표현되는 공안파의 ‘성령’과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초횡은 ‘성’과 ‘령’의 융합을 추구한 것으로, ‘性’은 작가의 수양, 즉 ‘성명(性命)’과 ‘사공(事功)’에 대한 체득이나 옛것에 대한 학습을 가리키며, ‘靈’은 작가마다 각자 지니고 있는 정신, 감정 등이 발현되어 나오는 것이다. 즉 초횡이 말하는 ‘性’과 ‘靈’은 가치론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고, 둘 중 하나만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서 체용(體用)의 논리와 같다.

제3장에서는 초횡의 시관을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초횡은 대체로 유가의 전통적인 시교론을 계승하고 있었다. 초횡은 《시경》의 시교의 기능을 강조하며 명대의 시풍을 비판하였고, 시교설과 함께 사마천의 ‘발분설’, 한유의

‘불평즉명’, 구양수의 ‘시공이후교’ 등의 작용을 중시한 사실을 통해 그가 유가의 효용을 강조하는 ‘시언지설’과 작가의 감정을 중시하는 ‘시언정설’의 조화를 추구했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동심설’과 ‘성령설’이 사회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시언지설’의 유가적인 효용을 갖추지는 못한 반면, 초횡은 좋은 시의 조건으로서 ‘성’과 ‘령’의 융합을 주장하며 ‘감물언지설’을 발전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시의 창작을 위한 방법으로 작가의 수양을 제시하였다. 초횡은 시의 구상에 막힘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며 ‘신(神)’과 ‘기(氣)’의 작용을 중시했다. 이는 유헬의 문예이론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작가의 수양을 인격의 수양 차원과 실제 창작 차원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인격 수양 차원에서는 작가의 인품과 성품을 강조하였고, 창작 차원에서는 시법을 배울 것을 주장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시법이 아니라 법이 되는 바를 배울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초횡은 법이 되는 바를 배우기 위한 방법으로 독서를 제시하였다.

초횡의 시관을 살펴본 결과, 그의 시관은 기본적으로 전통시교론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전 문인들의 관점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초횡의 시관이 새롭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명대의 문단 풍조를 봤을 때 다른 시파가 형식 혹은 내용에 대한 극단적인 문학 주장을 펼침에 따라 시 본래의 기능이 결여된 상황에서 초횡이 유가의 전통적인 시관을 계승하고, ‘性靈’과 결합하여 본인만의 시관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초횡의 시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초횡의 ‘성·령’과 공안파의 ‘성령’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규명하고, 문학사에서의 초횡의 위치를 재평가하고자 하였다. 초횡의 저술과 학술사상은 그의 폭넓은 독서습관이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관이나 문학관을 연구하는 것 또한 명대의 문학과 학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고에서는 연구범위를 시집에 대한 서발문과 서신으로 한정하여 초횡이 창작한 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의 시관을 검증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수행할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원전 및 주석서

- 焦竑 撰, 李劍雄 點校, 《澹園集(上)》, 北京: 中華書局, 2013.  
\_\_\_\_\_, 《澹園集(下)》, 北京: 中華書局, 2013.  
\_\_\_\_\_, 《焦氏筆乘》, 北京: 中華書局, 2008.
- 張廷玉等撰, 《明史》, 北京: 中華書局, 1974.
- 黃宗羲, 許仁圖, 《明儒學案(上)》, 臺北: 河洛圖書出版社, 1974.  
\_\_\_\_\_, 《明儒學案(下)》, 臺北: 河洛圖書出版社, 1974.
- 葉慶炳, 邵紅 編輯, 《明代文學批評資料彙編(上)》, 臺北: 成文出版社, 1979.
- 袁宏道, 《袁中郎全集》, 臺北: 世界書局, 1990.
- 陳第, 《毛詩古音考》, 北京: 中華書局, 1991.
- 王國維, 《觀堂集林》, 臺北: 藝文印書館, 1956.
- 利瑪竇, 金尼閣 著, 何高濟, 王遵仲, 李申 譯, 何兆武 校, 《利瑪竇中國札記》, 北京: 中華書局, 1983.
- 許慎, 湯可敬 撰, 《說文解字今釋》, 長沙: 岳麓書社, 2001.
- 毛亨 編, 鄭玄 箋, 孔穎達 疏, 《毛詩註疏》,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68.
- 李學勤 主編, 《十三經注疏》整理委員會 整理, 《十三經注疏·論語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_\_\_\_\_, 《十三經注疏·孟子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_\_\_\_\_, 《十三經注疏·禮記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 劉勰 著, 周振甫 注, 《文心雕龍》, 臺北: 里仁書局, 1984.
- 周啓成, 周維德 注譯, 陳滿銘, 黃俊郎 校閱, 《新譯昌黎先生文集》, 臺北: 三民書局, 1999.

歐陽修, 楊家駱 編, 《歐陽修全集(上)》, 臺北: 世界書局, 1971.

## 2. 단행본

李劍雄, 《焦竑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011.

韓偉, 《大家精要·焦竑》, 西安: 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17.

李文琪, 《焦竑及其國史經籍志》, 漢美出版社, 1991.

許蘇民, 《李贄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009.

郭紹虞, 《中國文學批評史》, 北京: 中華書局, 1961.

羅宗強, 《明代文學思想史(上下冊)》, 中華書局, 2013.

余英時, 《明清變遷時期社會與文化的轉變》,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94.

陳來, 《양명철학》, 전병욱 역, 서울: 예문서원, 2009.

敏澤, 《중국문학이론 비평사: 명대편》, 유병례 외 옮김, 서울: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16.

張學知, 《명대철학사》, 김승일·김창희 역, 경지출판사, 2016.

김학주, 《중국문학사》, 서울: 신아사, 2011.

———, 《논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9.

김민나, 《문심조룡》, 서울: 살림출판사, 2005.

서경호, 《중국문학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이병한, 《중국 고전 시학의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야스다 지로, 《주자와 양명철학》, 이원석 역, 서울: 논형, 2017.

야마노이 유우, 《明清思想史의 研究》, 김석기·배경석 역, 서울: 학고방, 1994.

이기면, 《원굉도 문학사상》, 한국학술정보, 2007.

팽철호, 《중국문학통론》, 서울: 신아사, 2010.

### 3. 논문

- 趙超, <20世紀50年代以來焦竑研究綜述>, 《金田》, 2014.
- \_\_\_\_\_, <焦竑的‘世說體’小說研究>, 浙江師範大學, 2015.
- 向燕南, <晚明著名學者焦竑>, 《文史知識》, 1990.
- 焦白雲, <解讀學者焦竑的歸隱林泉生涯>, 《藝術百家》, 2009.
- 唐百成, <一生爲學惟學的壯元焦竑>, 《江南論壇》, 2016.
- 吳漫, <焦竑著述考略>, 《華北水利水電學院學報》, 2008.
- 龍曉英, <焦竑生卒年及其它>,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2006.
- 劉開軍, <焦竑學術交誼二題>, 《紅河學院學報》, 2013.
- 劉根勤, <‘心學’與‘實學’之間 — 對焦竑與徐光啓學術交往的考察>, 2013.
- \_\_\_\_\_, <焦竑與公安三袁關係考論>, 《西南科技大學學報》, 2006.
- \_\_\_\_\_, <焦竑與公安派文學交誼二題>, 《時代文學》, 2010.
- \_\_\_\_\_, <焦竑研究>, 南京師範大學, 2005.
- 陳寒鳴, <泰州王學後勁焦竑的儒家思想>, 《國學學刊》, 2017.
- 楊敏, <焦竑文學思想簡論>, 《文藝評論》, 2014.
- 白靜, <焦竑思想研究>, 北京大學, 2011.
- \_\_\_\_\_, <焦竑以禪意爲最高境界的佛教詩學觀>, 《蘭州交通大學學報》, 2011.
- 鍾勇, <焦竑的文學理論與古文創作 — 以<澹園集>爲中心>, 鄭州大學, 2016.
- 向燕南, <焦竑的學術特点與史學成就>, 《文獻》, 1999.
- 韓偉, <焦竑文論思想探析>, 《貴州師範大學學報》, 2011.
- 王誠, <從<焦氏筆乘>看焦竑的佛學思想>, 《宗教學研究》, 2014.
- 吳正嵐, <論焦竑文學思想與蘇軾易學的淵源>, 《周易研究》, 2013.
- 韓春平, <焦竑與明代中后期金陵地區的通俗文學>, 《華僑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7.
- 胡翠變, <焦竑<焦氏類林>研究>, 浙江師範大學, 2011, 碩士
- 樊藍燕, <焦竑<玉堂叢語>的文學研究>, 安徽大學, 2014, 碩士



李焯然, <焦竑及其<玉堂叢語>>, 《文獻》, 1982.

牛建强, <明代中后期士風異動與士人社會責任的缺失>, 《史學月刊》, 2008.

신향숙, <이지와 초형의 學問的 交渉에 대하여: 「분서」 書答篇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5.

尹貞粉, <明末(16~17세기) 문인문화와 소비문화의 형성>, 《명청사연구》, 명청사학회, Vol.23, 2005.

이정진, <明末 초형의 思想에 관한 研究: 그의 實用的 思想을 中心으로>,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9.

이은상, <명말 강남 문인들의 물질문화 담론에 관한 試論>, 《중국학》, 대한 중국학회, Vol.36, 2010.

이주현, <공안파(公安派)의 시론 다시 읽기 — 마음의 시화(詩化) 과정에 대한 점검>, 《중국문학》, 한국중국어문학회, Vol.86, 2016.

이기면, <원광도의 이상론>, 《중국어문논총》, 中國語文研究會, Vol.6, 1993.

최수경, <明代 後期 상업출판물 속의 ‘物’>, 《中語中文學》, 한국중어중문학 회, Vol.60, 2015.

황정희, <한유 산문 중의 인격 형용어 ‘奇’ 연구>, 《중국어문논총》, 中國語文研究會, Vol.33, 2007.

#### 4. 사전 및 데이터베이스

《漢韓大字典》, 서울: 民衆書林, 1997.

《漢語大詞典》(MDict for PC 1.3 RC4, <http://www.octopus-studio.com>)

《漢典》(<http://zdic.net>)

《中國基本古籍考》,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2001.

## 中文摘要

本論文是關於焦竑詩觀的研究。焦竑是明代中後期的學者、文人，而且作為陽明學者，比起在文學史上，他的觀點在思想史和哲學史上更受關注。焦竑在文學上的成就並未受到重視，文學界傾向於將焦竑歸於公安派，從而導致未能正確評價焦竑在文學史上的地位及其詩觀的意義。本文旨在克服這種現有研究的局限性，重構並分析焦竑的詩觀。

分析焦竑的詩觀需考察焦竑的生涯和思想。焦竑與那些徒然論心學、不致力於學業的陽明學者不同，他重視實際學習，因此在考據學方面也取得了較多成就。通過他在心學和考據學兩個方面的成就，可以推斷出他的學術地位，他的學術成就可謂是定義明末清初心學和考據學的橋梁。焦竑毫無偏見地接觸多種學問的態度，使他在心學、考據學、史學，文學等方面都取得了學術成就。並且復古派、唐宋派、公安派，竟陵派等各個流派相繼出現並各自提出文學主張之時，焦竑未曾隨波逐流，他通過其獨特視角與全方位的思考表達了其特有的見解。

首先，通過焦竑的“奇異觀”和“古今觀”著重考察了焦竑對“文”的基本看法。明代追逐“奇異”的風氣盛行，“奇異”甚至成為評估事物價值的優先條件。因此文人寫作追求華麗並致力於修辭，導致其作品內容空乏的弊端，而有些強調傳統的文人對此現象則表現出憂慮。焦竑也認識到這一點，並明確地闡明了他對“奇異”的觀點。焦竑沒有否定“奇異”本身，反而主張“奇異”能成為“文”的優點，即從其內容角度來說是“本性之奇異”。焦竑將“本性之奇異”比作金、玉，材木等天然物質，還通過對陶淵明的作品和《春秋左傳》的評價，表達了自己並非否定“奇異”，反之主張“文”具有“本性之奇異”才能使其出色。

此外，通過焦竑的古今觀可了解他對文章的基本看法。焦竑主張的寫作典範在於“古”，但值得注意的是，他追求的並非是照搬舊物，而是要體會經典古文之精髓，即如何成之典範。對此，焦竑主張以“性命”和“事功”為研習學問的根基，通過不斷修養，並在體會“性命”和“事功”的情況下寫作。焦竑認為唯有在此基礎上所作的“文”，其內容才會有深度，再與其精美修辭、描寫完美融

合，煥發出“本性之奇異”的光彩。也就是說，焦竑既注重內容又注重形式。焦竑的這種古今觀還與“性”，“靈”相連。焦竑的雖主張以古爲本，但他並未“貴古賤今”，他認爲要作出具個人特色的“文”則需要模仿，但並不是模仿古人的文章本身，而是要探索並學習經典古文之精髓，寫出獨具特色的文章，此類文章方可成爲千古典範。焦竑欲模仿的“古”不單單是指古代，而是指蘊含著“靈”的“古”，因此是值得效仿的“古”。焦竑將“自我”，即“個性”稱爲“靈”，並且將“靈”所呈現的狀態稱爲“靈采”。如此，寫文章只要能夠表現出自己的個性，具備自己的風格，即使是以前涉及過的主題、素材或者描寫，也可以煥然一新，成爲又一個經典。

最後，本文在此基礎上重構了焦竑的詩觀。焦竑繼承了儒家的傳統詩論，因此他非常重視“詩教”的功能。當時復古派重視傳統，即形式上的部分，而不是詩教的傳統；唐宋派雖繼承儒教的精神，但像公安派一樣，注重的是作者思想和感情的真實表達，因此明代的詩歌早已失去“詩教”的功能。在此情況下，焦竑主張儒家傳統的詩教論，試圖弘揚古詩的精神和詩本身的功能來糾正當時的詩風。與此同時，論好詩的判斷標準，他提出了“性”與“靈”的融合，這就表明他並不是盲目地繼承傳統詩論，而是嘗試在傳統詩教論的基礎上使其發展。

關於這種詩歌的創作，焦竑還強調“作者的修養”。他提出讀書的方法，並主張文人讀書應以讀經典爲主，從這種焦竑的倫理要求中可看出他與一般陽明左派學者的不同。

總之，筆者通過分析焦竑的詩觀，發現焦竑主張的“性靈”是“性”與“靈”的融合，而且與公安派主張的“性靈”存有區別。因此，可以說焦竑對公安派“性靈說”的發展產生了不少影響，但要把他歸於公安派未免有些牽強，因爲焦竑具有可以彌補其他流派弊端的詩觀，而且焦竑的學術見解對周圍的文人亦產生不小影響，所以焦竑的詩觀在文學史上有不容小覷的意義，本人認爲有必要積極探究焦竑在文學上的影響。總而言之，本論文旨在彌補現有研究的局限性，並希望在往後文學史研究中出現更多關於焦竑作品的研究。

關鍵詞：焦竑，詩觀，奇異，古今，性靈，公安派，陽明學，明代文學

學號：2016-23903